



# 2016학년도 경찰대학 1차시험 (국 어)

※ 총 12쪽 45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 1. 다음 중 어법에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① 기차가 발차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 ② 나무 밑에도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 ③ 그날 이후로 철수의 생활 방식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 ④ 꼭대기가 평평하게 되어 있는 산지인 고원은 세계의 지붕이라 일컫는 파미르 고원을 비롯하여 많은 고원이 있다.
- ⑤ 박 선생이 마을에 이주한 후 명령을 거역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농장일도 열심히 하였고, 죄인으로 다스릴 증거를 잡지 못하였다.

### 2. <보기>를 참조할 때, 밑줄 친 부분의 '-시-'의 사용이 올바른 것은?

\_\_\_\_\_ <보기> \_\_\_\_\_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라는 종업원의 말에 손님은 말문이 막혔다. “커피가 ‘나오셨다’고요? 왜 커피를 높이세요?” 손님의 말에 당황한 종업원은 웃으면서 말했다. “죄송하세요.”

마트에서는 “그 상품은 품질이세요.”, 병원에서는 “주사 맞으실게요.”, 여행사에서는 “비수기 할인 가격이세요.” 등과 같이 어법에 맞지 않는 말들이 허다하다. 별생각 없이 틀린 높임말을 쓰는 동안 한국어 어법이 뒤틀리고 있다.

- ① 이 옷 색상 예쁘시죠?
- ② 보라 언니가 들어가시실게요.
- ③ 부탁하신 상품이 도착하시었습니다.
- ④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할인이 돼요.
- ⑤ 저희는 아이스 카푸치노도 제공하시세요.

### 3. ㉠~㉣에 해당하는 것 중, 맞춤법에 어긋난 단어가 포함된 것을 고르면? [3점]

\_\_\_\_\_ <보기> \_\_\_\_\_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쓴다.  
(순 우리말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것)

- ㉠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 뒷말의 첫소리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        |      |     |
|--------|------|-----|
| ㉠      | ㉡    | ㉢   |
| ① 나뭇가지 | 아랫마을 | 두렛일 |
| ② 벗가리  | 뒷머리  | 뒷입맛 |
| ③ 아랫집  | 잇몸   | 나뭇잎 |
| ④ 조갯살  | 텃마당  | 베갯잇 |
| ⑤ 칫바퀴  | 머릿말  | 땃잎  |

### 4. 밑줄 친 조사의 용법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 ① 구청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 ② 광주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됩니다.
- ③ 우리 학교에서 대민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 ④ 이번 체육대회는 부산 경찰서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 ⑤ 요양원에서 건강 달리기 대회를 열어 모두 즐거운 휴일을 보냈다.

### 5. 밑줄 친 부분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_\_\_\_\_ <보기> \_\_\_\_\_

철수는 외래어 표기법을 공부하면서 의문이 생겼다. 자주 쓰이는 외래어 중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씨비스]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표기는 씨비스가 아닌 서비스이다. 어두에서 된소리인 외래어들은 예사소리로 적었다. 예를 들어 ‘버스’가 [빠스]로 발음되지만, 버스로 적는다. 왜 [빠스]를 버스로, [씨비스]를 서비스로 표기할까?

- ①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
- ② 외래어 표기법의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
- ③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대로 표기한다.
- ④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⑤ 외래어를 표기할 때에 새 글자나 부호를 쓰지 않는다.

### 6. <보기>를 참조하여, 한글 로마자 표기가 올바른 것을 고르면? [3점]

\_\_\_\_\_ <보기> \_\_\_\_\_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다.  
\* ‘ㄱ, ㄷ, ㅂ’은 어두나 모음 앞에서 ‘g, d, b’로,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 ① 옥천 Ogcheon    ② 백암 Paegam    ③ 설악 Seolak
- ④ 울릉 Ulleung    ⑤ 대관령 Daegwanlyeong

### 7. <보기>의 밑줄 친 ‘한 이치’에 해당하는 것은?

\_\_\_\_\_ <보기> \_\_\_\_\_

1876년에 태어난 주시경 선생은 어릴 적에 한문수학(漢文修學)을 하시다가 15세에 이르러 국문(國文)을 공부하면서 국어의 한 이치를 깨닫게 되었다. “종이와 붓과 먹과 벼루와 책은 선비가 쓰는 물건이라.”에서 ‘먹과’, ‘벼루와’ 같이 ‘과’와 ‘와’는 그 역할이 같지만 받침이 있는 글자 뒤에는 ‘과’가 쓰이고 받침이 없는 글자 뒤에는 ‘와’가 쓰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 ① ‘잠은 사람, 오는 사람’에서 ‘은’과 ‘는’의 관계
- ② ‘밥을 먹었다, 꽃이 피겠다’에서 ‘었’과 ‘겠다’의 관계
- ③ ‘사람이 좋다, 나무가 자란다’에서 ‘이’와 ‘가’의 관계
- ④ ‘집을 빨리 짓다, 어서 빨리 가자’에서 ‘다’와 ‘자’의 관계
- ⑤ ‘철수는 벌써 갔고, 강수는 청소하며’에서 ‘고’와 ‘며’의 관계

**[8~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 바뀌 쓰기가 실천되면 사람들은 그 안에 숨어있던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사례를 보자. 금연이 공적 기준이 되면, 흡연에 대해 사람들은 압박감을 느끼고 흡연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다. 언어 사용도 마찬가지다. 바뀌 쓰기가 공적 기준으로 되면 사람들은 사용하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인다. 때론 무심하게, 때론 제멋대로 뱉은 말들을 조심하면서 그 사람의 사회적 태도도 바뀐다.

미망인(未亡人)이란 단어에는 ‘(남편을)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라는 부정적 뜻이 담겼다. 물론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 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미망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는 움직임이 사회적으로 실천되면, 남편과의 사별로 힘들어진 여성이 ‘미망인’이라는 지칭어로 상처받는 일은 줄어들 것이고, 사람들은 상처 주는 말, 차별적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차별적인 말을 바꾸는 것이 사소한 일이라는 사람도 있다. 일상에서 ‘그냥 말일 뿐이야’, ‘한번 말해 봤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문제이다. 언어가 언어일 뿐이라면, 왜 많은 나라에서 말에 의한 명예 훼손, 모욕, 협박과 위협 등을 법률로 정해 처벌하겠는가. ㉢이런 입장이라면, 원만한 자녀 관계, 부부 관계, 동료 관계를 맺고 이어가기 위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여 말하자는 조언이나 심리 강좌, 언어 강좌 등은 모두 쓸모없다고 주장해야 옳을 것이다.

**8. ㉠, ㉡과 문맥상, 어울리는 단어는?**

- ㉠                      ㉡
- ① 재고(再考)하기    성찰(省察)하게
  - ② 숙고(熟考)하기    관찰(觀察)하게
  - ③ 장고(長考)하기    감찰(監察)하게
  - ④ 사고(思考)하기    시찰(視察)하게
  - ⑤ 회고(回顧)하기    진찰(診察)하게

**9. ㉢과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은?**

- ① 막대기와 돌은 내 뼈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그 단어 자체는 나를 절대로 해치지 못하지.
- ② ‘노인네, 결혼가정’과 같은 말보다도 ‘어르신, 한부모가정’이라고 표현한다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지.
- ③ 라이프니츠는 ‘언어는 인간 정신을 그대로 본떠 놓은 것’이라고 하면서, 언어가 인간의 정신을 반영한다는 이론을 정립하였다.

- ④ 에드워드 사이드는 아시아를 ‘오리엔탈’로 부르는 것에 반대했어. 지구는 둥근데 유럽인이 아시아를 동쪽이라 부르는 것은 유럽 중심적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지.
- ⑤ 말은 행위의 수행과 관련이 있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은 ‘명령한다’와 같은 수행 동사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문장 속에는 나는 네가 너희 나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

**10.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점]**

<보기>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한글 문헌이 많이 나온 시기가 바로 후기 중세 국어이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일부를 인용한다. “불휘 기픈 남곤 브르메 아니 뵈씨 곱 도코 여름 하느니” 이 문장의 현대어역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게 되느니라’와 비교해 보면 현대 국어와는 그 형태와 의미가 다른 단어들이 보인다.

- ① 불휘    ② 아니    ③ 곱    ④ 도코    ⑤ 여름

**11. 아래 글을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화분에 있는 꽃에 물을 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꽃을 키울 때 가장 어려운 일은 물 주기다. ㉠물이 적게 주어도 안 되고, 많이 주어도 안 된다. 품종에 따라 적당하게 주어야 한다. ㉡바람이 적당하게 통하게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 토양의 수분 상태를 미리 파악하면 물 주는 시기의 양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 먼저 나무로 된 이쑤시개를 2~3cm 깊이로 흠에 꽂고 30분 뒤 꺼냈을 때 이쑤시개가 1cm 이상 젖어 있다면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수분이 있다는 표시로 볼 수 있다. ㉢그 이상이면 물을 충분히 줘야 한다. 또 손가락으로 흠을 눌러 잘 들어가지 않으면 토양이 메말랐다는 증거이다.

물을 주는 방법도 중요하다. 보통 화초에 물을 줄 때 잎이나 꽃에 주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꽃에 물을 주면 꽃봉오리가 떨어지거나 빨리 시들게 되고, 잎과 잎 사이에 주름진 곳에 물을 주면 잎이 썩을 수도 있다. 따라서 물은 흠에만 주고 잎 사이 먼지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아 주어야 한다. ㉤싱싱하고 아름다운 꽃을 오래 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성을 쏟는 것이다.

- ① ㉠은 ‘주어도’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인 ‘물을’로 고치는 것이 좋다.
- ② ㉡은 글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 삭제하는 것이 좋다.
- ③ ㉢은 내용상 잘못 쓰였기 때문에 ‘이상이면’을 ‘미만이면’으로 바꿔야 한다.
- ④ ㉣은 앞의 내용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를 ‘하지만’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 ⑤ ㉤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으므로 ‘~정성을 쏟는다’로 고쳐야 한다.

[12~13]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12. <보기>는 ‘자연 재해로 인한 재난과 나눔’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수정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I. 자연 재해의 피해	
- 국내와 국외의 자연 재해 실태	
II. 자연 재해의 종류와 예방법	
1. 종류	.....㉠
가. 기상 이변 : 태풍, 홍수, 가뭄	
나. 지반 재해 : 지진, 화산	
다. 생물 재해 : 병충해, 전염병, 풍토병	.....㉡
2. 예방법	
가. 기상 이변에 대한 대비	
나. 위험 시설물의 지진 대비 설계	
다. 국내와 해외 이동의 검역 철저	
III. 자연 재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방안	.....㉢
1. 각종 구호단체에 의연금 기부	.....㉣
2. 자원 봉사를 통한 이재민 구호	
3.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위험 경고	.....㉤
IV. 자연 재해의 재난 극복과 나눔의 세상 이룩	

- ① ㉠의 하위 항목으로 ‘교통 재해 : 지하철 사고, 선박 침몰 사고’를 추가해야겠어.
- ② ㉡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어서 ‘II-1-나’와 중복되므로 생략해야겠어.
- ③ 글의 완결성을 위해 ㉢은 ‘자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바뀌어야겠어.
- ④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을 ‘구호 단체에 대한 감독 철저’로 바뀌어야겠어.
- ⑤ 논리적 일관성을 고려해 ㉤은 II-2의 하위 항목으로 옮겨야겠어.

13. <보기>를 참고로 하여 ‘자연 재해의 피해자를 돕자’를 홍보하기 위해 캠페인 문구를 만들 때, 아래의 조건에 맞게 쓴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를 이루게 할 것</li> <li>· 비유적 표현이 들어갈 것</li> <li>·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할 것</li> </ul>
---

- ① 숨 쉬는 것을 망설인 적이 있나요? 봉사와 기부는 지금 당장 필요한 산소와 같은 것입니다.
- ② 봉사하는 것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재민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쓰다듬어 주어야 합니다.
- ③ 오늘 이재민을 위해 낸 우리의 의연금은 적금이 되어 나중에 우리를 살려주는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 ④ 오늘 당신의 기부가 갈증을 달래는 생명수가 된다면, 언젠가 누군가의 봉사가 당신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 ⑤ 태풍의 진로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자연 재해 이재민이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자연 재해 이재민이 될 수 있습니다.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보통 공간을 배경으로 사물을 본다. 그리고 시간이나 사유를 비롯한 여러 개념들을 공간적 용어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용어가 중의적으로도 쓰이고 한편으로는 일상적 다른 용법으로 인해 혼란을 겪기도 한다. 공간에 대한 용어인 차원이라는 용어 역시, 다양하게 쓰인다. 차원의 수는 공간 내에 정확하게 점을 찍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양의 개수이다. 특정 차원의 공간은 한 점을 표시하기 위해 특정한 수의 양이 필요한 공간을 의미한다. 다차원 공간이란 집을 살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의 공간처럼 추상적일 수도 있고, 실제의 물리 공간처럼 구체적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을 1차원적 인간이라고 표현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관심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에 틀어박혀 스포츠만 관람하는 인간은 오로지 스포츠라는 하나의 정보로 기술될 수 있고 그 정보를 직선 위에 점을 찍은 1차원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다.

3차원 공간에서 사람의 위치를 정하려면 3개의 숫자가 필요하다. 4차원 공간의 점은 3차원 공간에 1개의 축을 더한 것이다. 차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는 뜻이다. 차원이 줄어지는 경우도 있다. 책을 각 면으로 나누면, 각각의 면들은 2차원이 된다. 반대로 ㉡2차원의 면을 조합하면 또한 3차원 물체가 재구성된다.

공을 환등기에 투영하면 뒷면의 스크린에 2차원의 원이 나타난다. 이처럼 투영은 차원이 높은 원래의 대상으로부터 정보를 삭감한다. 대상보다 낮은 차원의 그림을 그릴 때에 손실된 부분을 되살릴 수 있는 정보가 부가되기도 한다. 사진이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음영이나 색이 그러한 부가 정보이다. 르네상스 이후 대부분의 서양화가들은 원근법과 음영법을 사용하여 2차원 평면 위에 3차원 환영을 만들어 냈다. 서양 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3차원 세계를 2차원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낮은 차원의 이미지에서 어떻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더 적은 정보일 수도 있다. 우리는 대체로 3차원이 제공하는 정보 모두에 신경 쓰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세 번째 차원이 굉장히 얇은 물체라면 그 방향에서 일어나는 일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에 인쇄된 잉크도 실제로는 3차원이지만 그것을 2차원으로 여긴다고 해서 읽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미경으로 보지 않는 한, 잉크에 두께가 있음을 느끼지 못한다. 중요한 정보를 취하고 세부를 무시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행하는, 일종의 실용적 데이터 조작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다루는 방식일 따름이다. 우리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세밀하고 철저히 파고들지, 아니면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큰 그림을 그릴지 선택하는 것이다.

1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상상하는 추상적 공간도 다차원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② 일상 언어에서 차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인간의 특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 ③ 3차원의 환영은 차원이 줄어들 때 발생하는 정보들의 삭감을 보충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 ④ 투영이라는 방법이나 그림 그리기는 실제의 사물을 한 차원 낮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 ⑤ 인간이 사물에 대한 차원을 실제와 근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사물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세부 정보보다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통찰력이 중요하다.

15. ㉠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정한 방향                      ② 각자 반대의 방향
- ③ 추상적인 방향                    ④ 구체적인 방향
- ⑤ 서로 독립적인 방향

16. ㉡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고차원 공간에 관한 정보를 표면에 기록한 홀로그래피
- ② 다큐멘터리 프로듀서가 시골의 전원생활을 실제 그대로 생생하게 기록한 영화
- ③ 중세 시대의 화가들이 여러 성인들의 모습들을 성당 벽에 그려놓은 모자이크 그림
- ④ 피카소와 같은 입체파 화가들이 여러 각도에서 본 이미지들을 한 그림 속에 모아서 입체적으로 표현한 회화
- ⑤ 액션 단층 촬영을 여러 장 하고, 그 사진들을 순서대로 포개 공간 속에서 환자의 영상을 입체적으로 재현한 것

[17~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호미도 놀히언마르논  
㉠날ㄱ티 들 리도 업스니이다  
아바님도 어이어신마르논  
위 덩더동성  
㉡어마님ㄱ티 괴시리 업세라  
아소 님하  
어마님ㄱ티 괴시리 업세라  
-작자 미상, 「사모곡(思母曲)」

(나)  
아바님 날 나호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곳 아니시면 이 몸이 사라질가  
㉢하늘 ㄱ툼 ㄱ업손 ㉣은덕을 어더다허 갑스오리  
어버이 사라신 제 섬길 일란 다허여라  
디나간 후면 애둡다 엇디허리  
평생애 곳터 못홀 일이 잇뿐인가 흐노라  
-정철, 「훈민가(訓民歌)」

(다)  
정월이라 십오 일에 완월(玩月)하는 소년들아  
흉풍(凶豊)도 보려니와 부모 봉양 생각제라  
신체발부(身體髮膚) 사대절(四大節)은 부모님께 타 낫스니  
태산같이 노픈 덕과 ㉤하해같이 기픈 ㉥절을 어이 하여 이  
즈리오  
천세만세 미덧더니 봉래 방장 영주산에  
불로초와 불사약을 인력으로 얻을손가 슬프다 우리 인생  
수욕정이풍부지(樹欲靜而風不止)하고 자욕양이친부재(子欲  
養而親不在)라  
공산낙목 일배상(一杯上)에 영결종천(永訣終天) 되겠구나  
일 년 삼백육십 일에 일일(一日) 사친(思親) 십이 시라  
음풍(陰風)이 적막하고 소식(永絕)하니  
슬프다 우리 부모 상원(上元)인 줄 모르시나  
그 달을 허송하니 이월이라 한식(寒食) 일에  
천추절(千秋節)이 적막하니 개자추의 뉘이로다  
원산(遠山)에 봄이 드니 불 탄 풀이 속잎 난다  
(중략)  
슬프도다 우리 부모 청명(淸明)인 줄 모르시나  
그 달 그믐 다 지나고 삼월이라 삼진날에  
연자(燕子)는 나라드러 옛 집을 차자오고  
호접(蝴蝶)은 분분하야 구색을 자랑한다  
㉦기수(沂水)에 목욕하고 ㉧무우(舞雩)에 바람 쏘여  
등동고이서소(登東臯而叙嘯)하고 임청류이부시(臨淸流而賦  
詩)로다  
㉨산화(山花)는 ㉩홍금(紅錦)이오 세류(細流)는 청사(靑絲)  
로다  
(중략)  
슬프도다 우리 부모 답청절(踏淸節)을 모르시나  
-작자 미상, 「사친가(思親歌)」

1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차별적인 태도를 슬퍼하고 있다.
- ② 부모의 은혜에 대해 보답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③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부모를 위해 공덕을 쌓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부모의 사랑이나 은덕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18. (나)와 (다)를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와 (다)는 모두 화자가 청자보다 우위에 서서 말하고 있다.
- ② (나)와 (다)는 모두 부모에 대한 애달픈 심정을 말하고 있다.
- ③ (나)는 (다)와 달리 대구법을 사용하여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 ④ (다)는 (나)와 달리 청자를 제한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다.
- ⑤ (다)는 (나)에 비해 시간의 흐름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19. (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대비적인 구도를 통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감탄 어구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④ 중간에 조음구를 삽입하여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다.
- ⑤ 일상적인 도구를 비유로 사용하여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20. (다)의 화자가 (가)의 화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후회해도 소용없으니 마음의 응어리는 풀어 버리시오.
- ② 부모는 자식 때문에 고생한다지만 그래도 인생의 낙은 자식에 있다오.
- ③ 힘들다고 포기 말고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오.
- ④ 부모와 자식은 동고동락하며 한평생 함께 살아가는 사이라오.
- ⑤ 다음 생에서는 자식으로서의 아픔을 겪지 말기 바라오.

21. ㉠~㉢ 중 비유 관계로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 ① ㉠과 ㉡
- ② ㉠과 ㉢
- ③ ㉡과 ㉢
- ④ ㉡과 ㉣
- ⑤ ㉢과 ㉣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37년(헌종 3) 16세 소녀 ㉠득열은 자신을 팔아 굶주림에서 벗어나고자 자매(自賣) 거래 전 관(官)에 ㉡소지(所志)를 올렸다. 이 소지에 따르면, 득열은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최근 연이은 흉년에 구걸하여 아버지와 자신의 목숨을 연명해 왔다. 옆친에 덮친 격으로, 올봄 기근이 심한 탓에 아버지를 굶주리지 않게 하려고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자 했지만 매수인 측에서 나중에 득열이 배신할 것을 염려하여 선뜻 사겠다고 하지 않았다. 이에 득열은 아버지를 봉양해야 하는 자신이 기아 직전의 불쌍한 처지에 이른 것을 헤아려 ‘몸을 팔아 구할하라’는 내용으로 ㉢입지(立旨)를 작성해 달라고 읍소했다. 득열의 호소에 대해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는 구활이 음덕일 뿐 아니라 자매 또한 전례가 있으니 의심하여 염려할 일이 아니라면서, 매수인이 안심하고 득열을 살 수 있도록 관에서 보증을 서 주는 데김[題音]을 내렸다.

관에서 자매하려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 정부는 기본적으로 양인과 천인 간의 신분 이동을 규제했다. 이러한 방침하에 양인을 천인으로 만드는 것 또한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했다. 그런데 대규모 기근과 전쟁이 발생하면서 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져 정책 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굶주린 사람들과 유망민(流亡民)들을 모두 구제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더구나 조선 후기에는 이전보다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신분 이동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18~19세기에 자매가 용인되었다.

16세기 이후 조선 정부는 기근이 발생하면 재력을 지닌 사족들이 백성을 구제하도록 장려했다. 이 와중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유망민과 굶어 죽어 가는 백성이 대거 발생하자, 정부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굶주려 사망 직전에 이른 사람을 구제하여 살린 경우 그 사람을 부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시 ㉤사목(事目)을 반포하기도 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대규모 기근이 발생하면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버려진 아이들이 굶주려 죽음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거두어 살려 주면 노비나 ㉥고공(雇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생계가 어려운 백성이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용인되었다.

조선 정부가 아사지경(餓死之境)에 이른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파는 것을 제한적으로 용인하긴 했지만, 자매자는 본래 양인이었다. 뒷날 자매한 당사자의 마음이 바뀌어 억울하게 노비가 되었다고 호소한다면, 자칫 매수인은 양인을 꺾박하여 천인으로 삼았다고 의심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지 않더라도, 자매자가 다시 양인이 되고자 도망쳤을 때 그가 매수인의 도망 노비라는 사실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 둘 필요도 있었다.

이에 일부 매수인들은 자매 거래 전에 자매자로 하여금 관의 입지를 받아 오도록 했다. 입지는 ㉦입안(立案)보다 간단한 형태의 증빙 문서였다. 소지에 기재한 수령의 처분인 데김이 입지라는 명칭으로 증빙 문서의 역할을 했다. 자매자가 자매 거래 전에 입지를 받아 매수인에게 준다면, 매수인은 이 자매 거래가 굶어 죽어 가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행해진 일임을 인정한 관의 증빙 문서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었다. 매수인은 이 문서를 확보함으로써 뒷날 분쟁을 예방하고, 만약 소송이 일어나더라도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득열의 소지에서 매수인이 그의 배신을 의심했다는 것은, 바로 매수인이 자매자로 하여금 관에서 증빙 문서를 받아 오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매수인이 관의 입지를 받아 오도록 요구하는 경우 자매하려는 사람은 소지를 올려 관으로부터 자매에 대한 긍정적인 데김을 받아야 했다. 입지를 받은 다음 날 득열의 자매 거래가 이루어졌다. 득열은 전문(錢文) 13냥을 받고 ㉧조광득에게 자신을 팔았다. 득열은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미래 후손인 후소생까지 포함하여 매매했다. 이 거래로 득열은 조광득의 노비가 되었다.

2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득열은 자신을 팔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를 관청에 요청하였다.
- ② 득열은 나중에 자기가 낳을 자식들을 자매 거래에 포함시켰다.
- ③ 조선 정부는 생계유지와 생존을 위한 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 ④ 자매는 주로 양인의 신분에서 있던 사람이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 ⑤ 관청의 증명서는 나중에 분란이 생길 경우 자매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23. 위 글의 주된 설명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구조를 분석하여 설명하였다.
- ② 대상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 ③ 비교와 대조를 통해 대상을 설명하였다.
- ④ 대상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 ⑤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대상을 설명하였다.

24. ㉠, ㉡, ㉢의 관계로 적절한 것은?

- |          |     |     |
|----------|-----|-----|
| ㉠        | ㉡   | ㉢   |
| ① 매도인/매물 | 매수인 | 보증인 |
| ② 매수인/매물 | 보증인 | 매도인 |
| ③ 매도인/매물 | 보증인 | 매수인 |
| ④ 매수인/매물 | 매도인 | 보증인 |
| ⑤ 보증인/매물 | 매도인 | 매수인 |

25. ㉠~㉣에 대한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3점]

- ① ㉠; 예전에, 청원이 있을 때에 관아에 내던 서면(書面)
- ② ㉡; 관부에서 판결문을 쓰고 관인을 찍어 개인이 청원한 사실을 공증해 주던 문서
- ③ ㉢; 공사(公事)에 관하여 정한 규칙
- ④ ㉣; 지난날, 관가에서 부리던 노비
- ⑤ ㉣; 조선 시대에, 관아에서 어떠한 사실을 인정한 서면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압천(鴨川) 십리(十里)수벌에  
 해는 저물어……저물어……

날이 날마다 님 보내기  
 목이 자졌다……여울 물소리……

찬 모래알 쥐어짜는 찬 사람의 마음,  
 쥐어짜라. 바수어라. 시원치도 않아라.

여뀌풀 옥어진 보금자리  
 뜰부기 홀어멈 울음 울고,

제비 한 쌍 떠스다,  
 비맞이 춤을 추어.

수박 냄새 품어오는 저녁 물바람.  
 오렌지 껍질 씹는 젊은 ㉠나그네의 시름.

압천(鴨川) 십리(十里)수벌에  
 해가 저물어……저물어……

-정지용, 「압천(鴨川)」

(나)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한구죽죽한 어촌보다 어실프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布帆)처럼 달아 매였다.

남들은 기뻐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정크와 같아  
 소금에 절고 조수(潮水)에 부풀어 올랐다.

항상 흐렸한 밤 ㉢압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고  
 전설에 읽어본 ㉣산호도(珊瑚島)는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취주지도 않았다.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오르면  
 시궁치는 열대식물처럼 발목을 에워쌌다.

새벽 밑물에 밀려온 거미인 양  
 다 삭어빠진 ㉤소라 깎질에 ㉥나는 붙어왔다.  
 먼— 항구의 노정에 홀려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이육사, 「노정기(路程記)」

(다)

해심(海心)에 감박이는 등불로 말미암아  
 밤바다는 무한히 감감하다.

물결은  
 발 아래 바위에 부딪쳐서 출렁이고  
 자유(自由)는  
 영원(永遠)한 우수(憂愁)를 또한 이 국토(國土)에 더하노라.

㉦어둠을 스쳐 멀리서 갈매기 우는 소리  
 깃가에 와서 가슴의 상처(傷處)를 허비고 사라지나니

아, 밤바다에 외치고 가는 시(詩)의 새여  
 그대의 길도 어둠에 차서 향방(向方) 없거늘  
 비애(悲哀)의 ㉧시인(詩人) 고뇌(苦惱)를 안고  
 또한 그대로 더불어 밤의 대양(大洋)으로 가라.  
 -김광섭, 「우수(憂愁)」

26.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에 대비된 인간의 고달픈 삶을 그리고 있다.
- ② 삶의 목표를 이루려는 헌신적인 노력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젊은 날의 아픈 기억을 통해 회한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격동하는 물의 이미지를 통해 고난의 역사를 암시하고 있다.
- ⑤ 고뇌를 품고 안주하지 못하는 처지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27.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 ㉢, ㉣는 모두 각 작품의 화자가 시적 대상으로 삼은 존재이다.
- ② ㉠, ㉢, ㉣는 모두 각 작품에 표현된 정서의 부산물이다.
- ③ ㉠, ㉣는 ㉢가 각 작품에서 형상적으로 그려진 존재이다.
- ④ ㉠는 ㉢와 같등하고 ㉣와 조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⑤ ㉣는 ㉠, ㉢가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형이다.

28.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내면을 표현함으로써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② 몇몇 행을 명사로 끝냄으로써 사물들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 ③ 주변 풍경이 내면의 상태와 조응하도록 그리고 있다.
- ④ 작품의 구조상 수미상관의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
- ⑤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29. (나)의 ㉠~㉥ 중 (다)의 ㉢의 이미지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30.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물에 담긴 뜻을 찾아 내면의 고통을 해소하고 있다.
- ② 역설적 의미를 통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사물의 움직임에서 어떤 관념을 떠올리고 있다.
- ④ 사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 ⑤ 의문형으로 마무리된 것에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투옥의 경험으로 인해 더 나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중범죄자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면 더 많은 재활 기회를 갖으리라 보고 그들을 재활 시설에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재활 시설이 만원이 되고 감옥에 수감자들이 가득 차면서 재활 시설은 감옥 체계의 또 다른 일부가 되었다. 이에 사람들을 구류가 아닌 좀 더 자비로운 감도를 받게 할 통로를 마련하려는 개혁적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첫 번째가 ㉠보호관찰이다. 죄수가 선량하게 행동한다는 조건하에 법원이 임명한 사람의 지도와 감도를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허락받는다. 선량한 행동의 내용으로 부과하는 조건은 금주, 중죄인과의 접촉 금지, 직업 보유, 보호관찰사와의 약속 이행,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서약 등이다. 그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보호관찰은 취소되고 죄수는 다시 교도소나 유치장에 수감된다.

두 번째는 ㉡가석방이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는 가석방 위원회는 형기 만료 이전의 수감자를 석방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가석방의 조건들은

보호관찰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다. 이 역시 죄수가 조건을 어기면 가석방은 취소되고 잔여 형기를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세 번째는 ㉢청소년 법정이다. 너무 어려서 성인과 같이 취급할 수 없는 피고들을 청소년 심판관이나 판사가 심문하는 것으로 재판을 대신했다. 피고가 공적으로 처벌받을 만한지를 결정하지 않는 대신 어떤 처리가 그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법원은 아이의 호의적인 보호자여야 한다는 ㉠'부모로서의 국가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범죄 행위뿐 아니라 무단결석, 가출, 버릇없는 행위, 부모의 태만 등 지위 위반에 해당하는 것들도 고려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범죄자를 무조건 감옥에 가두는 것에서 '전환'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처음에는 이것들이 잘 실시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에는 범죄자를 관대히 다루는 것보다 구석의 처벌과 같은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믿음이 퍼졌다. 이에 전환 프로그램이 오히려 형사 사법에 의해 구류에 처해지는 사람의 수를 크게 증가시켰다. 오늘날 감옥은 전보다 더 커졌으며 더욱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약 10만 명의 청소년이 구금되어 있고 수십만의 범죄자가 가석방 상태이며 250만 정도가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70만 명 이상이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고 30만 명 이상이 유치장에 수감되는 것과 비교할 때 이는 전환 프로그램이 역기능을 한 결과이다.

1960년대에는 ㉣지역사회 교정이 적극적으로 권장되었다. 죄인을 수감하는 대신, 지역사회 교정에 처하는 것이 비용도 적고 쉽게 교정하는 방법이라고 여겨졌다. 실제로 1960년과 1975년 사이에 구금자의 수는 감소했다. 그러나 70년대 중반에는 반등 현상이 나타났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가석방 위원회가 죄수들의 수감 기간 연장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청소년 치료 프로젝트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후원자로서의 봉사 정신을 상실하고 마치 이전의 교정 기관 감독같이 되어 갔다.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이 조금씩 감소하기는커녕 점점 더 많은 교정 과정이 범죄자들에게 부과되었다. 그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더 빨리 자유로워졌을지도 몰랐는데, 이제 교도소, 유치장, 청소년 교정 시설은 다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 ㉤스웨덴의 전환 프로그램을 참조할 수 있다. 이 나라의 구금 비율은 감소했고 교도소에는 소수의 죄수들만 엄격하게 구금시키고 있다. 범죄자들은 외부에서 일하기 위해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으며 심지어 밤에도 철창에 갇히는 경우가 드물다. 수감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며 활기차고 인간적인 교도소 분위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스웨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사회적 지원에서 나온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국가의 복지 혜택은 자선이 아니라 생산적 사회 질서의 토대로 생각된다. 보통의 사람보다 사회적 자원을 적게 갖는 범죄자가 비례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요구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스웨덴의 관행이 미국으로 직수입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가 시민의 복지를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은 스웨덴이나 미국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전환 프로그램이 고립된 상태에서 실현될 수 없으니 법보다 다양성의 보장이 사람들의 행동을 더 좋은 쪽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범죄자에 대한 전환 프로그램은 새로운 정치적 변화의 일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31.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혁적 제도의 도입 과정
- ② 미국 법체계의 허점
- ③ 전환 프로그램의 전개와 문제점 극복 방안
- ④ 청소년 교정 프로젝트의 실패 요인
- ⑤ 범죄자에 대한 형사 사법의 과잉 대응

**3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은 수감 위주에서 교정 위주로의 전환을 시도한 제도들이다.
- ② ㉠, ㉡, ㉢은 지역사회가, ㉣, ㉣은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③ ㉠, ㉡과 ㉢은 대상 범죄자의 연령상 차이가 난다.
- ④ ㉣은 ㉠, ㉡, ㉢이 지닌 전환적 의의를 계승한 제도이다.
- ⑤ ㉣은 ㉣이 드러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참조한 모델이다.

**33. ㉣의 적용 사례인 <보기>를 통해 ㉣을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_\_\_\_\_ <보기> \_\_\_\_\_

1967년 콜트라는 15세 된 아이는 이웃 여성에게 음란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아리조나 주 법정으로부터 산업훈련학교에서 6년간 훈련받는 형을 받았다. 이 형량은 주심 소년 법원판사에 의해 임의로 부과되었는데,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성인의 경우는 50달러의 벌금이나 지역 유치장에 3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해질 사건이었다.

- ① 피고가 성인이 아닌 아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군.
- ② 부모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여 나온 판결이군.
- ③ 아이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내린 판결이 너무 지나쳤군.
- ④ 국가의 역할을 부모와 동일시하여 관대한 처벌을 하였군.
- ⑤ 국가의 정책 방향을 충실히 따라서 내린 정치적 판결이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호랑이가 꾸짖기를,  
 “가까이 오지 마라! 구린내 난다! 내 들으니, 유(儒)란 족속은 유(兪)하다더니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는 세상의 나쁜 이름은 모두 모아 망령되이 내게 씌웠다. 이제 다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밟겠느냐. 무릇 천하의 이치는 하나뿐이니 호랑이의 성품이 악하다면 인간

의 성품 역시 악한 것이고, 인간의 성품이 착하다면 호랑이의 성품 또한 착한 것이다.

㉠우리 호랑이들은 초목을 먹지 않고, 벌레와 물고기도 먹지 않고, 누룩으로 빚은 술과 같이 퇴폐스럽고 어지러운 것들도 즐기지 않고, 자잘한 것들을 엮으려 먹는 것도 참지 못하지. 오직 산에 들어가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고 들에 나가 말이며 소를 잡아먹을 뿐이고, 일찍이 입이나 배에 누를 입히거나 음식 때문에 송사(訟事)를 한 적이 없으니, 호랑이의 도(道)야말로 광명정대(光明正大)하지 않느냐! 헌데 호랑이가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으면 너희들은 호랑이를 미워하지 않다가도 말이나 소를 잡아먹으면 원수처럼 대하니, 이것은 노루나 사슴은 인간에게 은혜가 없지만 말이나 소는 너희들에게 공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도 그 태워 주고 복종하는 노력과 충성하고 따르는 정성을 저버리고, 매일 도살하여 푸줏간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뿔이나 갈기마저도 남기지 않더구나. 그러고도 다시 우리 먹이인 노루와 사슴까지 침범해서 우리들을 산에서 먹을 것이 없게 하고 들에서도 굶주리게 하니, 하늘로 하여금 그 정사(政事)를 공평하게 한다면 너를 먹어야 하겠느냐, 풀어 주어야 하겠느냐?

무릇 제 소유가 아닌 것을 취하는 것을 ‘도(盜)’라 하고 생명을 잔인하게 해치는 것을 ‘적(賊)’이라 한다. 너희들은 밤낮으로 허둥지둥 쏘다니며,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뜬 채 노략질하고 훔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돈을 형(兄)이라 부르기도 하고 장수(將帥)가 되기 위해 자신의 처를 죽이기도 하니, 이려고도 또다시 인류의 도리를 논함은 말도 안 된다. 또한 메뚜기로부터 그 밥을 빼앗고, 누에로부터 그 옷을 빼앗고, 벌을 가두어 그 꿀을 긁어내고 심지어는 개미 알로 젓갈을 담가서 제 조상에 제사지낸다고 하니, 그 잔인하고 박정함이 너희보다 더한 것이 있겠느냐? 너희는 이(理)를 말하고 성(性)을 논한다. 특하면 하늘을 일컫지만 하늘이 명한 바로써 본다면, 호랑이나 사람이 다 한 가지 동물이다.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아 기르는 인(仁)으로 논하자면, 호랑이, 메뚜기, 누에, 벌, 개미들도 사람과 더불어 함께 길러지는 것으로 서로 거스를 수 없는 것들이다. 또한 그 선악으로 따지자면, 공공연히 벌과 개미의 집을 범하고 그 꿀과 알들을 긁어 가는 족속이야말로 어찌 천지간의 큰 도(盜)라고 하지 않겠느냐. 또한 메뚜기와 누에의 살림을 빼앗고 훔쳐 가는 족속이야말로 어찌 인의(仁義)의 큰 적(賊)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호랑이는 일찍이 표범을 잡아먹은 적이 없다. 이는 제 동포를 해치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리고 호랑이가 노루와 사슴을 잡아먹은 것을 해아려도, 사람이 노루와 사슴을 잡아먹은 것만큼 많지는 않다. 또한 호랑이가 말과 소를 잡아먹은 것을 해아려도, 사람이 말과 소를 잡아먹은 것만큼 많지 않을 것이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은 것이, 사람이 서로 간에 잡아먹은 것만큼 많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관중(關中) 지방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백성들 사이에 서로를 잡아먹은 것이 수만이요, 그에 앞서

산둥(山東) 지방에 큰 홍수가 났을 때에도 백성끼리 서로 먹은 것이 수만이었다. 하지만 백성끼리 서로 잡아먹는 일이 많기로서니 어찌 춘추시대만 할까. 춘추시대에는 덕(德)을 세우겠다며 군사를 일으킨 것이 열일곱 차례나 되었으니, 피는 천 리를 흐르고 었어진 시체는 백만에 달했다.

그러나 ㉠호랑이의 족속들은 홍수와 가뭄을 알지 못하니 하늘을 원망할 까닭이 없고, 원한과 은혜를 모두 잊고 지내니 다른 동물에게 미움을 받을 까닭이 없고, ㉡오직 천명(天命)을 알고 거기에 순종할 뿐이다. 그러므로 무당이나 의원의 간교함에 유혹되지 않는다. 또한 타고난 바탕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까닭으로 세속의 이해(利害)에도 병들지 않는다. 이것이 곧 호랑이의 슬기롭고도 성스러운 점이다.

-박지원, 「호질」

34. 위 글에서 호랑이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과 자신을 비교하여 상대방의 잘못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대상에 대하여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설득하고 있다.
- ③ 대상이 자신보다 우위에 있음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논증하고 있다.
- ④ 자신의 입장과 대상의 주장을 통합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대상의 속성을 구분과 분류의 방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35. 위 글과 <보기>의 내용을 대비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우리는 설사 포악한 일을 할지라도 깊은 산과 깊은 골과 깊은 수풀 속에서만 횡행할 뿐이요, 사람처럼 청천백일지하에 왕궁 국도에서는 하지 아니한다. 또한 옛적 사람은 호랑의 가죽을 쓰고 도적질하였으나, 지금 사람들은 껍질은 사람의 껍질을 쓰고 마음은 호랑이의 마음을 가져서 더욱 험악하고 더욱 흉포한지라. 하느님은 지공무사(至公無私)하신 하느님이시니, 이같이 험악하고 흉포한 것들에게 제일 귀하고 신령하다는 권리를 줄 까닭이 무엇이요? 사람으로 못된 일 하는 자의 종자를 없애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하나이다.

-안국선, 「금수회의록」

- ① 위 글과 달리 <보기>는 호랑이의 흉포한 측면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② 위 글과 달리 <보기>는 상대적으로 인간에 대한 공격성이 약화되어 있다.
- ③ 위 글과 <보기>는 모두 하느님을 청자로 하고 있다.
- ④ 위 글은 <보기>와 달리 호랑이와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지녔다고 본다.
- ⑤ 위 글과 <보기>는 모두 인간의 잘못을 창조주의 과오라고 주장한다.

36.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관점에서 호랑이를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답지 아니하다 하면 두려워할 것이며, 사람답지 아니한 사람이 나를 사람답다 해도 두려워할 것이다. 기뻐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마땅히 나를 사람답다 하거나 나를 사람답지 아니하다는 사람의 사람다움과 사람답지 아니함이 어떤지를 살필 뿐이다. 그러므로 오직 인자(仁者)라야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나니, 나를 사람답다는 사람이 인자이겠는가, 나를 사람답지 아니하다는 사람이 인자이겠는가.” 하였다.

-이달충, 「애오잠」

- ① 된장에 풋고추 박힌 듯해.
- ② 우물가에서 송충 찾는 격이군.
- ③ 오십 보 백 보이군.
- ④ 호랑이가 고슴도치를 놓고 하품하는 격이군.
- ⑤ 벼 심은 데 벼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고들 하지.

37. ㉠을 근거로 할 때, ㉡~㉣ 중 논점에서 벗어난 것은? [3점]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의 말투는 점점 서로를 존중해 가고 있었다. “나는……” 하고 우리는 동시에 말을 시작하기도 했다. 그럴 때는 번갈아서 서로 양보했다.

“나는…….” 이번에는 그가 말할 차례였다. ㉠“서대문 근처에서 서울역 쪽으로 가는 전차의 도로리(트롤리)가 내 시야 속에서 꼭 다섯 번 파란 불꽃을 튀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오늘 밤 일곱 시 이십오 분에 거길 지나가는 전차였습니다.”

“안형은 오늘 저녁엔 서대문 근처에서 살고 있었군요.”

“예, 서대문 근처에서 살고 있었어요.”

“난, 종로 2가 쪽입니다. 영보빌딩 안에 있는 변소문의 손잡이 조금 밑에는 약 2센티미터 가량의 손톱자국이 있습니다.”

하하하하 하고 그는 소리 내어 웃었다.

㉡“그건 김형이 만들어 놓은 자국이겠지요?”

나는 무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건 사실이였다.

“어떻게 아세요?” 하고 나는 그에게 물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별로 기분 좋은 기억이 못 되더군요. 역시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 발견하고 비밀히 간직해 두는 편이 좋겠어요. 그런 짓을 하고 나서는 뒷맛이 좋지 않더군요.”

㉢“난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히려 기분이 좋



41. ㉔를 참고로 ㉓에 담겨 있는 인물의 심리상태를 파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나’는 ‘안’의 주장에 반론을 하려다가 반론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잠시 입을 다물었다.
- ② ‘나’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행한 행동들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 ③ ‘나’는 ‘안’의 주장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들킬까 봐 순간적으로 두려웠다.
- ④ ‘나’는 순간적으로 ‘안’의 의견에 동조하는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 ⑤ ‘나’는 ‘안’과 논쟁을 벌이기보다 이와 관련한 ‘안’의 생각을 더 알고 싶어졌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의 내용을 감상하고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주체라는 말에는 언제나 객체 혹은 대상이라는 짝이 따라다닌다. 왜냐하면 내가 사고하는 주체라면, 이 주체가 사고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먹는 내(주체)가 있다면 먹히는 음식(객체, 대상)이 있어야 하듯이. 주체가 어떤 대상에 관하여 사고한 결과가 진리인가의 여부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곧 사고하는 주체가 출발점이라면 진리는 궁극적 도달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① ‘나’는 ‘안’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고하는 주체로서 자신을 인정하게 되었어.
- ② ‘안’은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대상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어.
- ③ ‘안’은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주체와 대상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
- ④ ‘안’은 ‘나’와의 대화 속에서 사고하는 주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해.
- ⑤ ‘나’는 ‘안’과의 대화 속에서 사고하는 주체로서 대상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으려 해.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은 나를 수령이라 부르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투사는 아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지극히 경건한 어른이었고, 헤리콘 산기슭 포도덩굴과 올리브 수풀 속에서 사시고, ㉑내 어릴 적 생활은 늘 놀러 다니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날마다 포도나무나 베고 양도 지키고, 오정(午正)이 되면 양떼를 나무 그늘 한곳에 모아 두고 양치는 피리를 구슬프게 불며 지냈습니다. 그때 나의 동무들은 다 같은 농사꾼 아들이라 그들과 언제나 한 목장에서 양을 지키고 변변치 않은 점심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때였습니다. 양을 외양간에 몰아넣고 집 옆 고목 아래 앉으려니 할아버지께서 오셔서 옛날 전쟁 이야

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소세(小勢)의 스파르타 군사가 어마어마한 적의 대군을 산길에서 무찌르던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그때 전쟁이 무엇인지 몰랐으나 웬일인지 내 뺨에 더운 피가 피고, 꿈꾸듯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오셔서 내게 키스를 하시고, ㉒“무서운 전쟁은 생각도 말거라. 일찍 자야지.” 하시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공교롭게 그날 밤이었습니다. 때 아닌 말발굽 소리가 이 산골의 평화를 여지없이 깨뜨렸습니다. 나를 길러 주신 어머니의 가슴이 잔인무도한 로마 병사의 말굽에 걸어차이고, 또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의 시신(屍身)이 내 앞에 구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나는 검투로 나의 적수를 죽였습니다. 죽인 후 내가 그의 투구 끈을 끄르고 얼굴을 보았을 때 그는 나의 어렸을 때 벗이었습니다. 그도 나를 아는지 방긋이 미소를 머금고 길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웃는 얼굴은 우리가 어릴 적에 들어서 높은 낭떠러지를 타고 올라가 포도를 따 가지고 올 적에 웃던 바로 그 얼굴 같았습니다. ㉓나는 입회관(立會官)에게 그 벗의 시체를 거두어 장례를 치르겠노라고 하였습니다. 모래와 피로 범벅이 된 검투장(劍鬪場)에 꿇어앉아 간곡히 청하기도 했으나, 구경꾼들은 나를 비웃고 야유를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입회관은 매정하게 “뭐? 장례? 로마 사람 외에도 사람이 있단 말인가?”라고 하였습니다. 불행한 벗! 그의 혼령은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다가 멀리 선조의 영이 쉬시는 에리시아의 정토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㉔이번에는 제가 개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㉕오, 로마여! 로마여! 나를 길러 준 은인 로마여!

피리소리밖에 모르고 자라난 양치기 아이에게 무쇠 골격과 돌 심장을 준 자는 바로 로마입니다. 투우장에서 악마같이 적과 결투를 하며 사나운 누미디아 사자에게 거침없이 덤벼들도록 가르친 자는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여!

이 스파르타쿠스는 누런 티베 강물이 핏줄이 되어 그 속깊이 그대의 핏덩이가 영킬 때까지 그대에게 보복하지 않고는 참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짐승이거든 머물러 살이 썩 통통한 황소처럼 백정의 칼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만일 사람이거든 나를 따라 일어나 여러분의 조상이 험준한 산악에서 적을 막던 것같이 산길로 들어서서 원수와 싸우시오.

스파르타는 죽었는가?

여러분의 핏줄을 흐르는 그리스인의 피는 마르고 말았는가? 아, 동포여!

만일 싸우려거든 자기를 위해서 싸우라. 만일 살육하려거든 우리의 압제자를 살육하라. ㉖만일 죽으려거든 영예로운 싸움에 죽음을 바치라.

43. 위 글에 대한 감상과 이해의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청중에게 단정적 진술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어.
- ② 화자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해.
- ③ 화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비판함으로써 청중들을 설득하려 해.
- ④ 화자는 청중과 관련 없는 역사적 사건을 제시하여 주장하는 바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어.
- ⑤ 화자는 극단적인 두 상황을 제시하여 그중 하나를 청중들이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 ④ 한 줄의 시는 커녕/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그는 한 평생을 행복하게 살며/많은 돈을 벌었고/높은 자리에 올라/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 ⑤ 향료(香料)를 뿌린 듯 곱다란 노을 위에/전신주 하나하나 기울어지고/머언 고가선(高架線) 위에 밤이 켜진다.

44.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참고로 ㉠~㉥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대다수 인민은 피땀을 흘리며 토지를 갈아, 그 종년(終年) 소득으로 일신과 처자의 호구거리도 남기지 못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일본 강도에게 진공(進供)하여 그 살을 찌워 주는 영세(永世)의 우마(牛馬)가 될 뿐이요, 환해(環海) 삼천리가 일개 대감옥이 되어, 우리 민족은 아주 인류의 자각과 자동적 본능까지 잃어 노예부터 기계가 되어 강도 수준의 사용품이 되고 말 뿐이며, 강도 일본이 참혹한 수단을 써서 공포와 전율로 우리 민족을 압박하여 인간의 '산송장'을 만들려 하는도다. 이상의 사실에 거(據)하여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가 조선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 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殺伐)로써 징치(懲治)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 ① ㉠은 현재의 삶과 대비된 것으로 현재의 삶을 자각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봐.
- ② ㉡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은 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고 생각해.
- ③ ㉢은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켜주고자 하는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 ④ ㉣은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자신의 운명을 자각하게 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지.
- ⑤ ㉤은 현재의 삶을 극복해야 한다는 자각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어.

45. ㉡의 표현 방식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피아노에 앉은/여자의 두 손에서는/끊임없이/열 마리씩/스무 마리씩/신선한 물고기가/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쏟아진다.
- ②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 ③ 아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확인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2017학년도 경찰대학 1차시험 (국 어)

※ 총 12쪽 45문항(2점 35문항, 3점 10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 1. 다음 중 어법에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① 우리 선수가 드디어 종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 ② 나는 너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친구가 되고 싶다.
- ③ 이번 사건으로 우리는 큰 정신적 충격과 물질적 피해를 보았다.
- ④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다가올 미래의 위험을 미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 ⑤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반드시 의논을 하는 것이 좋다.

## 2.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다리를 ㉠다쳐서 걷지도 못하고 ㉡기어 다니던 강아지가 주인의 보살핌을 받은 후 통통하게 살이 ㉢찌 꽤 보기 좋은 모습이 되었다. 다친 발이 아직은 완전히 회복이 안 ㉣되어 밖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머지않아 산책을 나가 바람을 ㉤쐐어도 될 것 같다.

- ① ㉠ : 용언의 활용형에 ‘쳐’가 나타나므로 [다쳐서]로 발음한다.
- ② ㉡ : [기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③ ㉢ : ‘찌어’가 한 음절로 축약되어 ‘찌’가 되었기 때문에 [찌:]와 같이 긴소리로 발음한다.
- ④ ㉣ : 한 음절로 축약되면 ‘돼’로 쓰고 [돼:]와 같이 긴소리로 발음한다.
- ⑤ ㉤ : 두 음절로 축약되면 ‘쐐도’로 쓰고 [쐐:도]와 같이 긴 소리로 발음한다.

## 3. <보기>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부엌, 밖’은 각각 [부억], [밖]으로 발음된다.  
ㄴ. ‘낮, 낫, 낫, 낯’은 모두 [낫]으로 발음된다.  
ㄷ. ‘먹는, 입는, 듣는’은 각각 [멍는], [임는], [튼는]으로 발음된다.  
ㄹ. ‘신라, 설날’은 각각 [실라], [설랄]로 발음된다.  
ㅁ. ‘뿔, 값’은 각각 [뿨], [갑]으로 발음된다.

- ① ㄱ, ㄴ, ㅁ은 음절의 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 ② ㄴ은 원래의 자음과 같은 조음 위치의 예삿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 ③ ㄷ은 조음 방법이 바뀌되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는 현상이다.
- ④ ㄷ, ㄹ은 인접한 소리에 의해 닳아 가는 현상이다.
- ⑤ ㅁ은 음절의 끝에서는 하나의 자음만 발음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 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오늘은 웬지 풍경화가 ㉠생각만큼 잘 안 그려진다. 멋지게 그리고 싶어도 풍경화를 ㉡그리는데 꼭 필요한 구도가 안 떠오른다. 눈에 ㉢보이는대로 그린다고 멋진 풍경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그릴수록 어려운 것이 풍경화라고 하셨나 보다. 그래도 멋지게 그려 내고 싶은 나의 마음을 ㉤모르시는지 선생님께서는 빨리 내라고 재촉하신다.

- ① ㉠ : ‘생각한 만큼’이 줄어든 것이므로 ‘생각 만큼’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 ② ㉡ : ‘데’가 관형어 ‘그리는’의 수식을 받으므로 ‘그리는 데’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 ③ ㉢ : ‘대로’가 조사이므로 현재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 ④ ㉣ : ‘수록’이 의존 명사이므로 ‘그릴 수록’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 ⑤ ㉤ : ‘지’가 의존 명사이므로 ‘모르시는 지’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 5. <보기>의 맞춤법 규정과 그 용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한글 맞춤법 규정】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ㄱ. 값지다, 녀두리
- ㄴ. 넓적하다
- ㄷ. 옆대이, 잎사귀, 덮개
- ㄹ. 굵다랗다

다만,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 a. 널따랗다, 널찍하다
- b. 알따랗다, 짤따랗다

- ① ㄱ, ㄴ, ㄹ은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나타나는 음운의 변동과 관련이 있다.
- ② ㄴ, ㄹ과 a, b에서 어간의 겹받침은 모두 발음되기도 하고 일부만 발음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 ③ ㄴ과 a에서 겹받침의 발음에 따라 어간의 표기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 ④ ㄷ에서 음절의 끝소리규칙이 적용되더라도 원형을 밝히어 적음을 알 수 있다.
- ⑤ ㄹ과 b에서 어간의 표기에 따라 접미사의 표기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6.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걸어 올린 외투 깃 속에 방한모 쓴 대가리를 푹 과문고 좌우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양이 푸근한 눈치다.  
 “㉠여보게, 그 외투 벗어서 ㉡이 양반 ㉢드리게.”  
 “㉣왜요?” 하고 ㉤아범은 놀란다.  
 “왜든 벗어 ㉥드려! 이 어른 거야.” 하고 ㉦사랑사람은 두 사람을 다 조롱하듯이 웃는다.  
 “아니, ㉧영감께서 저더러 입으라고 ㉨내주셨는뎡쇼?”  
 그래도 아범은 벗기가 아까운 모양이다.  
 “아따, 잔소리 픽두 하네. 자네 팔자에 외투가 당한가! 하루쯤 입어 봤으면 그만이지.” 하고 꺾꺾 웃는다.  
 - 염상섭, 「삼대」

- ① ㉠의 호칭과 ㉢의 어미는 경어법상 잘 어울린다.
- ② ㉢으로 보아 ㉣은 ㉡와 ㉤를 동등한 정도로 높이고 있다.
- ③ ㉢과 ㉣을 비교해 볼 때 ㉤에 대해 쓴 ㉣의 경어법에 변화가 나타난다.
- ④ ㉥의 ‘-께서’와 ㉨의 ‘-시-’는 경어법상 잘 어울린다.
- ⑤ ㉣과 ㉨을 비교해 볼 때 ㉣에 대해 쓴 ㉤의 경어법에 변화가 나타난다.

7. <보기>의 ‘다의어’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보기>

날말의 형태가 같더라도 그 의미에 따라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하나의 낱말이 여러 의미를 가진 경우로 의미 간의 연관성이 있는 데 반해, 후자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낱말이 우연히 소리만 같은 경우로 의미 간의 연관성이 없다.

- ① 버스에 타는 시간이 길어 늘 피곤하다.  
 마스크를 자주 타는 집이 꼭 맛있는 집은 아니다.
- ② 명인이 가야금을 직접 타니 멋진 소리가 난다.  
 왼쪽으로 가르마를 타니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 ③ 흥부가 이 박을 타고 나면 부자가 될 것이다.  
 그는 무슨 복을 타고 났는지 사업마다 실패를 모른다.
- ④ 소년상의 코는 손을 많이 타서 반들반들해졌다.  
 이 친은 먼지가 쉽게 타서 옷감으로는 부적합하다.
- ⑤ 콩을 맷돌에 타서 만든 콩국수라서 맛이 일품이다.  
 소화가 안 될 때 매실 진액을 물에 타서 마시면 좋다.

8. <보기>에 쓰인 ‘-겠-’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보기>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내 힘으로 반드시 이겨 내겠다.

- ① 동생은 혼자 정상에 오르겠다고 떼를 쓴다.
- ② 오래 살다 보니 별 이상한 일을 다 보겠다.
- ③ 밤이 늦었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 ④ 이 정도 문제는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풀겠다.
- ⑤ 지금쯤 내가 살던 고향에서는 벌써 추수를 끝냈다.

9.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옥련의 얼굴은 옥을 깎아서 ㉠연지분으로 단장한 것 같다. ㉡옥련의 부모가 옥련의 이름을 지을 때에 옥련의 ㉢모양과 ㉣같이 ㉤아름다운 이름을 짓고자 하여 ㉥내외 공론이 무수하였더라.  
 - 이인직, 「혈의 누」

- ① ㉠은 용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 ② ㉢, ㉣은 모두 체언에 조사가 결합된 것이다.
- ③ ㉢, ㉣은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 ④ ㉣은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된 것이다.
- ⑤ ㉥은 생략된 조사에 따라 관형어도 될 수 있고 부사어도 될 수 있다.

10. 다음 글을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80년 프랑스 신부들이 펴낸 <한불자전>을 보면 한글이 얼마나 훌륭한 글자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불자전>은 한글 표제어 다음에 알파벳 발음이다. 사진 편찬자들은 조선어를 배우려는 프랑스인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이 사전의 표제어를 프랑스어 알파벳이 아니라 생소한 한글로 적은 데 불만을 품은 사용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한글 자모는 워낙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글자라서 유럽인 입장에서도 ㉡같은 소리글자인 히브리어, 그리스어, 아랍어, 러시아어보다 훨씬 쉽게 익힐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일본에서는 ‘가나’가 철저하게 한자의 보조적 지위에 있지만 조선에서는 한자가 우대받기는 하지만 민간에서는 한자보다 한글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한다. 한글만 익히면 책을 술술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글이 다양한 음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소리글자여서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다는 사실을 프랑스 신부들도 일찌감치 알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조선에서 기독교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무서운 속도로 퍼진 것은 한글 덕분이라는 설이 있다.

- ① ㉠은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므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되도록 고쳐 써야 한다.
- ② ㉡에서 ‘글자’와 ‘히브리어, 그리스어……’가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문자의 이름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
- ③ ㉢은 한 문장 안에 ‘-지만’이 두 번 쓰여 어색하므로 ‘하지만’을 ‘해도’로 고쳐 써야 한다.
- ④ ㉣은 맥락에 맞게 ‘반증’으로 대체해야 한다.
- ⑤ ㉤은 단락의 주제와 관련이 적어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 한다.

11. 문장의 중의성이 상황에 맞게 해소되지 않은 것은? [3점]

수정 전	나는 울며 떠나는 그녀에게 인사했다.
① 상황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슬프다.
수정 후	나는 떠나는 그녀에게 울며 인사했다.
수정 전	네가 나보다 그녀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 싫다.
② 상황	나는 그 누구보다도 그녀를 좋아한다고 믿는다.
수정 후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 것보다 네가 그녀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 싫다.
수정 전	신병들은 지금 새로 받은 군복을 입고 있다.
③ 상황	신병들은 빨리 새 군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수정 후	신병들은 지금 새로 받은 군복을 입는 중이다.
수정 전	새로운 친구의 집은 우리 집에서 매우 가깝다.
④ 상황	친구가 새 집으로 이사했다.
수정 후	친구의 새로운 집은 우리 집에서 매우 가깝다.
수정 전	선생님은 모든 학생과 인사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
⑤ 상황	선생님이 작별 인사를 하는 날 못 온 학생이 있다.
수정 후	선생님은 학생과 모두 인사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

12. <보기>는 '세대 간 갈등의 해결 방안'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와 각 부분의 소재목이다.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I. 서론  
- 세대 간 갈등의 사례
- II. 세대 간 갈등의 실태  
- 신세대의 불만 : 나는 늙어도 저러지 않을 거야  
- 구세대의 불만 : ㉠ \_\_\_\_\_  
- ㉡ \_\_\_\_\_ :
- III. 세대 간 갈등의 원인  
- 이해의 부족 : 눈 못 뜬 올챙이  
- ㉢연결 고리의 부재 : 게으른 통신 비둘기  
- ㉣배려의 부족 : 과거를 잊은 개구리
- IV. 세대 간 갈등의 해결책  
- 신세대의 태도 : 우러러보기  
- 구세대의 태도 : 눈높이 맞추기  
- 중간세대의 역할 : ㉤ \_\_\_\_\_
- V. 결론 : 세대에 따른 올바른 태도와 역할의 강조

- ① I 이 서론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문제 제기 내용을 추가한다.
- ② 다른 부분의 소재목을 감안하여 ㉠에 '저 나이 때 나는 안 그랬는데'라는 소재목을 쓴다.
- ③ II가 다른 부분과 균형이 맞도록 ㉡에 '중간세대'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④ III이 다른 부분과 대응하도록 ㉢과 ㉣의 순서를 맞바꾼다.
- ⑤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감안해 ㉤에 '눈치 보기와 비위 맞추기'라는 소재목을 쓴다.

13. '올림픽 선수단을 위한 응원문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 문장을 만들어 보았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공모의 취지에 맞도록 문장을 작성할 것.
- 모두의 참여와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
- 연쇄적 표현을 사용할 것.
- 대구적 표현을 사용할 것.

- ① 선수는 열띤 경기장에서, 당신은 뜨거운 응원의장에서 함께할 때 우리는 올림픽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② 선수의 뜨거운 땀은 메달로 돌아오고, 메달로써 땀 흘린 노력이 보상 받을 때 우리의 자부심도 더 커집니다.
- ③ 뜨거운 응원이 메달의 등급을 높이고, 높아진 등급이 응원의 열기를 돌올 때 우리 모두의 올림픽이 됩니다.
- ④ 스마트폰 속의 나만의 올림픽, TV 앞의 가족만의 올림픽은 이제 그만. 만나자! 응원의 광장에서.
- ⑤ 나, 너, 우리, 나라, 세계! 모두가 참여하여 만든 올림픽의 오류는 지구촌을 하나로 만듭니다.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포유동물의 신체가 그러하듯이 포유동물의 뇌도 공통적인 보편 설계를 따른다. 인간과 유인원은 물론 포유강 전체에 걸쳐 동일한 세포 형태, 화학 물질, 세포 조직, 하부 기관, 간이역, 경로들이 많이 발견된다. 그런데 이들 간의 뚜렷하고 큰 차이는 부분들의 ㉠**팽창**이나 ㉡**축소**에서 발견된다. 영장류는 시각 영역, 시각 영역들의 상호 연결, 시각 영역과 전두엽의 운동 영역 및 결정 영역과의 접속 등의 수에 있어 다른 포유동물과 차이를 보인다.

한 동물이 특출한 재능을 갖고 있으면 뇌 전체의 구조에 반영되는데 때로는 육안으로 보일 정도다. 원숭이의 뇌에서 시각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절반 정도인데, 이는 깊이, 색, 운동 등에 민감한 습성을 반영한다. 음파탐지기에 의존하는 박쥐는 초음파 청력을 전담하는 특별한 뇌 영역을 갖고 있으며, 씨앗을 저장하는 사막생쥐는 먹이를 은닉하지 않는 가까운 친척들보다 인지적 지도가 있는 부위를 더 크게 갖고 태어난다.

인간의 뇌도 진화 이야기를 갖고 있다.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영장류의 뇌가 크게 개량되어 결국 인간의 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신체 크기를 기준으로 볼 때 일반적인 원숭이나 유인원보다 약 세 배가량 크다. 인간의 뇌는 태아의 뇌 성장이 출생 후 1년 동안 연장됨으로써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만일 그 시기에 우리의 몸이 뇌와 나란히 성장한다면 우리는 키 3미터에 몸무게 0.5톤이 될 것이다.

뇌의 주요한 부위들도 저마다 개량을 거쳤다. 후각을 담당하는 부위는 영장류 평균 크기의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시각과 운동을 위한 주요 피질 부위들도 그 정도 비율로 축소되었다. 시각 기관에서 최초의 정보 정류장인 1차 시각 피질은 뇌 전체에서 더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반면 복잡한 형식을 처리하는 이후의 영역들은 시각 정보를 언어와 개념 영역들로 돌리는 영역들처럼 크기가 확대되었다. 청각을 위한 영역들, 특히 말을 이해하는 영역들도 크기가 확대되었고, 신중한 사고와 계획 수립의 영역이 있는 전전두엽은 영장류 조상보다 두 배나 확대되었다.

영장류의 뇌 영역들이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되는 일도 발생했다.

인간과 원숭이의 뇌를 관찰해 보면 인간의 뇌에서 말에 관여하는 브로카 영역과 진화상 대응하는 상동기관이 원숭이의 뇌에도 있다. 그러나 원숭이의 이 부위는 말에는 분명히 사용되지 않으며, 심지어 날카로운 비명이나 고함, 그 밖의 부르는 소리들을 내는 데에도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원숭이와 유인원의 뇌는 좌우가 약간 비대칭인 데 반해 인간의 뇌는 특히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들에서 균형이 크게 기울어 두 반구가 형태만으로 구별이 가능해졌다.

이런 차이들도 흥미롭긴 하지만 인간의 뇌는 외관상 완벽한 축소판으로 보이는 유인원의 뇌와 뉴런들의 연결 패턴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 마이크로칩, 책, 비디오 테이프에서 서로 간의 차이가 전체적인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분들의 조합과 배열에 있는 것과 같다.

인간의 뇌에서 기능하는 미세 회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전무하다. 죽기 전에 자신의 뇌를 과학 연구에 바치겠다는 자원자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방법으로든 인간과 유인원의 성장하는 신경 회로를 보면서 그 유전 암호를 읽을 수 있다면 틀림없이 상당한 차이가 발견될 것이다.

14.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인간의 뇌는 축소하면 유인원의 뇌와 형태와 기능 면에서 유사하다.
- ② 출생 후에 인간의 뇌는 신체의 다른 부분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한다.
- ③ 포유동물 사이에 나타나는 뇌의 가장 큰 차이는 각 부위의 비율의 차이이다.
- ④ 포유동물은 신체 전반적인 특징은 물론 뇌의 구조도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
- ⑤ 인간의 뇌는 정보의 수집을 위한 부위보다 정보의 처리를 위한 부위가 더 발달하였다.

15. 밑글에 쓰인 서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정을 통해 변화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 ② 예시를 통해 핵심적 진술을 뒷받침하였다.
- ③ 대조를 통해 대상 간의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 ④ 비교를 통해 동일 부류의 공통점을 제시하였다.
- ⑤ 유추를 통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하게 하였다.

16. <보기>에서 ㉠, ㉡에 해당하는 사례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원숭이 - 시각 영역  
 ㉡. 사막생쥐 - 인지적 지도가 있는 부위  
 ㉢. 인간 - 후각 영역  
 ㉣. 인간 - 청각 영역  
 ㉤. 인간 - 전전두엽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17~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둥(山中)을 미양 보라 동해(東海)로 가자스라  
 남여완보(籃輿緩步)하야 산영누(山映樓)의 올라흐니  
 녕농(玲瓏) 벽계(碧溪)와 수성(數聲) 데도(啼鳥)는 니별(離別)을  
 원(怨)하느 듯

정기(旌旗)를 썰티니 오색(五色)이 넘노는 듯  
 고각(鼓角)을 섯부니 희운(海雲)이 다 짓는 듯  
 ㄱ 명사(鳴沙)길 니근 물이 취선(醉仙)을 빗기 시러

[A] 바다홀 것티 두고 희당화(海棠花)로 드러가니  
 ㄴ 백구(白鷗)야 느디 마라 네 버딘 줄 엇디 아논  
 금난굴(金欄窟) 도라드러 ㉠총석정(叢石亭) 올라흐니  
 백옥누(白玉樓) 남은 기둥 다만 네히 서 잇고야  
 공슈(工僮)의 성녕인가 ㉡귀부(鬼斧)로 다드든가  
 구투야 늑면(六面)은 므어슬 상(象)똥던고  
 고성(高城)을란 더만 두고 삼일포(三日浦)를 츠자가니  
 ㉢단서(丹書)는 완연(宛然)하되 스선(四仙)은 어더 가니  
 예 사흘 머른 후(後)의 어더 가 또 머믄고  
 선유담(仙遊潭) 영랑호(永郎湖) 거긔나 가 잇는가  
 청간정(淸澗亭) 만경대(萬景臺) 멧 고더 안똥던고  
 니화(梨花)는 불셔 디고 점동새 슬피 울 제  
 낙산(洛山) 동반(東畔)으로 의상대(義相臺)에 올라 안자  
 일출(日出)을 보리라 밤등만 니러흐니  
 상운(祥雲)이 집피는 동 ㉣육룡(六龍)이 바퇴는 동  
 바다히 쉼날 제는 만국(萬國)이 일위더니  
 텃둥(天中)의 티쓰니 호발(毫髮)을 헤리로다  
 아마도 널구름 근처의 머믄세라  
 ㉤시선(詩仙)은 어더 가고 헛타(咳唾)만 나맛느니  
 텃디간(天地間) 장(壯)하느 괴별 츠셔히도 흘셔이고

- 정철, 「관동별곡」

(나)

강원도는 함경도와 경상도 사이에 있다. 서북쪽으로 황해도 곡산, 토산 등 고을과 이웃하였고 서남쪽으로는 경기도, 충청도와 서로 맞닿았다. 철령(鐵嶺)에서 남쪽으로 태백산까지는 영(嶺) 등성이가 가로 뻗쳐서 하늘과 구름에 닿은 듯하며 영 동쪽에는 아홉 고을이 있다. 북쪽으로 함경도 안변과 경계가 닿은 흡곡, 통천, 고성, 간성, 양양, 옛 예맥의 도읍이었던 강릉, 삼척, 울진, 남쪽으로 경상도 영해부와 경계가 맞닿은 평해이다. 이 아홉 고을이 모두 동해 가에 있어 남북으로는 거리가 거의 천 리나 되지만 동서는 함경도와 같이 백 리도 못 된다. 서북쪽은 영 등성이에 막혔고 동남쪽은 멀리 바다와 통한다. 높고 큰 산 밀이어서 지세는 비록 비좁으나 산야(山野)가 나지막하고 평평하여 명랑 수려하다.

동해는 조수(潮水)가 없는 까닭에 물이 탁하지 않아서 벽해(碧海)라 부른다. 항구와 섬 따위가 앞을 가리는 것이 없어 큰 못가에 임한 듯 넓고 아득한 기상이 자못 굉장하다. 또 이 지역에는 이름난 호수와 기이한 바위가 많다. 높은 데 오르면 푸른 바다가 망망하고 골짜기에 들어가면 물과 돌이 아늑하여 경치가 나라 안에서 실상 제일이다. 누대(樓臺)와 정자(亭子) 등 훌륭한 경치가 많아, 흡곡 시중대, 통천 총석정, 고성 삼일포, 간성 청간정, 양양 청초호, 강릉 경포대, 삼척 죽서루, 울진 망양정을 사람들이 관동 팔경이라

부른다. 아홉 고을의 서쪽에는 금강산, 설악산, 두타산, 태백산 등 산이 있는데 산과 바다 사이에 기이하고 훌륭한 경치가 많다. 골짜기가 그윽하고 깊숙하며 물과 돌이 맑고 조출하다. 간혹 ㉠선인(仙人)의 이상한 유적이 전해 온다.

이 지방 사람은 놀이하는 것을 좋아한다. 노인들이 기악(伎樂)과 술, 고기를 싣고 호수와 산 사이에서 흥겹게 놀며 이것을 큰일로 여긴다. 그러므로 그들의 자제(子弟)도 놀이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 문학에 힘쓰는 자가 적다.

- 이중환, 「택리지」

1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관동 지방의 풍물과 관습에 대해 말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관동 지방을 여행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작가의 체험을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열거한 대상의 일부를 부각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에 비해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18. (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치를 감상하며 유유자적하게 유람하고 있다.
- ② 옛 자취를 찾아 과거의 인물을 회상하고 있다.
- ③ 일출 광경을 보며 옛 시인의 말을 떠올리고 있다.
- ④ 신선 사상을 바탕으로 인물과 사물을 그리고 있다.
- ⑤ 웅장한 자연 속에서 인간의 왜소함을 인식하고 있다.

19. (나)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해 지리적 위치, 소속 고을, 자연 경치, 민풍 순으로 서술하였다.
- ② 대상을 사회 제도, 역사, 문화적 배경과의 관련 속에서 서술하였다.
- ③ 대상에 속한 사물과 인물을 상호 대비적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 ④ 대상의 과거, 현재, 미래의 변화상을 순차적으로 서술하였다.
- ⑤ 대상의 주요한 속성을 분류와 구분의 방법으로 서술하였다.

20. [A]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환해(宦海)\*에 놀란 물썰 임천(林泉)에 밋출쏜가  
 갑 업슨 강산(江山)에 말 업시 누엇시니  
 백구(白鷗)도 너 뜻을 아는지 오락가락 흐드라

- 이정보

\* 환해(宦海) : 관리의 사회

- ① [A]와 <보기>는 모두 자연 친화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와 <보기>는 모두 눈에 띄는 대상에 감정 이입을 하고 있다.
- ③ [A]는 바닷가를, <보기>는 일반적인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④ [A]는 돈호법을, <보기>는 설의법을 사용하여 뜻을 강조하고 있다.
- ⑤ [A]에는 스스로에 대한 자궁심이, <보기>에는 임금에 대한 걱정이 나타나 있다.

21. (가)의 ㉠~㉣ 중 (나)의 ㉠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출근 시 일반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산업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 문제는 사회 보장 수급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최소한의 수준을 넘는 사회 복지와 사회 보장은 이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 능력, 국민 소득과 생활수준, 전체적인 사회 보장 수준과 제도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입법을 통해 해결할 사항이라고 보았다. 우리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존 보장을 요구할 권리일 뿐 그 이상의 구체적 권리를 직접 도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참조한 것이다. 그에 따라 다수 의견은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 문제를 포함한 산재 보험 수급권 역시 그 필요성에 앞서 국가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재원 확보 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은 통상적인 출퇴근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공무원 재해로 인정받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다수 의견은 보충 의견을 통해,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에 대한 재해 보상이 법적으로 다른 것은 재정적 부담 규모의 현격한 차이, 보험 주체의 차이와 기여금의 불입 등을 고려한 입법 정책의 차이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은 이 문제는 입법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업무상 재해란 ‘어떤 사람이 근로자라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재해’라는 근본적인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출퇴근 재해에 대한 외국의 입법 사례와 함께 그것을 산재에 포함하도록 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을 상기시키며 경제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이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뒤처져 있는 데는 법률의 취지를 곡해해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판단해 온 대법원의 기존 해석도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특이하게도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 모두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가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기대한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 다수 의견은 사회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입법 재량에 의해 그 보호 범위가 정해지므로 출퇴근 재해를 보상 범위에 포함할 때 소요일 막대한 재정과 이해관계 조정 등의 문제를 국회와 행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고, 반대 의견은 이 사건은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입법 재량에 맡겨 둘 영역이 아니지만 다수 의견을 형성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국회와 행정부의 긍정적인 조치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당시 노동부는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에 따르는 보험료 분담에 대해 손해 보험 단체와 협정이 이루어지면 2007년도 이후에는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 판결이 나온 후 ㉢국회와 행정부는 대법원의 기대와 달리 출퇴근 재해에 대해

중전의 입장을 고수하는 데 머물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수 의견의 판결문을 인용해 법률을 개정했다. 당시 산재보험법에 출퇴근 재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던 것을 제37조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불러일으킨 가장 큰 문제는 국회에서 개정 논의 중인 법률에 대한 해석을 전원 합의로 선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회의 법 개정 방향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 모두 국회의 진전된 논의를 기대한다는 뜻을 표명한 점은 같았지만, 다수 의견은 그 입법에 혼란을 초래할까 보아 종래의 해석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에 반해, 반대 의견은 입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결국 국회는 종래의 해석을 답습한 다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좀 더 진전된 해석을 간단히 폐기하고 말았다. 입법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해석을 꺼린 다수 의견이 결국 입법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이런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원래 사법 자제는 사법 소극주의와 연결되지만 이 경우는 사법 자제에 의한 사법 적극주의의 실현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출근 시 근로자 사망 사건에서 다수 의견이 취한 태도는 사법 자제를 내세운 것이어서 언뜻 사법 소극주의적 태도를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적극적 태도를 취했을 때보다 더 적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사법부의 판결은 이처럼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책임감을 더 무겁게 갖고 성찰해야 할 것이다.

**22. 밑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법권을 기반으로 한 입법권과 행정권 사이의 갈등과 조정
- ② 대법원의 판례 적용을 둘러싼 찬반 의견의 대립과 해소 방향
- ③ 판례를 통한 사법적 적극주의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 ④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판결의 내용과 그것이 입법에 끼친 영향
- ⑤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복지 국가의 당위성

**23. <보기>에서 ㉠과 ㉡ 간의 쟁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기> —

- ㉠. 사안과 연관된 국가의 경제적 수준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문제
- ㉡.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의 산재 인정 범위를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문제
- ㉢. 출퇴근 사고를 근로자의 처지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재해라고 판단하는 문제

- ①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24. ㉠의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법원의 판결에 담긴 기대의 뜻을 수용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 ②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이제껏 애매했던 산재 범위를 분명히 정함으로써 분쟁을 막고자 하였다.
- ③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입법 재량에 맡기고자 한 취지에 따라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 ④ 대법원의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서로 합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법을 개정하여 보완하고자 하였다.
- ⑤ 대법원의 반대 의견이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할 취지를 법조문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25~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어사또 행장을 차리는데 모양 보소. 술 사람을 속이려고 모자 없는 헌 파립(破笠)에 벌이줄 총총 매어 초사(草紗) 갓끈 달아 쓰고 당만 남은 헌 망건에 갓풀관자 ㉠노끈 당줄 달아 쓰고 의뭉하게 헌 도복에 무명실 띠를 흉중에 둘러매고 살만 남은 헌 부채에 ㉡술방울 선추(扇錘) 달아 일광을 가리고 내려올 제,

(중략)

“저 농부 말 좀 물어 보면 좋겠구먼.” “무슨 말?” “이 골 춘향이가 본관(本官)에 수청(守廳) 들어 너물을 많이 먹고 민정에 작폐한단 말이 옳은지?” 저 농부 열을 내어 “게가 어디 삽나?” “아무 데 살든지.” “아무 데 살든지.”라니. 게는 눈 콩알 귀 콩알이 없나? 지금 춘향이가 수청 아니 듣다 하고 형장 맞고 간했으니 창가(娼家)에 그런 열녀 세상에 드문지라. 옥결 같은 춘향 몸에 자네 같은 동냥치가 누설(陋說)을 시키다간 빌어먹도 못하고 굶어 뒤어지리. 올라간 이 도령인지 삼 도령인지 그놈의 자식은 일거후(一去後) 무소식(無消息) 하니 인사(人事) 그러고는 벼슬은커녕 내 좃도 못 하제.” “어, 그게 무슨 말이고?” “왜, 어찌 됩나?” “되기야 어찌 되련마는 남의 말로 구습(口習)을 너무 고약히 하는고.” “자네가 철 모르는 말을 하매 그렇게.” 수작을 파하고 돌아서며 “㉢허허, 망신이로고. 자, 농부네들 일하오.” “예.”

(중략)

“그 안에 뉘 있나?” “뉘시오?” “내로세.” “내라니 뉘신가?” 어사 들어가며 “이 서방일세.” “이 서방이라니. 울제, 이 풍헌 아들 이 서방인가?” “허허, 장모 망령이로세. 나를 몰라, 나를 몰라?” “자네가 뉘기여?” “사위는 백년지객(百年之客)이라 하였으니 어찌 나를 모르는가?” ㉣춘향의 모(母) 반겨하여 “애고 애고, 이게 웬일이고. 어디 갔다 인제 와. 풍세(風勢) 대작(大作)터니 바람결에 풍겨 온가? 봉운기봉(峰雲奇峰)터니 구름 속에 싸여 온가? 춘향의 소식 듣고 살리려고 와 계신가? 어서 어서 들어가세.”

손을 잡고 들어가서 촛불 앞에 앉혀 놓고 자세히 살펴보니 걸인 중에도 상결인 되었구나. 춘향의 모 기가 막혀 “이게 웬일이요?” “양반이 그릇되매 형언할 수 없네. 그때 올라가서 벼슬길 끊어지고 탕진가산(蕩盡家産)하여 부친께서는 학장(學長)질 가시고 모친은 친가로 가시고 다 각기 갈리어서 나는 춘향에게 내려와서 돈친이나 얻어 갈까 하였더니, 와서 보니 양가(兩家) 이력 말이 아닐세.” 춘향의 모 이 말 듣고 기가 막혀 “무정한 이 사람아, 일차 이별 후로 소식이 없었으니 그런 인사가 어디 있으며, 후기(後期)인지

바랐더니 이리 잘 되었소. 쏘아 논 살이 되고 옆질러진 물이 되어 수원수구(誰怨誰咎)를 할까마는 내 딸 춘향 어쩔남나.”

- 작자 미상, 「춘향전」

(나)

관찰사는 평양감사 직을 마치고 대사헌이 되어 조정으로 복귀하였고, 생도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점점 자신이 자란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감히 말이나 얼굴엔 드러낼 수 없었다. 이럴 즈음, 감시과(監試科)를 본다는 방이 나붙었다. 아버지의 명대로 생은 친구 두셋과 함께 산사로 들어가 과업(科業)을 준비하게 되었다.

산사에 있던 어느 날 밤, 친구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때다. 생도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홀로 일어나 뜰 앞을 서성였다. 때는 한겨울이고 눈 내린 밤 달빛이 눈부시게 환한 데에다 깊은 산속의 고요한 밤이라 온갖 소리마저 찾아들었다. 생은 달을 바라보며 자란을 그리워하다가 구슬픈 마음이 절로 일었다. 얼굴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을 누를 수 없어 정신을 잃고 미쳐 버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밤은 아직 반이나 남아 있었다.

급기야 그는 서 있던 뜰에서 곧장 평양을 향해 길을 떠났다. ㉠털모자에 명주옷을 입고 가족신을 신고서 걸어서 길을 떠난 것이다. 그러니 채 10여 리도 못 가서 발이 부어 더는 걸어갈 수가 없었다. 어느 촌가에 들어가 가족신을 ㉡짚신으로 바꿔 신고, 쓰고 있던 털모자를 버리고 옆이 찢어져 다 해진 ㉢패랭이를 얻어 썼다. 여행길에 구걸도 하였으나 굶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여관에 기숙했지만 밤새도록 추위에 얼기 일쑤였다.

부귀한 집안의 자제로 기름진 밥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자란 터라 문밖으로는 몇 걸음도 나가 본 적이 없던 그였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천 리 길을 걸어서 가다 보니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기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어 옷은 찢어질 대로 찢어져 너털너털해지고 얼굴은 검고 수척해진 게 거의 귀신의 몰골이었다. 험한 고비를 넘기며 조금씩 걸어서 한 달 남짓 만에 비로소 평양 땅에 도착할 수 있었다.

곧장 자란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자란은 보이지 않고 ㉣그 어미 혼자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어미는 생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생은 앞으로 다가가 직접 이야기를 하였다. “나는 전 사또의 아들이라네. 자네 딸을 잊지 못해 이렇게 천 리 길을 걸어서 왔네. 딸은 어딜 갔길래 안 보이는가?” 어미는 그의 말을 듣고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다. “우리 딸은 새로 오신 사또의 자제한테 사랑을 입어 밤낮없이 산정(山亭)에서 함께 머물고 있지 뭐니까. 그 도련님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잠시도 허락지 않아 우리 애가 집에 오지 못한 지도 이미 몇 달이 됩니다. 도련님께서 이렇게 먼 길을 오셨으나 만날 길이 막연하니 참 딱하게도 되었구려.” 그러면서 먼 곳만 바라볼 뿐 영접할 의사가 없었다.

- 임방, 「천예록」

2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간적 배경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 ② 시간의 순차적 진행에 따라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 ③ 재치 있는 표현 속에서 해학적 분위기가 느껴진다.
- ④ 남녀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 ⑤ 서술자가 주인공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26. (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장이 리듬감 있게 구성되어 있다.
- ② 인물의 외양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다.
- ③ 인물의 말 속에 비속어가 사용되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 ⑤ 극적인 반전을 통해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다.

2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농부의 말이 모두 사리에 맞으므로 반박할 수 없어 애태우고 있다.
- ② 농부에게서 춘향의 상황을 듣고 지레 본관 사또의 위세에 놀리고 있다.
- ③ 암행어사인 자신이 하찮은 신분의 농부에게 멸시를 당했다고 분노하고 있다.
- ④ 춘향에 대한 여론에 안도하는 한편 자신은 염치없게 되었음을 멧쩍어 하고 있다.
- ⑤ 춘향과의 관계를 들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짐짓 탄소리를 하여 상황을 모면하고 있다.

28.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태도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 ② ㉡와 ㉢은 모두 인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와 ㉢은 모두 딸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대하고 있다.
- ④ ㉡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낮고, ㉢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높다.
- ⑤ ㉡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고, ㉢은 자신의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

29. 글의 문맥상 ㉣~㉦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① ‘더 좋은 세상에서’(In a Better World, 2012)는 폭력에 관한 영화이다. 이 영화는 폭력의 근원과 양상, 그리고 결과에 대한 보고서라고도 할 수 있다. 폭력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영화는 크게 두 세계를 소재로 삼는다. 하나는 엘리아스와 크리스티안이라는 아이들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엘리아스의 아버지인 안톤의 세계이다. 감독 수잔 비에르는 이 두 세계의 모습을 교차시키면서 폭력의 시작(과거)과 과정(현재)을 보여 준 다음, 두 세계가 결합하는 순간을 제시하여 폭력의 결과(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인하도록 만들었다.

먼저 아이들의 세계를 보자. 몸이 약하고 수줍은 엘리아스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지만 누구에게도 고통을 말하지 못한다. 엘리아스가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새로 전학 온 크리스티안이 보게 되는데 둘은 곧 친해지게 된다. 그러나 엘리아스를 향한 폭력이 그에게까지 확대되자, 크리스티안은 정당방위라는 명목으로 강력하게 응징한다. 그는 폭력에 대한 응징만이 자신들에게 가해질 폭력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일단

크리스티안의 방식은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인다. 둘에게 가해지던 폭력이 멈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화는 이러한 승리가 과연 타당한지를 묻는다. 오히려 폭력에 대응하는 강력한 폭력이 더 큰 폭력을 부르는 원천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다음으로 안톤의 세계를 보자. 그는 폭력에 제대로 응수하는 것은 비폭력밖에 없다고 믿는다. 사실 엘리야스가 괴롭힘에 변변히 대처를 못한 것은 안톤의 비폭력적인 가정교육에도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안톤은 비폭력에 대한 소신에 ㉠회의를 가져오는 사건을 겪게 된다. 의사인 그는 아프리카에서 자선의로 사업을 하는데, 어느 날 그의 의료 캠프로 다친 임신부가 실려온다. 지역 군벌의 우두머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고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폭력은 비폭력주의자인 안톤마저 당혹스럽게 만든다. 얼마 후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입은 또 다른 임신부가 실려 오지만 안톤에게는 딱히 대책이 없다. 그러던 중 내전이 일어나고 그 우두머리는 부상을 당해 안톤을 찾아온다. 선택의 기로에 선 안톤은 치료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지만, 결국 소신대로 우두머리를 치료한다. 그러나 치료가 끝나자 안톤은 우두머리를 분노한 군중들 속으로 쫓아낸다.

엘리야스의 학교가 폭력의 과거이고 안톤의 아프리카가 폭력의 현재라면, 영화 후반부에 제시되는 크리스티안의 폭력은 폭력의 미래가 될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안톤은 엘리야스와 크리스티안을 불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엘리야스의 동생이 또래 아이와 사소한 시비가 붙게 되고, 이어 또래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해 말리는 안톤을 모욕하면서 폭력을 휘두른다. 안톤은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려 했지만, 아이들은 안톤을 나약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한다. 크리스티안의 지휘 아래 아이들은 또래 아이 아버지의 차를 폭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만, 오히려 엘리야스가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다치게 된다. 이후 안톤은, 심한 자책 때문에 자살을 하려는 크리스티안을 지지하고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고 하면서 크리스티안을 포용한다.

이렇게 영화는 안톤의 생각이 올바름을 암시하면서 끝나지만 문제는 남는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엘리야스의 비참함, 아프리카의 군벌을 보면서 들었던 안톤의 무력감, 얻어맞는 안톤을 보는 아이들의 울분을 과연 현실에서 참아 낼 수 있을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여야 할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주어라’여야 할까. 아니, 그것보다도 폭력에 대해 사회는, 특히 사회의 제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제도도 폭력을 징치하는 것 역시 폭력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3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폭력의 시작과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결말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사소한 시비가 더 큰 폭력을 불러오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문제 상황에 대한 인물들의 상반된 대처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폭력적 세계와 비폭력적 세계를 번갈아 가면서 보여 주고 있다.

31. ㉡의 내용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폭력적 사태로 인한 피해자를 방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대처일까?
- ② 폭력이 가져온 끔찍한 비극을 보면서도 응징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있을까?
- ③ 비폭력을 말한다고 해서 폭력을 당한 이들의 비참한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 ④ 비폭력을 내세우는 것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로 하여금 폭력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 ⑤ 폭력이 세상을 나쁘게 만든다고 해서 비폭력이 반드시 세상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32. 윗글을 읽고 토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수철 : 엘리야스는 따돌림으로 괴로움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 비폭력의 중요성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해.
- ② 영수 : 크리스티안이 학생들에게 복수한 것은 당연한 면이 있어 보이지만, 그 때문에 그는 폭력에 대해 잘못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여.
- ③ 소영 :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은 폭력을 휘두른 자나 복수하는 자 모두에게 파멸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양해야 할 대처 방식이야.
- ④ 진구 : 이 영화는 폭력에 대해 개인 차원의 대처 방식만 말하기 때문에, 사회나 제도 차원에서 폭력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 ⑤ 미영 : 이 영화는 안톤이 크리스티안을 마지막에 포용하는 결말을 통해 비폭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 했다고 생각해.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예비는 종이였다. ㉠밭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파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 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어매는 달을 두고 ㉡꽃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흙으로 바람벽 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예미의 아들. 갑오년(甲午年)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외할아버지의 술 많은 머리털과 그 커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 할(八割)이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罪人)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天痴)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으른다.  
 찬란히 띄어 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 위에 얹힌 시(詩)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별이거나 그늘이거나 헛바닥 늘어뜨린 병든 수캐마냥 헐떡거리며 나는 왔다.  
 - 서정주, 「자화상」

(나)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詩)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늪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㉞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다)

시(詩)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먼— 기적 소리 처마를 스쳐 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의 베개 밑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항시 곤두박질해 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쓸쓸한 것이 오장(五臟)을 씻어 내린다.  
노신(魯迅)이여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上海) 호마로(胡馬路)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  
여기 하나의 상심(傷心)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 김광균, 「노신」

33. (가)~(다)의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상징과 직유법으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② (나)는 의문의 형식으로 자신의 고뇌를 토로하고 있다.
- ③ (다)는 돈호법과 의인법으로 시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단정적인 어조를, (나)는 차분한 어조를 쓰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모두 대구적 표현을 통해 시인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34. (가)~(다)에 드러난 시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와 (나)는 현실에 대한 무력감이 있는 반면, (다)는 그렇지 않다.
- ② (가)와 (다)는 믿고 따를 대상이 제시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 ③ (가)와 (다)는 자신이 속한 현실을 초월하려 하나, (나)는 그렇지 않다.
- ④ (나)와 (다)는 시에 대한 의구심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지만, (가)는 그렇지 않다.
- ⑤ (가), (나), (다) 모두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35. <보기>를 참조하여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노신(루쉰)은 중국의 근대 문학을 이끈 작가로, 항일 투쟁에 나섰다가 일본에 쫓기는 삶을 살았다. 중일전쟁 직전인 1936년 상하이 조계지에서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

- ① 시적 화자는 노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있어.
- ② 절망 속에서도 굳센 결심으로 견뎌 내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
- ③ 노신의 '등불'은 시적 화자에게 굳건한 태도를 상기시켜 주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어.
- ④ 경제적 무능함에 대한 비난을 받던 화자는 결국은 노신을 본받아 생활고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어.
- ⑤ 시적 화자의 고난은 개인적 삶에서 나오지만, 노신의 경우는 사회에 대한 이상과 관련이 있어.

36. ㉞의 함축적 의미를 '인물이 처한 환경'이라고 볼 때, 함축적 의미가 ㉞와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37. ㉞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정적인 현실이 절정에 달한 상태에서 슬픔과 외로움을 감내하고 있다.
- ② 불의와 맞서 온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최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③ 미래에도 희망이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④ 그동안 추구해 온 이상향이 실현되리라는 믿음으로 구원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다.
- ⑤ 어두운 시대에 적극적으로 맞서지는 못하지만 희망을 간직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치가 일종의 ‘실재(reality)’라는 생각은 다분히 플라톤적이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은 현상계의 감각적인 모든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생각에 떠오르는 것들, 대표적으로 가치에도 존재성을 부여하려고 했으며, 나아가 가치의 존재성을 위해 가치의 객관성을 입증하려 했다. 물론 그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현상계에 그러한 객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현상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 곧 관념이 실재하는 이데아의 세계를 구상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가치의 존재성은 플라톤적인 철학적 열망이 만들어 낸 거대한 신화이다. 이후 수많은 철학자들이 플라톤의 시도에 매료되었으며, 이로써 형이상학적 사유는 서양 철학사에서 지배적인 흐름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의 실재론적 철학은 20세기에 들어와 반박된다. 대표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은 “선하거나 악한 것은 근본적으로 아니며 실제 세계가 아니다.”라는 말로 가치에 관한 실재론을 부정한다. 이와 같은 가치의 실재성에 대한 거부는 기본적으로 경험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경험주의자들은 사실과 가치를 엄격히 구분하는 데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동안의 도덕 이론이 ‘이다/아니다’와 같은 사실 명제에서 ‘해야 한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 명제로 바로 이행하는 오류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던 흄을 이어받아 경험주의자 특히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가치 문장이 사실 문장에서 직접 추론될 수 없다’는 논제로 정형화한다. 곧 사실에서 가치가 직접 검증되거나 추론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가치의 존재성을 부정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퍼트남은 논리실증주의가 흄의 주장을 극대화하였고 비판하였다. 논리실증주의는 가치에 대한 주장이 사실상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표출하는 ‘정서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던 반면, 퍼트남은 그렇게 된다면 가치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해지기에 ‘회의주의’를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그는 “가치와 규범을 벗어나서는 어떤 사실에 대한 판단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의 가치 의존성’이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한편, 존 설은 “가치 명제를 보조 전제로 도입해야만 사실 명제에서 가치 명제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논리실증주의자들의 주장을 비판했다. 사실과 가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과 가치 사이에 아무런 상관성이 없다는 결론이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존 설은 가치 평가와 관련된 진술이나 도덕적 원리가 개입하지 않고서도 사실 명제에서 가치 명제가 나오는 ㉠한 사례를 논리실증주의의 반례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존 설보다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실 명제와 가치 명제가 명확히 구별된다는 기본 가정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가령 “내 방에 갈색 탁자가 하나 있다.”라는 문장은 전형적으로 명확하게 사실 명제에 해당하겠지만, 문제는 상황에 따라 이 문장도 가치 명제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탁자가 두 개 필요하다면 이 문장은 매우 부정적인 가치 평가를 함축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 명제와 가치 명제를 판단하는 것이 문장 자체로만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문장을 둘러싼 상황과 맥락, 나아가 그 문장의

사용자가 지닌 목적과 의도 등을 포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처음부터 부적절한 가정에 의존하고 있었던 논리실증주의나 그에 대한 비판론자들의 관점을 넘어 가치의 실재성을 ㉡새로운 관점으로 논할 필요가 있다.

3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플라톤은 가치가 실재함을 입증하기 위해 이데아의 세계를 구상했다.
- ② 비트겐슈타인은 실제 세계는 가치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사실과 가치의 절대적인 분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 ④ 퍼트남은 사실이란 가치와 규범에 의존하여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 ⑤ 존 설은 사실과 가치 사이의 상관성을 부정하는 견해를 논박하였다.

39.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사실을 종합하는 귀납적인 방법으로 필자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그동안의 이론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논제에 대한 여러 이론들을 반론과 그에 대한 재반론 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논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논의의 흐름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⑤ 논제를 논하는 큰 원칙을 먼저 제시하고 이에 따라 세부 사항들을 분석하고 있다.

40. <보기>는 ㉢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 존스는 “나는 이렇게 스미스 너에게 5달러를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 존스는 스미스에게 5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 존스는 스미스에게 5달러를 지불할 의무를 졌다.

㉣. 존스는 스미스에게 5달러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 존스는 스미스에게 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 ① ㉠은 존스가 말한 내용의 가치를 중하게 여기는 가치 명제이다.
- ② ㉠~㉢은 사실 명제를 긍정적으로 판단하면 가치 명제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③ ㉠~㉤은 평가적 진술 없이 사실 명제에서 가치 명제가 도출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④ ㉢은 사실 명제에서 직접 추론되지 않은 독립적인 가치 명제이다.
- ⑤ ㉢~㉤은 경험주의자의 논리에 따르면 가치 명제가 사실 명제로 전환된 것이다.

41.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실 명제로 일단 판단되면 그 명제는 가치 명제가 될 수 없다.
- ② 문장 자체의 차원을 넘어서기 위해 논리실증주의의 관점을 계승해야 한다.
- ③ 문장 사용자의 의도는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가치를 판단하는 준거가 될 수 없다.
- ④ 사실 명제와 가치 명제의 분류 기준을 준수하면서 그 한계를 넘어설 방안을 찾아야 한다.
- ⑤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명제를 파악해야 문장만으로 판단할 때의 오류를 벗어날 수 있다.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1970년대에 앓은뱅이와 꼽추는 살던 집이 도시 재개발 계획으로 헐리게 되자 사나이에게 입주권을 헐값에 팔게 된다. 속은 것을 알아차린 꼽추와 앓은뱅이는 사나이에게서 돈을 빼앗기로 한다.

앓은뱅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다.  
 “당신은 나에게 이십만 원을 더 줘야 돼.”  
 “뭐라구?”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럴 수가 있어? 삼십팔만 원짜리를 십육만 원에 사다 이십이만 원짜리나 더 받고 넘긴다는 건 말이 안 돼. 나에게 이십만 원을 줘도 이만 원의 이익을 보는 것 아냐? 더구나 당신은 우리 동네 입주권을 몰아 사버렸지?”  
 “비켜!”  
 사나이가 몸을 일으켰다.  
 “비키지 않으면 집어던질 테야.”  
 “마음대로 해.”  
 아주 짧은 순간 앓은뱅이는 정신을 잃었다. 사나이의 구둣발이 그의 가슴을 차버렸던 것이다. 앓은뱅이는 거둑 들어오는 사나이의 구둣발을 정신없이 잡고 늘어졌다. 앓은뱅이는 너무 약했다. 사나이는 앓은뱅이의 얼굴을 큰 주먹으로 몇 번 쥐어박더니 번쩍 들어 풀숲으로 내던졌다.  
 그는 거꾸로 처박히듯 내던져진 앓은뱅이가 길 위로 기어 나오려고 꼽지락거리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섰다. 방해물이 기어 나오기 전에 빨리 지나가야 했다.  
 그는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몸을 굽혔다. 순간, 검은 그림자가 그의 멍치 밑을 힘껏 차 왔다. 사나이의 큰 몸이 힘없이 나가떨어졌다. 콩밭에 숨어 있던 꼽추가 차 안으로 들어가 있다 죽을힘을 다해 사나이를 차버렸던 것이다.

(중략)

‘돈을 줄게!’  
 사나이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꼽추가 그의 입에 큰 반창고를 붙인 뒤였다. 몸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의 몸은 전깃줄로 뽕뽕 묶여 있었다.  
 꼽추가 차 안으로 들어가 밤하늘을 일직선으로 가르며 켜져 있던 두 줄기의 불을 꺼버렸다. 엔진도 켜졌다. 그는 운전석 밑에서 검정색 가방을 찾았다.

밖에서는 앓은뱅이가 사나이의 등을 받쳐 밀어 앉혔다. 꼽추가 나와 허리를 껴안아 일으켰다. 두 친구는 사나이의 몸을 떠받치듯 밀어 운전석으로 올려 앉혔다.  
 “나를 저자 옆에 앉혀 줘.”  
 앓은뱅이가 말했다. 꼽추가 그를 안아 바른쪽 좌석에 앉혀 주었다. 자신은 뒤쪽으로 들어가 검정색 가방을 열었다. 사나이는 보기만 했다.  
 “돈과 서류야.”  
 꼽추가 말했다.  
 “보여 줘.”  
 앓은뱅이가 말했다. 사나이는 앓은뱅이와 꼽추가 자기의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건 벌써 팔아 버렸어.”  
 앓은뱅이가 가방 안을 뒤적이면서 말했다. 사나이는 두 눈만 껌벅거렸다.  
 “잘 봐.”  
 ㉠“우리 이름이 이 공책에 적혀 있어. 그런데 연필로 그어 버린 거야. 이걸 팔았다는 뜻이야.”  
 앓은뱅이가 쳐다보자 사나이가 고개만 끄덕였다.  
 “삼십팔만 원에?”  
 사나이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돈을 세어 봐.”  
 꼽추가 말했다. 앓은뱅이가 돈을 세기 시작했다. 그는 꼭 이십만 원씩 두 뭉치의 돈만 꺼냈다.  
 “이건 우리 돈야.”  
 앓은뱅이가 말했다. 사나이는 다시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앓은뱅이가 뒷좌석의 친구에게 한 뭉치의 돈을 넘겨주는 것을 보았다. 앓은뱅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꼽추의 손도 마찬가지로 떨렸다. 두 친구의 가슴은 더 떨렸다.  
 앓은뱅이는 앞가슴을 풀어헤쳐 돈뭉치를 넣더니 단추를 잠그고 옷깃을 여몄다. 꼽추는 윗옷 바른쪽 주머니에 넣었다. 꼽추의 옷에는 안주머니가 없었다.  
 돈을 챙겨 넣자 내일 할 일들이 머리에 떠올랐다. 앓은뱅이의 머리에도 내일 할 일들이 떠올랐다. 아이들은 천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통을 가져와.”  
 앓은뱅이가 말했다. 그의 손에는 마지막 전깃줄이 들려 있었다. 밖으로 나온 꼽추는 콩밭에서 플라스틱 통을 찾았다.

(중략)

차에서 폭발 소리가 들려 왔을 때는 앓은뱅이도 놀랐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뿐이었다. 불길도 자고 폭발 소리도 자버렸다. 어둠과 침묵이 두 사람을 싸고 있었다. 꼽추가 앞서 걸었다. 앓은뱅이가 그 뒤를 따라왔다.  
 ㉡“살 게 많아.”  
 그가 말했다.  
 “모터가 달린 자전거와 리어카를 사야 돼. 그 다음에 강냉이 기계를 사야지. 자네는 운전만 하면 돼. 내가 기어 다니는 꼴을 보지 않게 될 거야.”  
 앓은뱅이는 친구의 반응을 기다렸다. 꼽추는 말이 없었다.

“왜 그래?”  
 앓은뱅이는 급히 따라가 꼬추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이봐, 왜 그래?”  
 “아무것도 아냐.”  
 꼬추가 말했다.  
 ㉠“겹이 나서 그래?”  
 앓은뱅이가 물었다.  
 “아무렇지도 않아.”  
 꼬추가 말했다.  
 “묘해. 이런 기분은 처음야.”  
 “그럼 잘됐어.”  
 ㉡“잘된 게 아냐.”  
 앓은뱅이는 이렇게 차분한 친구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다.  
 “나는 자네와 가지 않겠어.”  
 “뭐!”  
 “자네와 가지 않겠다구.”  
 꼬추는 이렇게 말하고 한마디 덧붙였다.  
 (중략)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자네의 마음야.”  
 “그러니까, 알겠네.”  
 앓은뱅이가 말했다.  
 ㉣“가. 막지 않겠어.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 조세희, 「뫼비우스의 띠」

42.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중 인물의 시각으로 그가 겪은 사건을 진술하고 있다.
- ② 인물의 심리 변화를 세밀히 서술하여 갈등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비유와 상징을 통해 사건의 기본적인 정황을 압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인물의 행위와 대화를 짧은 문장으로 서술하여 사건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편집자적 논평을 이용하여 독자들에게 인물의 선악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43. ㉠~㉣ 중 말하는 인물이 **다른** 것은? [3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44.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앓은뱅이는 꼬추와의 동료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앓은뱅이는 미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놓고 있다.
- ③ 사나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다.
- ④ 꼬추는 앓은뱅이가 생각하지 않은 면에 대해 고려한다.
- ⑤ 꼬추는 앓은뱅이보다 주도적으로 중심 사건을 이끌고 있다.

45. <보기>를 근거로,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조세희의 「뫼비우스의 띠」 첫 부분에는 굵쪽에 들어간 두 아이에 대해 묻는 교사가 나온다. 교사는 두 아이 중 얼굴이 깨끗한 아이와 더러운 아이가 있다면 누가 얼굴을 씻겠는지 묻지만, 마지막에는 사실 그 질문이 잘못되었다면서 “한 아이의 얼굴이 깨끗한데 다른 한 아이의 얼굴은 더럽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 곧 어떤 문제 상황에서 처음에 한쪽이 잘못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아예 잘못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 소설의 제목을 안팎의 구분이 없는 ‘뫼비우스의 띠’로 삼은 이유이기도 하다.

- ① 앓은뱅이가 자신 몰래 사나이의 돈을 더 챙긴 것을 보고 그에 대한 신뢰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 ② 앓은뱅이가 자전거와 리어카를 사면서 자신에게는 어떤 고려도 하지 않는 이기적인 인물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③ 앓은뱅이가 돈을 주겠다고 사나이의 애원을 무시하고 강탈하는 무자비한 마음씨를 가졌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 ④ 앓은뱅이가 범 죄를 저질렀지만 돈을 되찾기 위한 일이었다고 여기면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⑤ 앓은뱅이가 내일 할 일에만 관심이 있고 사나이에게 다친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지나치게 냉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확인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2018학년도 경찰대학 1차시험 (국 어)

※ 총 12쪽 45문항(2점 35문항, 3점 10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 1.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한글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 ① 오늘 저녁에는 생선으로 졸일을 만들었다.
- ② 좌수(坐睡)는 '앉아서 졸'을 뜻하는 말이다.
- ③ 만들새를 보니, 정성을 들인 것이 분명하다.
- ④ 진정한 봉사는 다른 사람의 알음을 바라지 않는다.
- ⑤ 눈이 내리고 땅이 얕으로 말미암아 길 떠날 생각을 접었다.

### 2. <보기>의 한글맞춤법 규정에 따라 표기된 것은? [3점]

—<보기>—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 ① 오뚜기, 개구리
- ② 더펄이, 팽과리
- ③ 깔쭉기, 깎두기
- ④ 흘쭉이, 얼룩이
- ⑤ 빼주기, 누덕이

### 3. 국어 생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문: ‘부끄러워 않다’가 맞는 말인가요, ‘부끄러워하지 않다’가 맞는 말인가요?  
 답: 보조 용언 ‘않다’는 형용사, 동사 뒤에서 부정 표현에 쓰이므로, 형용사인 ‘부끄럽다’의 부정은 ‘부끄러워 않다’와 ‘부끄러워하지 않다’를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 ② 문: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를 발음할 때 [안녕히]와 [안녕이] 중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답: 한자어나 복합어에서 모음과 ‘ㅎ’ 또는 ‘ㄴ, ㄹ, ㅇ, ㄷ’과 ‘ㅎ’이 결합된 경우에는 ‘전화[저뇌]’에서와 같이 ‘ㅎ’이 탈락한 대로 발음합니다. 이에 따라 ‘안녕히’는 [안녕이]로 발음합니다.
- ③ 문: “벌에 쏘였다.”가 맞습니까, “벌에 썩였다.”가 맞습니까?  
 답: 피동사 ‘쏘이다’의 어간 ‘쏘이-’ 뒤에 어미 ‘-었-’이 붙으면, 줄여서 ‘쏘였-’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쏘였다’의 준말로 ‘쏘였다’만이 가능합니다.
- ④ 문: ‘시래기죽’이 맞나요, ‘시래기죽’이 맞나요?  
 답: ‘시래기’와 ‘죽’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 말이 [시래기쭈/시래기죽]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 규정에 따라 사이시옷을 받쳐 ‘시래기죽’과 같이 적습니다.

- ⑤ 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라는 표현은 예의가 없어 보이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라는 표현이 맞는지요?

답: ‘이 정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다.’와 같은 문장에서의 주체인 ‘이 정보’는 높임 대상이 아니어서 서술어에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시-’를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가 맞습니다.

### 4. 부사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런 일은 결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 ② 잠을 깼 사람은 절대로 나만이 아니었다.
- ③ 그가 남긴 작품은 비단 이 그림 한 가지뿐이었다.
- ④ 석이는 오직 고개를 저을 뿐 아무 말이 없었다.
- ⑤ 오늘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결승에 진출할 수 있다.

### 5. 타동사 ‘벗다’의 반의어가 아닌 것은?

- ① 신다    ② 붙다    ③ 지다    ④ 쓰다    ⑤ 까다

### 6. <보기>의 예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가. 우리 {나중에 / 다음에} 또 봅시다.  
 나. 그들은 {나중을 / \*다음을} 위하여 저축을 한다.  
 다. 이 {다음은 / \*나중은} 노래할 순서이다.  
 라. 20 페이지 {다음은 / \*나중은} 21 페이지이다.  
 마. 우리 집 {다음 / \*나중} 집은 커다란 이층집이다.  
 \*표는 비문법적임을 뜻함.

- ① ‘가’를 보니 ‘나중’과 ‘다음’은 전혀 다른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군.
- ② ‘나’를 보니 ‘나중’은 ‘알지 못하는 동안에 어느덧’의 의미로 쓰이네.
- ③ ‘다’를 보니 ‘다음’은 ‘이번 차례의 바로 뒤’의 의미로 쓰이네.
- ④ ‘라’를 보니 ‘나중’은 ‘다음’과는 달리 순서를 전제로 하고 있군.
- ⑤ ‘마’를 보니 ‘다음’은 ‘나란히 있는 사물의 맨 마지막 것’을 뜻하네.

### 7.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내용을 적절히 정리하여 구체화할 방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먼저 예상 독자를 정해야지. 예비 대학생과 대학 신입생이 주된 독자가 되겠는걸.
- ② 어떤 내용을 담을까? 대학 생활에 대해 쓰는 것이니 먼저 대학의 재정 상태, 대학의 학과별 인원 등을 중요하게 다루어야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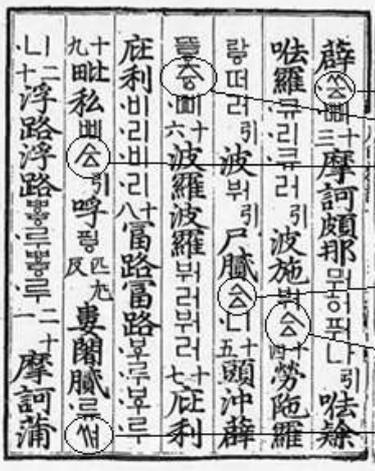
- ③ 글을 쓰기 위한 글감을 조사해야지. 전공별 교과 과정, 학교 편람, 대학생 동아리 안내, 장학 안내 등을 알아보아야겠군.
- ④ 어떻게 내용을 풀어 갈까? 고등학교와의 공부 방식의 차이, 전공별 특성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시간 활용 방법 등도 써야겠어.
- ⑤ 어떻게 글을 마무리할까? 전문인으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교양인으로서의 소양을 함께 갖추기 위한 대학 생활 전략이 있어야 함을 강조해야지.

8. <보기>의 (가)는 《월인석보》의 앞부분에 실린 《훈민정음》 언해본이며, (나)는 《월인석보》 권10의 일부이다.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가)  
중국 소리에서의 잇소리는 치두음과 정치음이 구분됨이 있으니  
ㄱ ㄷ ㅈ ㅊ ㅋ 글자는 치두의 소리에 쓰고  
ㄴ ㄹ ㅅ ㅆ 글자는 정치의 소리에 쓰니  
어금니와 혀와 입술과 목소리의 글자는 중국 소리에 통하여 쓴다.  
- 《훈민정음》 언해본(현대어 역)

(나)



- 《월인석보》 권10

- ① (가)의 ‘ㄱ ㄷ ㅈ ㅊ ㅋ’와 같은 글자를 만든 것을 보니 현대 국어에는 없는 발음이 중세 국어에는 있었군.
- ② (나)로 미루어 보니, 《월인석보》에 (가)가 들어간 것은 《월인석보》에 사용된 글자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군.
- ③ 중국어의 잇소리는 중세 국어의 잇소리와 달리 두 종류로 나뉘었군.
- ④ ‘ㄱ ㄷ ㅈ ㅊ ㅋ’와 같은 글자는 우리말을 적기 위한 글자는 아니었군.
- ⑤ 창제 당시의 훈민정음은 글자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었군.

9.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그동안 비표준어로 간주되었던 ‘짜장면’이 표준어가 됐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일반 대중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은 ‘짜장면’의 표준어 결정 앞에는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여전히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언중이 선호하는 말과 표준어 규정 안에 있으나 잘 쓰이지 않는 어휘들은 앞으로의 표준어 정책 방향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어문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한 어문 규범의 현실화는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규정의 현실화가 어문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규정 개정의 논의에서 벗어나 우리말의 다양성을 살리고 국어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표준어 확대 작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 ① ‘서럽다’와 ‘싫다’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 ② ‘광주리’와 ‘광우리’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 ③ ‘가없다’와 ‘가엷다’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 ④ ‘모쪼록’과 ‘아무쪼록’을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 ⑤ ‘거슴츠레하다’와 ‘게슴츠레하다’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10. 다음 문장 중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것은?

- ① 지도를 사용하면 비록 초행길일지라도 쉽게 찾아갈 수 있다.
- ② 항상 가슴에 명심하여야 할 것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 ③ 하룻길에 삼촌 집에 들려서 물건을 받아 오너라.
- ④ 춥더라도 자주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해야 해.
- ⑤ 그림을 그리던지 책을 읽던지 마음대로 해도 돼.

11. <보기>는 받침의 발음에 관한 표준발음법의 규정이다. 밑줄 친 발음이 규정에 맞는 것은?

— <보기> —

**제10항** 겹받침 ‘ㄱ’, ‘ㄴ’, ‘ㄹ, ㄺ, ㄻ’, ‘ㅁ’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ㄴ]으로 발음한다.  
다만, ‘ㅁ’은 자음 앞에서 [ㅁ]으로 발음하고, ‘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ㄴ]으로 발음한다.

- ① 넓죽하다[널쭈카다]
- ② 외궂[외곶]
- ③ 없다[엮: 따]
- ④ 여덟[여덜]
- ⑤ 훤다[할따]

12. <보기>의 글에서 잘못되거나 어색한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관현악을 위한 베토벤의 작품 중에서 교향곡 ⑦<못지않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서곡이다. ㉠<사실 베토벤의 교향곡에 대한 현대의 평가는 ‘위대하다’라는 평범한 말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베토벤은 오페라를 위한 서곡, 희곡 상연을 위한 서곡, 특별한 목적을 위한 연주회용 서곡 등 총 11곡의 서곡을 작곡했다. 그중에서도 <에그몬트>, <코리올란>, <레오노레 제3번>, <휘텔리오> 이 4곡은 고급의 명곡으로서, 희곡이나 오페라의 내용과 정신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중에도 음악적으로도 매우 훌륭하다.

그중에서 <에그몬트> 서곡은 괴테가 쓴 5막의 비극 <에그몬트>에 붙은 부수 음악이다. ㉢<그렇지만 이 음악은 베토벤이 40세가 되던 1810년 5월에 완성되었다. 이 부수 음악은 서곡을 포함해서 전 10곡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서곡이 뛰어나므로 오늘날에 와서는 이 서곡만이 곧잘 연주회의 프로그램에 오른다. 이 곡은 비극적인 서주를 지닌 소나타 형식이며, 강인한 모습 속에 따뜻한 애정을 간직한 에그몬트 백작의 성격을 절묘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 ① ㉠은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으므로 띄어 써야 한다.
- ② ㉠은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바로 뒤의 문장과 위치를 바꾼다.
- ③ ㉡은 뒷부분의 의미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표현할 뿐 아니라’로 바꾼다.
- ④ ㉢은 문맥을 고려하여 ‘그래서’로 바꾼다.
- ⑤ ㉣은 문장의 호응관계를 고려하여 ‘나타내게 하였다.’로 수정한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4년 초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혜성 ‘빌트’에서 나온 우주 먼지를 포획하는 임무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초속 50km로 움직이는 미세한 우주 먼지를 원형 그대로 붙잡기 위해서는 특별한 고안이 필요했다. 딱딱한 도구로 우주 먼지를 붙잡으려 하면 우주 먼지가 으스러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된 것은 거품 형태의 물질이었다. ‘실리카에어로겔’이라 불리는 이 물질은 1cm<sup>3</sup> 안에 수십 억 개의 자잘한 그물망이 거품 모양으로 엉켜 있어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 먼지들을 날날이 거품 속으로 파고들게 해서 붙잡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 실리카에어로겔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물질의 출발점은 젤리였다. 1930년대 사무엘 키스틀러는 젤라틴에 과즙 따위의 액체를 넣어 만든 젤리가 찰랑거리면서도 형태를 유지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액체가 젤라틴으로 된 아주 가는 그물망 속에 가두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젤라틴은 원래 고체이지만 물 같은 액체에 닿으면 분자 결합이 느슨하게 풀려서 그물을 이루고 그 안에 물을 가두게 된다. 그물 안의 액

체는 표면장력 때문에 바깥으로 새지 않는데, 이 상태에서 부드럽게 흔들면 젤리 전체가 찰랑거리게 된다.

그러나 키스틀러는 이 정도의 결론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다소 엉뚱한 상상을 했는데, 액체를 빼서 젤라틴 그물망만 남기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액체가 증발하는 미약한 힘에도 젤라틴 그물망이 쉽게 찌그러들어 버린다는 데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물보다 쉽게 기화하는 알코올을 넣은 젤리를 압력 용기에 넣고 용기를 가열하여 끓는점을 넘도록 해서 젤리 속 액체가 그대로 기체가 되게 했다. 이는 기체와 액체가 같은 밀도와 구조를 이루어 서로 차이가 없어지는 온도, 곧 ‘임계온도’를 넘기면 액체가 영구기체(아무리 온도를 내리고 압력을 높여도 액체가 되지 않는 기체)가 되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이후 젤리에서 천천히 기체가 빠져나오게 하면 젤라틴 그물은 젤리였을 때의 모양대로 유지된다. 이로써 키스틀러는 ㉠<젤라틴 겔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더 나아가 그는 젤라틴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도 겔을 만들고 싶어 했다. 그는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산화 알루미늄, 니트로셀룰로오스, 달걀의 알부민 등으로 겔을 만들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리의 주재료인 이산화규소(실리카)로 만든 겔이었다. 이 ㉡<실리카에어로겔은 젤라틴 겔보다 단단하고 가벼웠다. 공기가 전체 부피의 99.8%를 차지하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고체였다.

실리카에어로겔을 보면 아주 이상하게 느껴진다. 빛이 약한 곳에 두면 푸른 빛으로 보이고 밝은 곳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겔이 푸른 빛으로 보이는 것은 빛이 공기에 부딪혀 꺾이는 ‘레일리 산란’ 현상 때문이다. 이 현상은 하늘에서 볼 수 있는데, 파장이 짧은 푸른 빛이 노랑이나 빨강 빛보다 더 많이 꺾이기 때문에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 것이다. 물론 레일리 산란 현상을 보려면 하늘처럼 엄청난 양의 공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적은 양의 공기가 천문학적인 수의 작은 내부 표면을 지닌 투명한 물질에 갇히게 되면 레일리 산란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 빛의 색이 변할 수 있다. 이것이 실리카에어로겔이 푸르게 보이는 이유이다.

키스틀러는 실리카에어로겔의 쓰임새를 단열재로 보았다. 이 겔이 많은 겹의 유리창과 공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유리창을 약간씩 띄워서 겹겹이 배치하면 단열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물론 실제 유리창을 그렇게 배치하면 무겁고 거대해져서 별 효용이 없는 반면, 실리카에어로겔은 작고 가벼우면서도 단열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1930년대는 아직 단열에 관심이 없는 시대였고, 만드는 비용도 비쌌기에 실리카에어로겔은 곧 잊히고 말았다.

그러나 키스틀러가 죽은 지 한참 뒤인 1990년대 후반에 우주선 단열재로 이 겔이 선택되었다. 매우 가볍고 단열 효과가 최고이기에, 무게를 줄여야 하고 극단적으로 높고 낮은 외부 온도에도 견뎌야 하는 우주선에 딱 들어맞는 소재였던 것이다. 그 다음의 쓰임새가 우주 먼지 포획이었다. 이후 과학자들은 실리카에어로겔이 포획한 혜성의 우주 먼지를 분석하여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

1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우주선은 부피가 작고 고온에 잘 견디게 만든다.
- ② 표면장력이 젤리의 형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③ 비용 문제로 실리카에어로겔은 건축에서 외면당했다.
- ④ 혜성의 우주 먼지는 태양계 형성 연구의 재료가 된다.
- ⑤ 키스틀러는 자신의 발명품이 실용적 용도가 있다고 보았다.

14. ㉠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견고하지 않아서 충격에 약하다.
- ② 전체적으로 커다란 거품의 모양이다.
- ③ 속에 든 액체를 빼는 과정을 거쳐 만든다.
- ④ 적절한 열과 압력을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 ⑤ 액체에 닿아서 분자 결합이 변화한 결과이다.

15. ㉡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유리 성분이 주원료이므로 젤라틴 겔보다 형태 보존성이 좋다.
- ② 액체가 임계온도를 넘기면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 ③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들을 한곳으로 모아서 원형 그대로 붙잡을 수 있다.
- ④ 고체 형태보다 그 속에 포함된 기체의 부피가 훨씬 커서 보기보다 매우 가볍게 느껴진다.
- ⑤ 유리창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겹겹이 배치할 때와 같은 단열 효과를 효율적으로 낼 수 있다.

16.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일 젤리를 가열하면 세밀한 그물망이 쭈그러들게 될 것이다.
- ② 알코올을 임계온도에 다다르게 하는 것은 물의 경우보다 쉬울 것이다.
- ③ 알부민으로 겔을 만들면 거품들이 뭉쳐진 모양으로 그물망이 형성될 것이다.
- ④ 상온에서도 실리카에어로겔 안에 들어 있던 영구기체는 액화되지 않을 것이다.
- ⑤ 빛을 세계 쪼이면 빛의 꺾임 현상이 겔 안에서 크게 일어나 푸르게 보일 것이다.

[17~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비(碑)스들을 세우지 말라.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오란 해바라기를 심어 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 달라.  
 노오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청년 화가 L을 위하여」

(나)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懷疑)를 구(救)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愛憎)을 다 짐 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沙漠)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永劫)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神)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열렬한 고독(孤獨) 가운데  
 옷자락을 나무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對面)케 될지나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회한 없는 백골(白骨)을  
 쪼이리라.

- 유치환, 「생명의 서」

(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木手)네 집 현 샷을 간,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좁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털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쪼며 재 위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두 앵구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각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췌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짝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  
 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뭇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섬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세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굴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17. (가)~(다)의 시적 화자가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삶을 사랑과 꿈으로 채우려 하는 반면, (나)는 시련과 고뇌로 채우려 한다.
- ② (가)는 삶에 대한 희망적 태도를 보여 주는 반면, (다)는 삶에 대한 절망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③ (나)는 (다)와 달리 삶에서 겪는 고난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다)는 (가)와 달리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삶을 보다 의미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모색하고 있다.

18. (가)~(다)의 시적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강렬한 색채 심상을 통해 시적 화자의 소망을 말하고 있다.
- ② (나)는 시적 허용의 수법으로 시적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다)는 호흡이 긴 문장으로 시적 화자의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슬프고도 장엄한 어조로, (다)는 사색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직유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9. 시적 맥락을 고려할 때, ㉠~㉣ 중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2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비현실성을 떠는 공간이다.
- ② ㉠은 자아의 본질을 제대로 탐색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 ③ ㉢은 시적 화자의 처지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 ④ ㉢은 시대적 불의에 항거하는 원동력이 된다.
- ⑤ ㉠과 ㉢ 모두 정신적인 재탄생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21. (다)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대립적인 상징을 통해 사회적인 갈등을 내면화하여 성찰하고 있다.
- ② 편지 형식으로 자신의 삶을 반추함으로써 주어진 운명에 항거하고 있다.
- ③ 시적 화자가 겪은 사건을 구체화하여 예전의 상황을 상세하게 보여 주고 있다.
- ④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적 화자가 처음 상태로 회귀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시적 화자의 신체적 자세 변화를 통해 현실을 대하는 정신적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종묘는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神主)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다. 사직은 토지의 신인 사(社)와 곡식의 신인 직(稷)에게 국가의 안녕과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는 곳이다. 따라서 종묘와 사직은 모두 국가에서 주관하는 제사를 시행하던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조선 시대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여러 제사들을 제사 대상의 격에 따라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로 등급을 나누었는데, 종묘와 사직에서 지내는 제사는 모두 대사로 규정되었다.

종묘와 사직이 조선에만 있었던 제도는 아니다. 유교 경전의 하나인 『주례(周禮)』에는 종묘와 사직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수도를 건설할 때 “종묘는 궁궐의 왼쪽에 세우고 사직은 궁궐의 오른쪽에 세운다.”라는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동아시아의 전통 시대에는 군주가 궁궐 안에서 남쪽을 향해 앉아서 정치를 한다는 관념이 있었는데 이를 ‘남면(南面)’이라고 한다. 『주례』에서 말하는 ‘궁궐의 왼쪽과 오른쪽’은 곧 궁궐 안의 국왕이 남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할 때의 왼쪽과 오른쪽을 말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서울의 옛 지도를 볼 때 생각하는 좌우 개념과는 반대가 된다. 『주례』의 이 조항은 종묘와 사직의 건설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유교 경전에 종묘와 사직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종묘와 사직이 전통 시대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권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제도였음을 보여 준다.

종묘와 사직은 유교 문화의 핵심이 고스란히 농축되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전통 시대 유교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 즉 사람이 가정과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도리를 잘 준수하는 것이었다. 유교 윤리의 핵심은 ‘삼강(三綱)’과 ‘오륜(五倫)’으로 집약될 수 있는데, 이 삼강오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효(孝)’와 ‘충(忠)’이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가 사회·국가적 차원으로 확장된 것이 충이라는 점에서 가장 궁극적인 유교 윤리의 정수는 바로 ‘효’라고 할 수 있다.

부모에 대한 효를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통 시대에 매우 중시되었던 효의 실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제사’였다. 돌아가신 부모와 선조에 대해 살아 계실 때에 정성을 쏟았던 것과 같이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림으로써 효를

실천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종묘 제사는 국왕이 자신의 선조인 역대 국왕과 왕비에 대한 효를 실천하는 통로였다. 따라서 종묘는 제사를 통해 효 윤리가 실현되었던 유교적 문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직은 유교 문화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국가는 백성, 즉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데, 사람은 토지가 없으면 살 곳이 없고 곡식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 따라서 전통 시대에 토지와 곡식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었다. 이에 나라를 다스리는 국왕은 반드시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올려 백성들이 깃들여 살 수 있게 해 주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토지와 곡식의 공덕에 보답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나라 안의 토지는 광활하기 때문에 모든 땅에 대해 공경을 표할 수 없고, 곡식은 종류가 많아서 모든 곡식에 두루 제사를 올릴 수 없었다. 그래서 대신 흙을 쌓아, '사단(社壇)'을 만들어서 토지의 공에 보답하고 '직단(稷壇)'을 세워 곡식의 공에 감사했던 것이다. 이것이 전통 시대 유교 문화권의 여러 나라들이 사직단을 조성했던 이유이다. 사직은 전통 시대 국가에서 농업이 갖는 중요성과 경제적 민생 안정을 위한 국왕의 책무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종묘와 사직에서의 제사는 엄정한 의식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제사를 거행할 때는 반드시 음악이 연주되었다. 즉, '예(禮)'와 '악(樂)'이라는 유교 문화의 원칙에 따라 제사가 거행되었던 것이다. 국왕이 직접 주관하는 친제(親祭)는 말할 것도 없고 왕세자나 신하가 대신 거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왕이었다. 특히 종묘 제사는 국왕과 혈연관계가 있는 역대 국왕과 왕비에 대한 제사라는 점에서 왕실 의례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종묘와 사직의 제사 의례에는 왕실 문화의 모습도 담겨 있다. 이처럼 종묘와 사직은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와 왕실 문화 그리고 농업 사회적 특징이 종합적으로 깃들여 있는 문화 공간이었다.

동아시아의 각 나라들은 농업 경제에 기초한 유교 문화권이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공유하면서 한편으로는 각국의 현실적인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따라서 조선의 종묘와 사직은 동아시아의 보편적 문화와 더불어 조선만의 독특한 유교 문화, 왕실 문화, 농경문화가 집약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조선의 종묘와 사직은 조선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관문이 될 수 있다.

2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삼강오륜이라는 유교의 핵심적인 윤리는 종묘에서 구현되었다.
- ② 종묘와 사직은 동아시아의 보편성과 조선의 특수성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 ③ 종묘와 사직은 국가적 차원의 제사를 시행하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 ④ 남면하여 정치하는 국왕의 입장에서 왼쪽에 종묘를, 오른쪽에 사직을 두었다.
- ⑤ 왕실 문화에 기초한 사직은 제사를 유교 윤리의 실현에 맞게 개편한 것이다.

23. **㉠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모는 자식에게, 국왕은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존재이다.
- ② 자식은 부모의 혈육이기도 하지만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다.
- ③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국왕과 백성의 관계로 치환될 수 있다.
- ④ 부모는 자식에 대해, 국왕은 백성에 대해 군림하는 존재이다.
- ⑤ 부모에 대한 소임을 다하는 자식처럼 국왕에 대해 백성도 그렇게 할 수 있다.

24. **㉡과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종묘 제례악은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기악, 노래, 춤을 갖추고 종묘 제례 의식에 맞추어 연행하는 음악이다. 제례가 진행되는 동안 절차에 따라 <보태평>과 <정대업>이 연주된다.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문무(文舞)와 무무(武舞)가 곁들여진다. 문무는 역대 선왕의 문덕을 기리는 춤이고 무무는 선왕들의 무공을 칭송하는 춤이다. 이 음악은 편종, 편경 등 타악기의 선율에 당피리, 대금 등 관현악기의 장식적인 선율이 더해진 것이다. 또한 장구, 징, 태평소 등의 악기가 다양한 가락을 구사하여 특유의 중후함과 화려함을 준다. 중간 중간에 울리는 박(拍) 소리는 종묘 제례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 ① 종묘에서 연주하는 음악은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다.
- ② 종묘의 음악은 선왕들의 학문과 예술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③ 음악의 감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악 사상이 도입되었다.
- ④ 종묘의 음악을 올바르게 연주하려면 예의 관념이 투철해야 한다.
- ⑤ 종묘 음악은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여 유교 문화의 원칙을 충실히 구현한다.

[25~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生死路(생사로)는  
 ㉠예 이사매 저히고  
 나는 가느다 말사도  
 묻다 날고 가느릿고  
 어느 ㉡술 이른 보르매  
 이에 저에 떠딜 ㉢닐다이  
 흐든 가재 나고  
 가는 곧 모드온더  
 아으 彌陀刹(미타찰)에 맞보올 내  
 道(도) 닷가 기드리고다  
 - 월명, 「제망매가」(양주동 해독)

(나)  
 이 몸이 죽어 가서 무어시 될고 하니  
 蓬萊山(봉래산) 第一峰(제일봉)에 ㉣落落長松(낙락장송) 되야 이서  
 白雪(백설)이 滿乾坤(만건곤)홀 제 獨也青青(독야청청)허리라  
 - 성삼문의 시조

(다)  
 양전(兩殿)마마가 한낱한시에 몽사(夢事)를 얻으시니  
 대명전 들보에서 여섯 청의동자가 날아와서 일시에 읊거늘,  
 “네가 사람이냐 귀신이나?  
 나는 새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인데 어찌하여 들어왔느냐?”

“인간 사람도 아니옵고 귀신도 아니옵고  
하늘의 청의동자로서 옥황상제의 명령으로  
국왕 전하의 명패를 풍도 섬에 가두러 왔나이다.”  
“그는 어찌하여 그러하나?  
신하 중에 원책이 있다더냐? 만민 중에 원민이 있다더냐?”  
“원책, 원민이 아니오라, 하늘이 아는 아기를 내다 버리신 죄로  
㉠한날한시에 문안 드시면은 한날한시에 승하하시리다.”  
“그러면 내 어찌 회춘(回春)하리오?”  
“버린 아기를 찾아 들여, 삼신산 불사약 무상신(無上神) 약령수(藥靈水) 동해 용왕 비례주(珠) 봉래산 가얏초(草) 안아산 수리취를 구해다 잡수시면 회춘하시리다.”  
깜짝 놀라 깨니 남가일몽(南柯一夢)이라.

**(중략)**

대왕마마 병환이 위중하옵시니  
“만조백관, 시녀, 백성들아, 무상신 약령수를 얻어다가 국가 보존할쏘냐?”  
“이승 약이 아니온데 어찌 얻을 수 있사오리까?”

**(중략)**

버려졌던 칠 공주 불러내어,  
“부모 소양[효양(孝養)] 가려느냐?”  
㉢“국가에 은혜와 신세는 안 졌지마는  
어마마마 배 안에 열 달 들어 있던 공으로 소녀 가오리다.”  
“거동 시위(侍衛)로 하여 주랴? 구슬 덩, 사(紗) 덩을 주랴?”  
“필마단기(匹馬單騎)로 가겠나이다.”

사승포(四升布) 고의적삼, 오승포 두루마기 짓고  
쌍상투 짜고, 세(細)패랭이 닛 죽, 무쇠 주령 짚으시고  
은 지계에 금줄 걸어 매이시고  
㉣양전마마 수결(手決) 받아 바지 끈에 매이시고  
“여섯 형님이여, 삼천 궁녀들아,  
대왕 양마마님께서 한날한시에 승하하실지라도  
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인산(因山) 거동 내지 마라.”

**(중략)**

아기[칠 공주]가 한곳을 바라보니  
동에는 청 유리 장문이 서 있고 서에는 백 유리 장문이 서 있고  
남에는 홍 유리 장문이 서 있고 북에는 흑 유리 장문이 서 있고  
한가운데는 정렬문이 서 있는데 무상 신선(無上神仙)이 서 계시다.

㉤키는 하늘에 닿은 듯하고 얼굴은 쟁반만 하고 눈은 등잔만 하고 코는 질병 매달린 것 같고 손은 소맹만 하고 발은 석자 세 치라.

하도 무서웁고 끔찍하여 물러나 삼배를 드리니  
무상 신선 하는 말이,  
“그대가 사람이뇨? 귀신이뇨?  
날짐승 길버리지도 못 들어오는 곳에  
어떻게 들어왔으며 어디서 왔느냐?”  
“나는 국왕마마의 세자로서 부모 봉양 왔나이다.”  
“부모 봉양 왔으면은 물값 가지고 왔소? 나무값 가지고 왔소?”  
“충망 길에 잇었나이다.”

㉥“물 삼 년 길어 주소. 불 삼 년 때어 주소. 나무 삼 년 베어 주소.”

- 작자 미상, 「바리공주」

**25.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극적인 전환을 통해 미적 쾌감을 불러일으킨다.
- ② 인물과 배경이 설정되어 사건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 ③ 각 행의 율격이 일정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준다.
- ④ 이승의 삶 이후 상황을 상정하고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밝고 동적인 이미지와 어둡고 정적인 이미지가 대비되어 있다.

**26. (나)와 <보기>의 시적 화자의 태도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내 님물 그리스와 우니다니  
山(산)접동새 난 이숫흐요이다  
아니시며 거르르신들 아으  
殘月曉星(잔월효성)이 아르시리이다  
녁시라도 님은 혼디 녀저라 아으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過(과)도 허물도 千萬(천만) 업소이다  
물히마러신더 슬웃븐더 아으  
니미 나를 흐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정서, 「정과정」

- ①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 넘치는 데 비해, <보기>는 미래를 우울하게 관망하고 있다.
- ② (나)는 자신의 의지를 실제로 구현하고자 하는 데 비해, <보기>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나)는 자신의 현실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데 비해, <보기>는 시적 대상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④ (나)는 자연의 좋은 풍광 속에서 위안을 얻는 데 비해, <보기>는 자연 속에서 몰아일체의 삶을 동경하고 있다.
- ⑤ (나)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데 비해, <보기>는 문제를 해결한 후 지위의 상승을 추구하고 있다.

**27. <보기>의 설명을 참조하여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의 향찰 원문은 ‘此矣有阿米次盼伊遣’이다. 이에 대한 해독에서 학자 사이에 이견이 있다. 양주동은 ‘예 이사매 저히고’로, 김완진은 ‘이에 이사매 머뭇그리고’로 해독하였다.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와 우리말을 기록한 향찰에 대해 음독과 훈독의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른 해독이 나왔다.

- ① ㉦은 향찰에 대한 해독자의 관점이 반영되어 나온 것이다.
- ② ㉦은 차자(借字) 표기인 향찰로 기록된 것을 우리말로 해독한 것이다.
- ③ ㉦의 ‘예’는 ‘이에’와 같이 두 음절로도 해독할 수 있다.
- ④ ㉦의 ‘이사매’는 이론의 여지가 많지 않은 해독이다.
- ⑤ ㉦의 ‘저히고’는 ‘머뭇그리고’로 달리 해독되기도 하지만 뜻은 같다.

28. 문맥상 ㉠과 ㉡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 모두 식물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 ② ㉠과 ㉡ 모두 원관념에 대한 보조 관념에 해당한다.
- ③ ㉠에는 ㉡에 비해 더 능동적인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 ④ ㉠에는 ㉡에 비해 사물의 동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⑤ ㉡은 ㉠에 비해 사물의 색채 이미지가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하늘이 내리신 아기를 버린 죄로 양전마마가 동시에 죽게 된다는 뜻이다.
- ② ㉡: 부모에게 버림받은 원망을 묻어 둔 채 효행의 길을 나서겠다는 뜻이다.
- ③ ㉢: 왕과 왕비의 명령과 결정에 의한 행동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말이다.
- ④ ㉣: 사람에게 두려우면서도 친근한 느낌을 주는 걸모습을 형용한 말이다.
- ⑤ ㉤: 부모 봉양을 위해 희생해야 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맹자가 말씀하였다.  
 “우산(牛山)의 나무가 일찍이 아름다웠는데 대국의 교외이기 때문에 도끼와 자귀로 매일 나무를 베어 가니 재목이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낮과 밤에 자라남과 우로(雨露)가 적셔 줌으로 싹이 나오는 것이 없지 않지만 또 소와 양이 뒤이어 방목됨으로써 저와 같이 헐벗게 되었다. 사람들은 우산이 헐벗은 것을 보고 그곳에는 일찍이 훌륭한 재목이 있지 않았다고 여기니, 이것이 어찌 우산의 본성이겠는가.  
 사람에게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서 어찌 인의(仁義)의 마음이 없으리오. 그렇지만 그 양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도끼와 자귀로 아침마다 나무를 베어 가는 것과 같으니, 이렇게 하고서도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낮과 밤에 자라남과 새벽녘의 기운을 받음에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함이 사람들 사이에 근접한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낮에 하는 소행이 이것조차 질곡(桎梏)하여 없어지게 하는 것이다. 질곡하여 이랬다저랬다 반복하면 밤의 기운이 보존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금수(禽獸)와의 거리가 멀지 않으리라. 사람들은 그 금수 같은 것을 보고 일찍이 훌륭한 재질(材質)이 있지 않았다고 여기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실정이겠는가.  
 그러므로 만약 잘 기를 수 있으면 사물마다 자라나지 않는 것이 없고, 만약 기르지 않으면 사물마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공자가 말씀하기를, ‘잡으면 보존되고 놓아 버리면 없어져서 나가고 들어옴이 일정한 때가 없어 방향을 알 수 없는 것이 오직 사람의 마음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자가 말씀하였다.  
 “‘양심’이란 본연의 선한 마음이니 곧 이른바 인의지심(仁義

之心)이란 것이다. ‘새벽녘의 기운’이란 사물과 접하지 않았을 때의 청명한 기운을 이른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함이 사람들 사이에 근접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똑같이 옮겨 여기는 바를 말한다. ‘얼마 되지 않음’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질곡’은 형틀이다. ‘이랬다저랬다 반복함’은 말이나 행동을 이랬다저랬다 하며 자꾸 되풀이함이다.

사람의 양심이 이미 방실(放失)되었으나 낮과 밤의 때에 또 한 번 다시 자라나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새벽녘에 사물과 접하지 않아서 그 기운이 청명할 때에는 이 양심이 반드시 발현되는 것이 있다. 다만 그 발현됨이 지극히 미미한데 낮에 행하는 불선(不善)이 잇따라서 질곡하여 없어지게 하니, 이것은 마치 산의 나무를 이미 베어 갔으나 오히려 싹이 돌아났는데 또 소와 양이 뒤미처 방목되는 것과 같다. 낮에 하는 소행이 불길같이 성하게 일어나면 반드시 밤에 자라나는 바를 해치고, 밤에 자라나는 바가 적어지면 또 낮에 하는 나쁜 행위를 이기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이랬다저랬다 반복하며 서로 해쳐서 새벽녘의 기운도 청명하지 못해서 인의의 양심을 보존할 수 없는 데에 이른다.”

또 말씀하였다.  
 “공자가 말씀하기를, ‘마음을 잡으면 여기에 있고 놓으면 잃어버려서, 나가고 들어옴이 일정한 때가 없고 또한 정처(定處)가 없다.’고 하였다. 맹자가 이를 인용하여 마음이神明(神明)하고 측량할 수 없어 위태롭게 움직여 편안하기 어려움이 이와 같으니, 잠시라도 기르지 않아서는 안 됨을 밝힌 것이다.”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마음이 어찌 나가고 들어옴이 있겠는가. 잡음과 놓음을 가지고 말씀하였을 뿐이니, 마음을 잡는 방법은 공경하여 그것을 곧게 하는 것일 따름이다.”  
 스승에게 들으니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이 장의 뜻이 가장 요긴하고 절실하니 배우는 자들은 마땅히 익숙하게 음미하고 깊이 살펴야 할 것이다.”

[부주(附註)]  
 범순부의 딸이 『맹자』의 「조존장(操存章)」을 읽고 말하기를, “맹자는 마음을 모르셨다. 마음이 어찌 나가고 들어옴이 있겠는가.”라고 했는데, 이천(伊川) 선생은 그 말을 듣고 말씀하기를, “이 여자가 비록 맹자는 몰랐으나 도리어 마음은 알았다.”라고 하였다.

30. 윗글에 나온 인물들의 발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공자: 사람의 마음은 잡아 두지 않으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른다.
- ② 맹자: 사람이 낮 동안에 행하는 행위가 마음의 본성을 잃도록 만든다.
- ③ 주자: 청명한 기운으로 양심이 일어나면 나쁜 행위는 저절로 사라진다.
- ④ 정자: 공경하여 마음을 곧게 하는 것이 마음을 잡는 방법이다.
- ⑤ 범순부의 딸: 마음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31. ㉠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장에 상응하는 비유를 사용하여 설득하고 있다.
- ② 여러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조목별로 제시한 근거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고 있다.
- ④ 주장을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 ⑤ 주장을 먼저 내세운 다음,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2. 윗글의 내용을 실천한 옛 선비들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실행에 옮기고자 하였다.
- ② 본래의 마음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려 하였다.
- ③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면서 항상 의식이 깨어 있고자 하였다.
- ④ 모든 일에 대해 공경하는 자세로 마음을 바르게 갖도록 하였다.
- ⑤ 혼자 있을 때에도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조심하고 삼갔다.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 한림은 입궐하고 집이 고요한데 사 부인이 홀로 책상을 의지하여 고서(古書)를 보더니, 시비 춘당이 아뢰었다.  
 “화원의 작은 정자에 모란꽃이 성히 피었사오니 한번 구경하소서.”  
 부인이 즉시 책을 덮고 시비 5, 6인을 데리고 정자에 이르렀다. 버드나무 그들은 난간을 가리고 꽃향기는 옷에 스미니 짐짓 아름다운 경치였다. 사 부인이 시비를 명하여 교씨를 청하여 봄 경치를 구경하고자 하더니, 문득 바람결에 거문고 타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맑고 처절하여 진주가 옥쟁반에 구르는 듯하여 사람의 마음을 요동하였다. 좌우에게 물었다.  
 “이 거문고를 누가 타느냐?”  
 시비가 대답하였다.  
 “교 남자의 재주로소이다.”  
 “교씨가 음률을 알디냐?”  
 “백자당이 정당과 거리가 멀어 부인은 모르시려니와 저희는 종종 남자의 거문고 타고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할 즈음에 거문고 소리 그치고 고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늘, 부인이 고개를 숙이고 듣다가 한참 후 시비 춘당에게 말을 전하도록 하였다.  
 “마침 일이 없어 화원에 이르러 풍경을 구경하더니 남자는 한걸음을 아끼지 말라.”  
 교씨가 놀라 즉시 왔다. 부인이 자리를 주고 함께 꽃을 구경하며 차를 마셨다. 부인이 교씨에게 말했다.  
 “남자가 재주 많은 줄은 알았거니와 음률에 정통함은 몰랐더니, 아까 거문고 소리를 들으니 죽히 채문희로 하여금 홀로 아름답다 하지 못하리다.”  
 교씨가 대답하였다.  
 “천한 재주에 무엇을 잘하리까마는 심심하였으므로 혼자 즐기더니, 부인이 들어 계시니 황공하옵니다.”  
 “내가 남자로 더불어 정이 가슴속에 있고 의는 봉우(朋友)

라. 한마디를 하고자 하니니 어떠한가?”  
 “부인의 가르치심이 있사오면 천첩의 다행일까 하나이다.”  
 “남자가 탄 곡조는 당나라 시절 <예상우의곡>이라. 이 곡조를 요즘 사람이 많이 타나 실은 당 현종이 서촉(西蜀) 지방으로 도망하고 양 귀비가 마외의 역에서 죽어 비웃음이 후세에 그치지 않았으니, 이는 망국의 음악이라 본디 취할 것이 아니네. 또 그대의 거문고 소리와 노랫소를 원근 사람이 들으면 여자의 도리에 합당하지 못할 것이네. 그대가 어질므로 도리를 행하여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엄히 가르치며 하인을 은혜로 다스리면, 이 반드시 여자의 덕행이니 남자라도 거문고를 타는 것은 바르지 못한 사람이 하는 바이라. 그대가 어진 도리로 잠시 의 과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매 내가 그대의 어쭙을 아름다이 여겨 이르나니 너무 허물하지 말게나.”  
 ㉠“소첩이 배운 것이 적어 잘못함을 깨닫지 못하였더니, 부인에게서 이르시니 가슴에 새겨 잊지 않으리다.”  
 부인이 또 교씨를 위로하여 말하였다.  
 “내가 남자를 사랑하는 까닭에 심곡(心曲)을 감추지 못한 것이니 이후에 나의 허물이 있거든 또한 일러 깨닫게 하게.”  
 그러고는 종일토록 담소하다가 자리를 과하였다.  
 유 한림이 조정의 일을 마친 후 백자당에 이르렀다. 술이 취하여 자지 못하고 난간에 기대어 주위를 완상하니 달빛은 낮과 같고 꽃 그림자가 하늘거렸다. 호탕한 흥이 일어나 교씨를 명하여 노래를 부르라고 하였다. ㉡교씨가 말하였다.  
 “찬바람에 몸이 아파 부르지 못하나이다.”  
 “여자의 도리는 남편의 명을 따르는 것이거늘, 내가 노래를 부르라 하였더니 핑계를 대니 여자의 도리 아니라.”  
 “아까 심심하기로 노래를 불렀더니 부인이 듣고 불러 책망하되, ‘네가 요괴로운 노래로 집안을 어지럽히고 한림을 미혹하게 하는구나. 이후에 또 부르면 내게 혀를 끊는 칼도 있고 병어리 되는 약도 있으니 이후로는 삼가고 조심하라.’ 하셨나이다. 첩이 본래 빈한한 계집으로 상공의 은혜를 입어 부귀영화가 이와 같으니 비록 죽으나 한이 없을 것이로되, 다만 상공의 청덕이 첩으로 인하여 흠사(欠事)가 될까 하나이다.”  
 한림이 크게 경아(驚訝)하여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저가 항상 투기를 앓노라 하고 교씨 대접하기를 후하게 하여 교씨의 단점을 이룬 적이 없더니, 이제 교씨의 말을 들으니 집안에 무슨 연고가 있도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33. 윗글에 나오는 인물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 부인과 교씨는 유 한림에게 치와 첩인 관계이다.
- ② 사 부인과 교씨는 서로에게 말하는 어투에 차이가 있는 관계이다.
- ③ 교씨는 유 한림과 사 부인 앞에서 공손하게 대하는 관계에 있다.
- ④ 유 한림은 사 부인에게 친근하고 교씨와 거리를 두는 관계에 있다.
- ⑤ 춘당은 사 부인과 교씨 중에서 사 부인을 주인으로 모시는 관계에 있다.

34. [A]에 나타난 사 부인의 음악에 대한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음악의 유래를 알고 즐긴다.
- ② 음악에 심취하는 것은 여자의 도리에 합당하지 않다.
- ③ 사람의 감정을 숨김없이 표현한 음악이 좋은 음악이다.
- ④ 혼자서 조용하게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 ⑤ 아내로서 남편의 즐거움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필요하다.

35. 문맥상 ㉠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靑山裏(청산리) 碧溪水(벽계수) | 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一到滄海(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오니  
明月(명월)이 滿空山(만공산)하니 수여 간들 엇더리  
- 황진이의 시조

- ① ㉠은 <보기>에 비해 감정의 노출이 더욱 강하게 표현되었다.
- ② ㉠은 <보기>에 비해 화자의 의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 ③ <보기>는 ㉠에 비해 인물의 형상화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④ ㉠과 <보기>는 문면에 나타난 의미 외에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다.
- ⑤ ㉠과 <보기>는 상대나 청자에 대해 같은 등급의 경어가 사용되었다.

36. ㉡을 비판하는 한자 성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연목구어(緣木求魚)                      ② 적반하장(賊反荷杖)
- ③ 교언영색(巧言令色)                      ④ 침소봉대(針小棒大)
- ⑤ 표리부동(表裏不同)

37. ㉢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 한림은 교씨의 말을 사 부인에 대한 모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② 유 한림은 교씨의 말과 태도에 대해 불신하면서도 화를 참고 있다.
- ③ 유 한림은 사 부인의 마음이 변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노여워하고 있다.
- ④ 유 한림은 사 부인의 예전의 행동과 말에 대해 의심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 ⑤ 유 한림은 교씨의 말과 사 부인의 말을 견주어 보아 진상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④숙의\*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민주주의의 질을 개선하려는 정치적 접근법의 특징을 드러낸다. 참여 그 자체를 위해 정치 참여를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 참여의 본질과 방식을 제고하는 것이 과제이다. 흔히 현대 민주주의가 대중적 유명인사 정치, 사운드 바이트\*\* 식 논쟁, 사적 이익과 야망의 추구 등으로 전락해 버린 데 대해, 그 주창자들은 계몽된 논쟁, 이성의 공적 사용, 진리의 불편부당한 추구 등을 지지한다. 그들이 중시하는 것은 정제되고 사려 깊은 선호이다. ㉠오페

와 프로이스는 ‘합리적인’ 정치적 의사나 판단은 세 가지 기준, 즉 ‘사실을 중시’하고 ‘미래를 중시’하고 ‘타인을 중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정치적 판단에 결함이 있다면, 대개 이런 기준 중 어느 하나에서, 가령 무지하거나 근시안적이거나 이기적인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 음과 같은 쟁점이 제기된다. 민주주의 이론은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여러 정치적인 선호를, 확고하게 형성된 것 또는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아니면 정치적 의사의 본질이 어떠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도록 이끌어야 하는가. 만일 후자라면 정치적 의사는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해야 하는가.

이런 논점은 사려 깊은 선호에 대한 관심이 엘리트주의적인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작동에 혁신적인 사고를 가져올 것인가와 관련된다. 달리 말해, 민주적인 공공선 개념은 개인들이 지닌 선호의 취합물일 뿐인가, 아니면 진지한 공적 논쟁이나 숙의를 통해 표출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오페와 프로이스는 ‘참여가 증가하는 만큼 합리성도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정치 참여의 범주를 확대하는 문제나 민주주의 확산의 영역들을 재고하는 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 이론의 과제가 아니다. 현재 과제는 ‘숙고를 거친, 사회적으로 입증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 선호가 형성되도록 장려하는 ㉡제도나 절차의 도입’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현대 정치의 문제점은 숙의 민주주의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피시킨은 대규모 유권자 속에서 발견되는 공적 생활에 대한 무관심, 정당 및 통치 집단의 엘리트주의 등을 비판하였다. 현대 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평등하지만 상대적으로 무능한 대중과 정치적으로 불평등하지만 상대적으로 유능한 엘리트 사이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배제된 집단의 선거권 확보같이 더 큰 평등을 향한 역사적 추세는 대규모의 불참 및 무관심을 동반하였다. 투표권이 확대되었어도 투표율은 하락해 왔고 민주적 토론은 대개 피상적이며 그 결론은 지식·정보의 부족하에 경솔하게 이루어진다. 유권자들은 소외, 이탈, 자기만족 등을 겪으면서 정치 과정에서의 단절감을 드러낸다. 정책보다 정치인에 대한 강조가 미디어에 쫓은 선거판을 지배하고 사운드 바이트가 논쟁을 대신하며 유명인사의 인기가 신념에 입각한 정치 주장을 대체한다고 한다.

피시킨은 미국과 유럽을 지배하는 엘리트들이 광범위한 정치 논쟁 과정이나 문제들로부터 점점 분리된다고 한다. 정책의 원칙을 탐구하거나 정책 방향을 숙의하기보다는 기존 견해나 이해관계에 정책을 맞추려는 여론조사나 표적 집단 면접 등과 같은 마케팅 기법이 정책 과정을 엄습한다. 엘리트들은 유권자를 예측하려는 시도를 통해 정치를 운영한다. 민주주의 이론들에서 발견되는 이성, 논쟁, 불편부당성에 근거한 공적 영역의 이상은 엘리트와 정당이 여론조사에 의존하면서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숙의 민주주의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공적 숙의가 정당한 정치적 의사 결정이나 자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일군의 견해’로 정의된다. 숙의 민주주의자들은 정치적 정통성이 투표 결과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공적 결정에 대해 옹호 가능한 이유와 설명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들의 목표는 숙의 과정을 통해 사적인 선호를 공적인 조사나 검증에 건널 수 있는 입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코헨은, 민주적 결사체란 ‘결사를 맺는 계약 조건의 정당화가 공적인 논쟁과 논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숙

에서 시민들은 '자유로운 공적 속의 의 틀을 자신들이 제정할 수 있는 한에서 그 제도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속의는 어떤 우월적 규범이나 권위에 의해 제약되지 않을 때 자유로울 수 있다. 시민들은 자신의 선호를 공개적으로 정당화할 준비 없이 단순히 선호만을 표명할 수 없다. 이런 이상이 실현되려면 권력, 부, 교육 등 자원의 불평등에 따른 왜곡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리적 동기에 의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정치 모델은 시민들이 형식과 실질 양면에서 평등을 누릴 것을 요구한다. 평등한 시민들 사이의 자유로운 속의를 통해 정치적 정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설치, 조정해야 한다고 한다.

\*속의(熟議): 깊이 생각하여 의논을 거듭함.

\*\*사운드 바이트: 정치인의 연설 중에서 뉴스 프로그램에 방송되는 짧은 한마디 문장이나 구절.

- ④ 육아 설비 실태를 재검토하여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공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
- ⑤ 쟁점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참조하고 참가자들 간의 토의 후에 나온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여론 조사를 한다.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동안 무얼 하며 지내느냐는 원구의 물음에 동욱은 끼고 온 보자기를 끄르고 스크랩북을 펴 보이는 것이었다. 몇 장 별컹컹 뒤지는데 보니, 서양 여자랑 아이들의 초상화가 드문드문 붙어 있었다. 그 견본을 가지고 미군 부대를 찾아다니며, 초상화의 주문을 맡는다는 것이었다. ㉠대학에서 영문과를 전공한 것이 아주 헛일은 아니었다고 하며 동욱은 닳글닳글 웃었다. 동욱의 그 닳글닳글한 웃음을 원구는 이전부터 몹시 꺼렸다. 상대방을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자조적이에요, 어쩐지 친애감조차 느껴지는 그 닳글닳글한 웃음은, 원구에게 어떤 운명적인 중압을 암시하여 감당할 수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대체 그림은 누가 그리느냐니까, 지금 여동생 동욱이와 둘이 지내는데, 동욱은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하더니 초상화를 곧잘 그린다는 것이다. 동욱이란 원구의 귀에도 익은 이름이었다. 소학교 시절에 동욱이네 집에 놀러 가면 그때 대여섯 살밖에 안 되는 동욱이가 귀찮게 졸졸 따라다니던 기억이 새로웠다. 동욱은 그 당시 아이들 사이에 한창 유행되었던, '중중 때때중 바랑 메고 어디 가나'를 부르고 다녔다. 그 사이 이십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보니 동욱의 모습은 전연 기억도 남지 않았다. 동욱의 말에 의하면 지난번 1·4후퇴 당시 데리고 왔는데, 요새 와서는 짐스러워 후회될 때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남편은 못 넘어왔느냐니까, 필입때 처년데, 했다. 지금 몇 살인데 미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원구는 혼기가 지난 동욱이나 자기 자신도 아직 독신인 걸 생각하고, 여자도 그럴 수가 있을 거라고 속으로 주억거리며 그는 입을 다물었다. 동욱의 나이가 지금 이십이륙 세가 아닐까 하고 원구는 지나간 세월과 자기 나이에 비추어 속어림으로 따져 보는 것이었다. 술에 취한 동욱은 다자꾸 원구의 어깨를 한 손으로 두들기거리며, 동욱이년이 정말 가없어, 암만 생각해도, 그 좋기며 인물이 아까워, 그런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다시 잔을 비우고 나서, 할 수 있나 모두가 운명인 걸 하고 고개를 흔드는 것이었다. 동욱은 머리를 떨어뜨린 채, ㉡내가 자네람 주저 없이 동욱이와 결혼할 테야, 암 장담하구말구, 혼잣말처럼 그렇게도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종잡을 수 없는 동욱의 그런 말에 원구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면서, 암 그럴 테지, 하며 ㉢동욱의 손을 쥐어 흔드는 것이었다.

동욱은 음식점을 나와 헤어질 무렵에 두 손을 원구의 양 어깨에 얹고 자기는 꼭 목사가 되겠노라고, 했다. 그것이 자기의 갈 길인 것 같다고 하며 이제 새 학기에는 신학교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었다. 어깨가 축 늘어져서 걸어가는 동욱의 초라한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서 원구는 또다시 동욱의 과거와 그 집안을 그려 보며, ㉣목사가 되겠노라고 하면서도 술을 사랑하는 동욱을 아껴 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중략)

비 오는 날인데다가 창문까지 거적때기로 가리어서 방 안은 굴속같이 칙칙했다. 다다미 여덟 장 깔리는 방 안은, 다다미 위에는 시멘트 종이로 장관 바르듯 한 것이었다. 한켠 천장에서는 쉼 사이 없이 빗물이 떨어졌다. 빗물 떨어지는 자리

38. ㉠~㉣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 정치적 판단이 사실에 대해 무지하거나 장래의 일까지 생각하지 못한다면 결함이 있는 것이다.
- ② ㉡: 참여가 많을수록 합리성이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속고를 거쳐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선호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 ③ ㉢: 오늘날 유권자들은 정치 과정에서의 단절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만족을 추구한다.
- ④ ㉣: 현대 정치는 유권자들이 정치 과정에서 소외되고 논쟁다운 논쟁 없이 정책보다 정치인의 인기도가 정치적 주장을 대체하고 있다.
- ⑤ ㉤: 정책 수립에는 어떤 규범이나 권위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 속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 동기에 따른 합의가 요구된다.

39. ㉤를 지지하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독특한 사회 관습이나 규칙, 관습적인 인간관계의 방식 등에 따라서 논쟁과 논증의 관행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 ② 공적 선택을 둘러싼 갈등은 인간사에서 제거될 수 없으며 이기적인 정치 행위자가 속의를 통해 이타적 인간으로 바뀔 수 없다.
- ③ 어떤 사실을 적절한 것으로 간주할지는 이전의 개념 선택에 의해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에 호소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지 못한다.
- ④ 불편부당함의 기준을 두고 토론하면서 좀 더 나은 결론을 추구하게 되면, 토론의 상대방이 가진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 ⑤ 다수파의 견해란 어느 특정 선거 시점에서 논의의 균형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보여 주는 지표일 따름이기 때문에 논의가 계속되어야 함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0. ㉤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정한 날을 잡아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이 학교나 공회당에 모여 후보 선택에 대해 논의를 한다.
- ② 시민들에게 공적 논증과 정치적 선택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 ③ 인터넷을 활용하여 일반 시민들에 의해 제기되고 검증된 혁신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하고자 한다.

에는 바깥에 놓여 있었다. 출렁출렁 흐르듯 출렁, 빗물은 이와 같은 연속적인 음향을 남기며 바깥 안으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무덤 속 같은 이 방 안의 어둠을 조금이라도 구해 주는 것은 그래도 빗물 소리뿐이었다. 그러나 그 빗물 소리마저, 바깥에 차츰 물이 늘어 갈수록 우울한 음향으로 변해 가는 것이었다. 동욱은 별로 원구와 동욱을 인사시키거나 소개하려 하지 않았다.

**(중략)**

그 뒤로는 비가 와서 가게를 벌일 수 없는 날이면 원구는 자주 동욱이네 집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불구인 그 신체와 같이, 불구적인 성격으로 대해 주는 동욱의 태도가 결코 대견할 리 없으면서도, ㉡어느 알곳은 힘에 조종당하듯이, 원구는 또 다시 찾아가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었다. 침침한 방 안에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일까? 동욱의 가늘고 짧은 한쪽 다리가 지니고 있는 슬픔에 중독된 탓일까? 이도 저도 아니면, 찾아갈 적마다 차츰 정상적인 데로 돌아오는 동욱의 태도에 색다른 매력을 발견한 탓일까? 정말 동욱의 태도는 원구가 찾아가는 횟수에 따라 현저히 부드러워지는 것이었다. 두 번째 찾아갔을 때 동욱은 원구를 보자 얼굴을 붉혔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였다. 세 번째 찾아갔을 때는 원구를 보자 동욱은 해죽이 웃어 보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우울한 미소였다. 찾아갈 때마다 달라지는 동욱의 태도가 원구에게는 꽤 반가운 것이었다. 인사불성에 빠졌던 환자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때처럼 고맷다. 첫 번 불렀을 때는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반응도 없던 환자가, 두 번째 부르자 눈을 간신히 떴고, 세 번째 불렀을 때는 제법 완전히 눈을 떠서 좌우를 둘러보다가 물 줌, 하고 입을 열었을 경우와 같은 반가움을 원구는 동욱에게서 경험하는 것이었다.

- 손창섭, 「비 오는 날」

**41.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통해 인물의 과거를 폭로하고 있다.
- ② 서술자는 한 인물의 시각을 중심으로 작중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에 대한 독자의 판단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직접 제시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서술자는 극한적 상황에 처한 인물들의 반응을 반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42.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욱은 극도의 무력감에 빠져 생활고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다.
- ② 원구와 동욱은 굳건한 사랑으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
- ③ 동욱과 동욱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방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동욱은 참담한 상황에서도 밝은 웃음을 잃지 않고 낙관적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 ⑤ 원구는 동욱에게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도 그를 인간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43. ㉠~㉡의 문맥적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동욱은 자신이 하는 일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함을 드러낸다.
- ② ㉡: 동욱이 뛰어남을 내세워 원구에게 결혼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 ③ ㉢: 동욱의 처지를 동정하여 무슨 말이든 일단 동조해 주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④ ㉣: 동욱의 모순된 태도가 현실에서의 삶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임을 암시한다.
- ⑤ ㉤: 원구도 자신이 왜 그러는지 명확히 깨닫지 못한 상태임이 드러난다.

**44. ㉡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들이 삶의 안정감 없이 살아야 하는 비참한 상황을 상징한다.
- ②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물들에 대한 도덕적인 동정심을 의미한다.
- ③ 부조리한 상황에 처한 인물들이 지향하고 있는 삶의 목표를 상징한다.
- ④ 고단한 피난 생활에서도 빗물 소리를 통해 위안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 ⑤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이 모두 충족되어야 행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5. <보기>에 견주어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다 쭈뼛쭈뼛 **흘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이의 길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 살이 되자.

-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 ① 동욱이 동욱을 떠나가려고 하는 것은 그녀가 ‘흘날리는 진눈깨비’처럼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이야.
- ② ‘바람 불고 춥고 어두운’ ‘세상’에서 동욱은 동욱에게 정신적인 의지처가 되고 있어.
- ③ ‘낮은 곳’에 있던 동욱에게 원구가 ‘함박눈’처럼 다가왔음을 그녀의 태도 변화를 통해 알 수 있어.
- ④ 동욱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잠 못 든 이’에게 온 ‘편지’와 같이 동욱에게 위안을 주는 행위였어.
- ⑤ 원구는 신학교에 가고자 하는 동욱에게 ‘상처 위에 돋는 새 살’처럼 살아갈 용기를 주는 존재야.

**※ 확인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2019학년도 경찰대학 1차시험 (국 어)

※ 총 12쪽 45문항(2점 35문항, 3점 10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 1. 다음 중 어법에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① 영수는 웃으면서 다가오는 다희의 손을 잡았다.
- ② 이 샴푸는 두피 건강과 비듬에 좋은 제품입니다.
- ③ 동일 하자로 고장 발생 시 3회까지는 무료로 수리해 드립니다.
- ④ 체중 관리를 위해 주중에는 헬스를, 주말에는 북한산에 오른다.
- ⑤ 서울을 떠나 대전을 경유한 열차가 곧 우리 역에 도착해 왔습니다.

## 2. 구어체를 문어체로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  
→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
- ② 수많은 군중들이 뭘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 수많은 군중들이 무얼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 ③ 대통령하고 사무총장이랑 만나서 비밀리에 의제를 상정했다.  
→ 대통령하고 사무총장이 만나서 비밀리에 의제를 상정했다.
- ④ 끼니때가 되면 식탐이 많은 그는 늘 자기가 먼저 먹으라고 했다.  
→ 끼니때가 되면 식탐이 많은 그는 늘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했다.
- ⑤ 김 과장은 최 대리보고 점심시간 전까지 보고서를 내라고 지시했다.  
→ 김 과장은 최 대리에게 점심시간 전까지 보고서를 내라고 지시했다.

## 3. <보기>를 바탕으로 모음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국어의 단모음 분류표]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ㄱ	ㅡ	ㅓ
중모음	ㅔ	ㅕ	ㅖ	ㅗ
저모음	ㅙ		ㅚ	

- ① '그리고 > 그리구'에서의 모음 변동은 입술 모양만 달라지는 변동이군.
- ② '지팡이 > 지팽이'에서의 모음 변동은 혀의 전후 위치만 달라지는 변동이군.

- ③ '블 > 불'에서의 모음 변동은 혀의 전후 위치와 입술 모양이 달라지는 변동이군.
- ④ '거죽 > 가죽'에서의 모음 변동은 혀의 높낮이와 입술 모양이 달라지는 변동이군.
- ⑤ '윗어른 > 웃어른'에서의 모음 변동은 혀의 전후 위치와 입술 모양이 달라지는 변동이군.

## 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제2절 구개음화**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ㅌ, ㅎ'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 <u>말</u> 이	마지	㉡ <u>㉠</u>	할치다
해돋이	해도지	걸히다	거치다
굳이	구지	닫히다	다치다
㉢ <u>같</u> 이	가치	묻히다	무치다
㉣ <u>끝</u> 이	끄치	㉤ <u>ㅏ</u>	홀치다

- ① ㉠은 모두 단어가 될 수 없는 형태소에 해당하는군.
- ② ㉡와 ㉢은 어근이 ㉠과 결합하여 모두 새로운 품사로 바뀐 것이군.
- ③ ㉣에 들어갈 어형은 접미사 '-이-'가 결합해 생긴 것이군.
- ④ ㉤, ㉥를 보니 선행 음절의 받침이 같아도 구개음은 다르게 실현되는군.
- ⑤ ㉦에 들어갈 어형으로는 '홀히다'가 있군.

## 5.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어떤 형태소가 그 주위 환경에 따라 음상(音相)이 달라지는 현상을 교체(交替)라고 하며, 교체를 통해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나타나는 형식들 각각을 그 형태소의 이형태(異形態)라고 한다. 가령, '믿다'의 '믿-'의 경우, '믿고, 믿어'에서는 [믿-]으로 나타나나 '믿는다'에서는 [민-]으로 나타난다. 즉, '믿-'은 {믿-}과 {민-}을 그 이형태로 갖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값이, 값도, 값만'과 같은 경우의 '값'은 각각 {㉧}, {㉨}, {㉩}의 이형태를 갖는다.

- |   |   |   |   |
|---|---|---|---|
|   | ㉧ | ㉨ | ㉩ |
| ① | 값 | 값 | 값 |
| ② | 값 | 값 | 값 |
| ③ | 값 | 값 | 값 |
| ④ | 값 | 값 | 값 |
| ⑤ | 값 | 값 | 값 |

6.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                                  ㉢

빨랫줄[빨래줄/빨래줄]    빨래집게[빨래집게]    빨래터[빨래터]

※ [ ]는 표준 발음법에 따른 발음임.

- ① ㉠, ㉡, ㉢은 모두 복합어에 속한다.
- ② ㉠, ㉡, ㉢은 모두 직접 구성 요소 중 앞의 요소가 뒤의 요소를 꾸민다.
- ③ ㉠, ㉡에는 사잇소리 현상으로 인한 경음화가 존재한다.
- ④ ㉠, ㉢을 이루는 각각의 직접 구성 요소들은 모두 어근이다.
- ⑤ ㉡을 이루는 구성 요소의 총수는 세 개다.

7. <보기>의 ㉠에 해당하는 단어가 쓰인 문장이 아닌 것은?

<보기>

우리말의 명사형 어미 '-ㅁ/음'과 '-기'는 용언 어간에 붙어 그 용언이 문장에서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든다. 그런데 파생 접미사 중에도 '-ㅁ/음'과 '-기'가 있어서 ㉠ 용언의 명사형과 파생명사가 같은 모양이 되어 그 둘을 혼동하기 쉽다.

- ① 자신을 믿음으로써만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 ② 중임을 맡기기에는 아직 그가 젊음도 고려해야만 한다.
- ③ 영수는 선하게 웃음으로써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을 멋쩍게 했다.
- ④ 과묵한 그는 상대의 약점을 잘 앞에도 불구하고 절대 내색하지 않았다.
- ⑤ 남에게 진 신세에 대하여 적절한 갚음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8. <보기>의 특성을 가진 단어가 사용된 문장만으로 짝지은 것은?

<보기>

가. 선행 용언과 연결되어 그 뜻을 보충한다.  
나. 선행 용언의 어미는 대체로 '-아/어, -게, -지, -고'로 한정되나 '-ㄴ/은가, -ㄹ/을까, -(으)면' 등이 오기도 한다.

- ① [ 밤의 날씨가 매우 더운가 보다.  
이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렴.
- ② [ 공을 차다 장독을 깨 먹었다.  
여름철에는 음식을 잘 익혀 먹자.
- ③ [ 막내 동생이 참 예쁘게 생겼다.  
한겨울에 길바닥에 나얇게 생겼구나.
- ④ [ 이것 말고 저것을 주시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말겠다.
- ⑤ [ 이것 좀 너희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렴.  
나는 주말마다 어머니 일을 거들어 드린다.

9.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과 ㉡에 해당하는 <자료>의 용례들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우리는 어떤 대상을, 그것의 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말을 빌려서 표현하기도 한다. 가령, '손이 모자라다.'의 '손'은 ㉠ 대상의 일부로 그 전체를 나타낸 것이며, 우리 민족을 '흰옷'으로 표현한 것은 ㉡ 대상과 관련된 속성으로 그 대상 자체를 나타낸 것이다.

<자료>

가. 주전자가 끊는다.  
나. 그 친구를 전화번호부 속에서 찾아냈다.  
다. 그 대학에는 훌륭한 두뇌들이 모여 있다.  
라. 이번 전국 대회에서는 우리 학교가 우승했다.  
마. 당시 청년들은 군홧발에 짓밟히면서도 자유를 외쳤다.

- |   |      |      |
|---|------|------|
|   | ㉠    | ㉡    |
| ① | 가, 나 | 다, 라 |
| ② | 나, 다 | 마    |
| ③ | 다    | 마    |
| ④ | 다, 마 | 가    |
| ⑤ | 라    | 나, 마 |

10. <보기>를 참고할 때 ㉠과 같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무더운 여름날 선생님께서 창문이 닫혀 있는 교실에 들어오셔서 학생들에게 "덥구나."라고 하셨다. 이때 발화된 문장은 실제로 '방이 덥다'는 평서문의 의미뿐만 아니라 '창문을 열라'는 '명령'의 의미로도 해석된다. 따라서 이 발화를 들은 누군가가 창문을 열 수도 있다. 이렇듯 ㉠ 담화 상황에서는 발화된 문장의 유형과 그 발화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① [ 상황: 실수를 저지른 신입 사원에게 상사가  
발화: 다음번에는 잘 해.
- ② [ 상황: 친구와 놀다가 늦게 들어온 아이에게 어머니가  
발화: 도대체 지금 몇 시니?
- ③ [ 상황: 비 오는 날 어머니께서 현관문에 둔 우산을 가리키며  
발화: 비가 많이 오는구나.
- ④ [ 상황: 계산대 앞에서 주머니를 뒤적이며 친구에게  
발화: 어, 지갑을 까먹고 안 가지고 왔네.
- ⑤ [ 상황: 밤늦게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있는 룸메이트에게  
발화: 잠 좀 자자.

11. <보기>의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 ㉠ 꽃 ㉡ 도쿄 여름 하느니 (제2장)
  - 내히 이러 ㉢ 바르래 가느니 (제2장)
  - ㉣ 狄人入서리에 ㉤ 가샤 (제4장)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

- ① ㉠은 팔중성법이 철저히 지켜진 예이다.
- ② ㉡은 축약을 통한 음절 수 감소가 발생한 예이다.
- ③ ㉢은 분철 표기가 준수된 예이다.
- ④ ㉣은 주격 조사로 ‘ㅅ’이 실현된 예이다.
- ⑤ ㉤은 동사 어간에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한 것이다.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취향이 어느 순간 나의 취향이 되어서 그가 좋아하는 물건을 좋아하거나 즐겨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 중요한 물건을 살 때 인터넷에서 타인의 경험담을 참조하거나 그 분야에 능통한 주변인을 질문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타인이 개입되어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늘 타인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채운다.

이렇듯 타인의 욕망에 대한 모방에서 우리의 욕망이 생겨난다는 점을 주목한 이가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이다. 그는 ㉠ 인간이 갖는 욕구와 욕망을 철저히 분리하였는데, 그에게 욕구는 본능적으로 실제 대상을 향하는 실질적인 것인 반면, 욕망은 실제 대상 그 자체보다는 그 대상과 관련된 것을 향하는 관념적인 것이다. 이러한 구분에 입각하여 지라르가 전개한 모방 이론은 욕망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 줌으로써 인간 내면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 특히 이 이론은 인간 내면을 탐구하는 심리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프로이트의 심리학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보인다. 즉 욕망이 주체의 타고난 본능에서 나온다거나, 욕망을 대상에서 나오는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 보는 프로이트의 시각이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는 프로이트가 욕망의 주체 내부에서 나오는 리비도를 중시했던 반면, 지라르는 욕망하는 이의 모방 행위 그 자체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입각하여 지라르는 어떤 이가 주체적으로 특정 대상을 욕망한다고 믿는, 즉 ‘자발적 욕망’이라는 환상을 믿는 것은 바로 프로이트의 ‘낭만적 거짓’에 현혹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지라르는 대상을 소유하거나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 ㉡ 중개자를 통해서만이 욕망의 주체가 대상을 욕망할 수 있다고 보는 ‘비자발적 욕망’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지라르는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벗어나 ‘모방’을 중심으로 인간 내면을 분석하는 ‘새로운 심리학’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러한 주장은 자연스럽게 ‘개인’과 ‘자아’의 개념을 수정하는 데에 이른다. 즉, “심층적으로 보면 나의 비밀과 타인의 비밀 사이의 차이는 없다. 한 사람의 심층적 자아는 보편적 자아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지라르의 모방 이론을 입상에 적용해 큰 효과를 입증한 정신의학자 장-미셸 우구를리엥(Jean-Michel Oughourlian)은 고정된 것으로 간주되던 과거의 ‘자아’ 개념을 수정한다. 그는 “진정한 심리학적 사실은 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대칭적 교환과 만남의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지속적 창조 행위의 결과가 우리의 자아”라고 주장한다.

그가 생각하는 인간은 타인과의 만남에 영향을 받는 존재다. 이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모방’이다. 심리를 변화시키는 움직임은 욕망이라고 보는 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방적 욕망의 집결체가 바로 우리의 ‘자아’라고 인식한 것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인간 욕망은 새롭게 갱신되는 가변체이다. 그러므로 욕망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인 자아도 고정된 것이 아니다. 자아는 궁극적으로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운동 상태에 있다. 자아는 출생 시부터 결정된 것이 아니다. 기존 심리학과 갈라서게 되는 결정적 지점이 바로 이곳이다.

자아가 더 이상 고정 불변의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은 한 사람에게 하나의 자아만이 존재한다는 통념도 수정하게 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욕망과 마찬가지로 욕망의 산물인 자아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매번 새롭게 구조되기에 인간에게는 여러 개의 자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아울러 우리가 어찌하면 통념적으로 ‘자아’라 칭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1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라르는 개인의 자아가 심층적 차원에서는 보편성을 떨 수 있다고 주장했다.
- ② 우구를리엥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③ 주체적으로 특정 대상을 욕망한다고 믿는 것은 프로이트의 이론에 기댄 것이다.
- ④ 지라르는 주체와 욕망하는 대상의 직접 상호작용을 통해 욕망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 ⑤ 우구를리엥은 자아가 모방을 통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닌 유동적인 것이 된다고 보았다.

13. ㉠을 사례를 통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찾는 것은 욕망에 기인한 것이다.
- ② 식사 시간에 메뉴를 꼼꼼히 선택하는 행위는 욕구에 기인한 것이다.
- ③ 칸트를 흠모하는 철학도가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욕망에 기인한 것이다.
- ④ 유년 시절의 농촌 생활을 추억하기 위해 전원주택에 살고자 하는 것은 욕구에 기인한 것이다.
- ⑤ 텔레비전에서 좋아하는 연예인이 입은 옷을 보고 그것을 구매하려는 것은 욕구에 기인한 것이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욕망의 중개자는 영화의 주인공일 수도 있고 예술이거나 가치와 종교 혹은 정치적 신념 같은 것일 수도 있다. 중개자를 스승이나 영감을 주는 멘토로 인정할 때 우리는 중개자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런데 욕망의 중개자와 주체와의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중개자가 주체의 일상 안에 들어온 경우에는 존경의 마음이 약화된다. 특히 중개자를 통해 욕망하던 대상이 제한적일 경우, 주체는 중개자를 존경의 대상이 아닌 경쟁자나 적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 ① 주체가 ㉠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할 때 자신의 모방 행위를 중단하겠군.
- ② 욕망하는 주체와 ㉠의 심리적 거리감은 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군.
- ③ ㉠이 주체의 일상 안에 들어온 경우 욕망의 주체는 대상이 희소성을 떨수록 ㉠과 갈등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높겠군.
- ④ ㉠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욕망하던 대상에 대해 주체가 갖는 욕망은 점점 감소하겠군.
- ⑤ 주체가 ㉠을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하면 ㉠과 경쟁 관계를 형성하겠군.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노주인(老主人)의 장벽(腸壁)에  
무시(無時)로 ㉠ 인동(忍冬) 삼긴 물이 나린다.

㉠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 흙냄새 훈훈히 김도 사리다가  
바깥 풍설(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山中)에 책력(冊曆)도 없이  
㉣ 삼동(三冬)이 하이얗다.

-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나)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지 혼자 무력(無力)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어디 한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알맞은 바람 만나  
살머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엄동설한 칼별은 알고 있으나  
무르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 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아 지금 감춰 둔 누룩 뜨나니  
냄새 퍼지나니

- 이성부, 「누룩」

(다)  
소나무에 호박넙쿨이 올랐다  
씨앗 묻은 일도 모종한 일도 없는 호박이다

장정 셋의 하루 품을 빌려 이른 봄에 옮겨온 소나무,  
똥금없이 올라온 호박넙쿨이 솔가지들 덮쳐갔다  
일개 호박넙쿨에게 소나무를 내줄 수는 없는 일  
줄기를 걷어내려다 보니 애호박 하나가 곧 익겠다

싫어, 애호박 하나만 따고 걷어내기로 맘먹었다.  
마침맞은 애호박 따려다 보니 넙쿨은 또 애호박을 낳고  
고놈만 따내고 걸으려니 애호박은 또 애호박을 내놓는다  
소나무조차 솔잎 대신 호박잎을 내다가는, 싶더니 애호

호박넙쿨은 기어이 소나무를 잡아먹고 호박나무가 되었다

- 박성우, 「애호」

1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초연한 자세로 현실을 견뎌 내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나)는 자기희생과 타자와의 연대를 통해, 힘든 현실을 이겨 나가려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다)는 이질적인 대상 사이의 관계를 통해, 경계에 길들여진 인간의 의식을 반성하게 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자연의 생명력에 빚대어, 시련과 고통에 대응하는 삶의 자세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⑤ (가)와 (다)는 자연의 변화가 눈앞의 현실과 지향하는 현실 사이의 대립을 초래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16. 시적 맥락을 고려할 때, ㉠~㉣ 중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7.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와 (다)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 ② (나)와 (다)는 두 개의 대상 사이의 대립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대상의 외적 모습에서 화자의 내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다)는 반복적인 구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 ⑤ (다)와 달리 (나)는 대상의 변화를 비판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8.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문형 진술을 통하여 제재의 특징과 의미를 환기하고 있다.
- ② 다가올 상황을 가정하여 제재의 부정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상징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 ④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대상을 의인화하여 현실에 대한 알레고리적 기능을 드러내고 있다.

19.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박성우의 시는 자연과 생명의 공동체적 가치에 깊은 애착을 드러낸다.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탐구는 자본과 문명에 순응하는 인간 중심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문체의 식으로 심화된다. 즉 자연과 우주의 섭리 앞에서 모든 인간적 시점을 뒤로한 채 자연 그 자체를 주체로 세움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넘어선 본연의 생명성을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이다.

- ① “뜬금없이 올라온 호박넝쿨이 술가지를 덮쳐갔다”는 데서, 자연 그 자체를 주체로 세움으로써 인간적 시점을 성찰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는군.
- ② “일개 호박넝쿨에게 소나무를 내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인간 중심의 문화에 대한 화자의 초월적 태도를 보여 주는군.
- ③ “애호박 하나만 따고 걸어내기로 맘먹”어 보지만, “애호박은 또 애호박을 내놓는다”에서, 인간의 마음으로는 거스르기 힘든 것이 자연의 섭리라는 화자의 생각을 보여 주는군.
- ④ “소나무조차 솔잎 대신 호박잎을 내다가, 싶더니”에서, 자연이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화자의 생각을 보여 주는군.
- ⑤ “호박넝쿨은 기어이 소나무를 잡아먹고 호박나무가 되었다”는 데서, 화자는 자연 본연의 생명성이 경계와 대립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군.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과 도덕은 인간의 올바른 행위를 위한 규범이다. 양자는 개념상 구별이 가능하지만 서로 합치되는 부분이 많으며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덕은 법의 타당성의 근거인 동시에 목적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법질서는 도덕적 가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몇 가지 이론이 제시된 바 있다.

우선 법과 도덕은 상호 보완 관계를 지녀야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실제로 법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는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공통된 부분을 우리는 흔히 ‘윤리’나 ‘예(禮)’라고 지칭하곤 한다. “도덕이 결여된 법은 공허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법은 도덕을 바탕으로 할 때 강력한 규범성을 갖는다. 반대로 도덕적 ㉠ 지지를 받지 못하는 법은 법으로서의 가치와 타당성이 적어 그 존립의 기초 또한 약해진다. 사회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도덕에 저촉되는 법이 제정될 때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모든 도덕이 법제화될 수는 없고, 모든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 역시 온당하지 않다.

그래서 ㉡ 엘리네크(G. Jellinek)는 법과 도덕을 포함 관계로 설정하였다. 그는 법은 도덕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 실현을 강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고 보아, 법은 ‘도덕의 최소한(ethisches Minimum)’이라는 말을 남겼다. 이와 달리 ㉢ 슈몰러(G. Schmoller)는 법의 효력을 중시하여, 법에는 강제력이 있으므로 도덕보다는 실효성이 확고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도덕적 가치의 실현이 법을 통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법은 ‘도덕의 최대한(ethisches Maximum)’이라 하였다. 법과 도덕의 관계를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 이렇듯 상이한 견해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슈몰러의 견해와 같이 법을 통해 도덕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 ㉣ 자체가 도덕을 해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도덕적 요구를 법으로 시행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라도 이는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참된 이웃 사랑이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때로는 그 법 때문에 이웃 간에 위선과 역겨움이 야기될 수도 있다. 1794년에 제정된 프로이센의 ‘일반란트법(Allgemeines Landrecht)’ 제 179조에서는 부부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까지 법제화하였으나 강제규범으로 효력이 있는지는 의문시된다. 이렇듯 도덕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법제화한다고 해서 그 법이 모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 라드브루흐(G. Radbruch)는 “법은 도덕을 실현할 가능성과 동시에 부도덕을 실현할 가능성도 지닌다.”라고 지적하였다. 1919년에 제정된 미국의 ‘금주법(Prohibition Act)’은 도덕적 ㉥ 차원의 문제를 법의 강제력으로 실현하려 하였으나 법으로서의 규범적 기능을 상실하여 사문화된 대표적 사례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도덕적 ㉦ 허용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법과 도덕은 각각 고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만, 라드브루흐가 지적했듯이 “법의 도덕적 세계로의 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도덕규범의 법의 세계로의 귀화”를 동시에 지향하여 법과 도덕이 서로 보완 관계를 지닐 수 있도록 모색함으로써 강력한 규범성을 확보할 수는 있다. 도덕은 법의 목적이 되는 동시에 법에 의무를 주는 효력의 ㉧ 기초가 되는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법의 효력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지만, 법은 도덕적으로 승인될 때 더욱 강력한 규범이 될 수 있다. 법과 도덕의 개념은 각각 구별되더라도 양자는 사회 규범으로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한다는 공통의 목적과 사명을 갖고 있으므로, 상호 의존하고 보완하여 올바른 사회적 가치와 법규범의 실현에 이바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20.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론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이론이 지닌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② 이론들을 설명하면서 각각의 이론에 관련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 ③ 각각의 이론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과 연관 지어 이론들을 개관하고 있다.
- ④ 이론들을 검토한 후 특정 이론을 바탕으로 필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 ⑤ 이론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전 이론이 후대 이론으로 대체되는 경과를 서술하고 있다.

21. ㉠~㉣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에 비해 법 규범의 제정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다.
- ② ㉢은 ㉣에 비해 법 규범의 효과에 대해 확신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 ③ ㉣은 ㉠과 달리 법과 도덕의 영역을 포함 관계로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 ④ ㉠은 ㉡과 달리 법이 도덕에 비해 강제성과 실효성이 높다는 데에 회의적이다.
- ⑤ ㉠, ㉡, ㉣은 모두 법과 도덕이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2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프랑스 형법 제63조는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아니함에도 위험에 처해 있는 자를 구조하지 아니한 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도를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한 낯선 사람을 한 사마리아인이 돌보아 주었던 일화에 착안하여 이 법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편 우리 헌법 재판소는 2015. 2. 26. ㉡ 간통죄 위헌 결정에서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형법 제241조를 위헌이라 결정한 바 있다. 헌법 재판소는 부부 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비도덕적이기는 하나 법으로 처벌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① ㉡는 도덕적 가치의 실현이 법을 통해 가능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군.
- ② ㉡는 프로이센 ‘일반판트법’의 제179조나 미국의 ‘금주법’과 그 취지가 상통하는군.

- ③ ㉢는 도덕의 영역이 법의 영역보다 기본적으로 더 크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군.
- ④ ㉣는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반드시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보는 취지이군.
- ⑤ ㉡와 ㉣는 모두 도덕과 법이 공통의 목적과 사명을 띠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군.

23. ㉠~㉣의 문맥적 의미와 일치하는 것은?

- ① ㉠: 붕괴 위험에 처한 건물의 지식을 위해서 인부들이 철골 콘크리트로 구조물을 구축하고 있다.
- ② ㉡: 그 자체는 특이한 것이었지만 현실성이 없었다.
- ③ ㉢: 기하학에서는 3차원인 입체 도형을 넘어서는 무한 차원까지가 고려된다.
- ④ ㉣: 우리 팀은 선제품의 허용에도 굴하지 않고 전열을 정비해 반격에 나섰다.
- ⑤ ㉣: 헌법의 기초는 제헌 국회의 가장 중요한 첫 임무였다.

[24~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나리>

한 군사 나서며,

<중모리>

“여봐라, 군사들아, 이내 설움을 들어라. 너 내 이 설움을 들어 봐라. 나는 남의 오대 독신으로 어려서 장가들어 근 오십이 장근(將近)토록 슬하에 일점혈육이 없어 매월 부부 한탄 어마 우리 집 마누라가 온갖 공을 다 들일 제, 명산대찰 성황신당, 고묘총사, 석불 보살 미륵 노구맛이 집짓기와 칠성 불공, 나한 불공, 백일산제, 신중맞이, 가사시주, 연등시주, 다리 권선 길담기며, 집에 들어 있는 날은 성조조왕, 당산천룡, 중천군웅 지신체를 지극 정성 드리니, 공든 탑이 무너지며 심든 남기가 꺾어지랴. 그달부터 태기(胎氣)가 있어 석부정부좌(席不正不坐)하고 할부정불식(割不正不食)하고 이불청음성(耳不聽淫聲) 목불시악색(目不視惡色), 십 삭(十朔)이 절절 찬연 후에 하루는 해복 기미가 있던가 보더라.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혼미(昏迷) 중 탄생하니 딸이라도 반가울데 아들을 낳았구나. 열 손에다 떠받들어 땅에 누일 날 전혀 없어 삼칠일(三七日)이 지나고 오륙 삭이 넘어 발바닥에 살이 올라 터덕터덕 노는 모양, 방긋방긋 웃는 모양, 엄마 아빠 도리도리, 쥐엄잘강 삼마둥둥, 내 아들 웃고름에 돈을 채여 감을사 껌질 벗겨 손에 주며 주야 사랑 애정한 게 자식밖에 또 있느냐. 뜻밖에 이 한 난리, ‘위국땅 백성들아, 적벽으로 싸움 가자. 나오너라.’ 외는 소리, 아니 올 수 없더구나. 사당 문 열어 놓고 통곡제배 하죽한 후 간간한 어린 자식 유정한 가족 얼굴 안고 누워 등치며, 부디 이 자식을 잘 길러 나의 후사(後嗣)를 전해 주오. 생이별 하직하고 전장을 떠나왔으나 언제 내가 다시 돌아가 그림던 자식을 품에 안고 ‘아가 응아’ 업어 볼거나. 아이고, 내 일이야.”

<아나리>

이렇듯이 설리 우니 여러 군사 꾸짖어 왈, “어라, ㉠ 이놈 자식 두고 생각하는 정 졸장부의 말이로다. 전장에 너 죽어도 후

사는 전하겠으니 네 설움은 가소롭다.” **또 한 군사**가 나서면서,

<중모리>

“이내 설움 들어 바라. 나는 부모 일찍 조실(早失)하고 일가친척 바이 없어 혈혈단신(孑子單身) 이내 몸이, 이성지합(二姓之合) 우리 **아내** 얼굴도 어여쁘고 행실도 조출하야 종가대사(宗家大事) 탁신안정(托身安定) 떠날 뜻이 바이 없어 철 가는 줄 모를 적에, 불화병 외는 소리 ‘위국 땅 백성들아, 적벽으로 싸움 가자.’ 웨는 소리 나를 끌어내니 아니 올 수 있든가. 군복 입고 전립 쓰고 창을 끌고 나올 적에, **㉠ 우리 아내 내 거동을 보더니 버선발로 우루루 달려들어 나를 안고 었더지며**, ‘날 죽이고 가요,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이괄홍안 젊은 년을 나 혼자만 떼어 놓고 전장을 가라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랴제, ‘허허 마누라 우지 마오. 장부가 세상을 태어나서 전장출세(戰場出世)를 못하고 죽으면 장부 절개가 아니라고 하니 우지 말라만 우지 마오.’ 달래어도 아니 듣고 화를 내도 아니 듣더구나. **㉡ 잡았던 손길을 에후리쳐 떨치고 전장을 나왔으나, 일부지전장 불식이라.** 살아가기 피를 낸들 동서남북으로 수직(守直)을 허니, 함정에 든 범이 되고 그물에 걸린 내가 고기로구나. 어느 때나 고국을 갈지, 무주공산해골이 될지, 생사(生死)가 조석(朝夕)이라. 어서 수이 고향을 가서 그림된 마누라 손길을 부여잡고 만단정회(萬端情懷) 풀어 볼거나. 아이고, 아이고, 내 일이야.”

[중략]

<아니리>

창황분주 도망을 갈 제 새만 푸루루루 날아나도 북병인가 의심하고, 낙엽만 퍼뜩 떨어저도 추병(追兵)인가 의심하여, **㉢ 었어지고 자빠지며 오립산 험한 산을 반생반사 도망을 간다.**

**㉣** 가다 목을 움쭉움쭉하니 **정옥**이 여짜오되,  
 “승상님 무게 많은 중에, 말 허리에 목을 어찌 그리 움치시나이까?”  
 “야야, 화살이 귀에서 앵앵하며 칼날이 눈에서 번뜻번뜻하는구나.”  
 “이제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목을 늘여 사면을 살펴보옵소서.”  
 “야야, 진정으로 조용하냐?”

조조가 목을 막 늘여 좌우 산천을 살펴보려 할 제, 의외에 말 곱통 머리에서 메추리 표루루루 하고 날아 나니 조조 깜짝 놀라,  
 “아이고 정옥아. 내 목 떨어졌다. 목 있나 바라.”

**[B]** “눈치 밟소. 조그만한 메추리를 보고 놀랄진대 큰 장끼를 보았으면 기절할 뻔하였소그려.”

조조 속없이,  
 “야 그게 메추리냐? 그놈 비록 자그마한 놈이지만 냄비에다 물 붓고 갖은 양념하여 보글보글 볶아 놓으면 술안주 몇 점 참 맛있느니라만.”

**㉤ “입맛은 이 통에라도 안 변하였소그려.”**

- 작자 미상, 「적벽가」

24. [A]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발화자의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고사를 활용하여 발화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③ 의태어를 활용하여 인물의 행동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청자들을 호명하여 주의를 끌면서 발화의 내용을 예고하고 있다.
- ⑤ 발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25.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 군사’는 자신의 처지가 다른 군사들에 비해 낫다고 생각한다.
- ② ‘또 한 군사’는 전장에서 공을 세울 수 있다는 확신을 지니고 있다.
- ③ ‘아내’는 국가에 대한 책무보다 자신과 가족의 소중함을 앞세우고 있다.
- ④ ‘조조’는 전쟁에서의 일시적인 패배를 만회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다.
- ⑤ ‘정옥’은 ‘조조’에 대한 적대감을 직설적으로 표출하여 ‘조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에 나타난 시대상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공연 예술로 연행되는 「적벽가」는 조선 후기 청중들의 선호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중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기 마련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작품 속 인물과 사건이 조선 후기의 시대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 ① 자식을 얻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열거된 것을 보니, 다양한 기자(祈子) 풍속이 존재했겠군.
- ② 자식을 길러 후사를 잇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 가문의 대를 잇는 일이 중요하게 여겨졌겠군.
- ③ 백성들을 갑자기 싸움터로 징발해 가는 것을 보니, 백성들을 국가적 사업에 동원하는 일이 수시로 있었겠군.
- ④ 징발되어 가는 백성들이 적국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외세에 대한 비판 의식이 팽배해 있었겠군.
- ⑤ 군사들은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승상’의 행태가 묘사된 것을 보니, 위정자에 대한 백성들의 반감이 높았겠군.

27.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개인의 일에 얽매어 공동의 목표를 등한시하는 상대의 태도에 동조하고 있다.
- ② ㉡: 인물의 행동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행동에 포함된 허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현재의 부정적 상황에 대한 탄을 표출하고 있다.
- ④ ㉣: 인물이 처한 급박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사건 전개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⑤ ㉤: 상황에 대해 집약적으로 논평하여 상대의 처지에 공감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28. [B]와 <보기>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막음이 어린 후(後)니 흐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萬重) 운산(雲山)에 어니 님 오리마는  
지는 님 부는 바람에 형허 권가 흐노라

- 서경덕

- ① [B]와 <보기>에서는 모두 감각적 자극이 인물의 반응을 일으키는군.
- ② [B]와 <보기>에서는 모두 자신이 착각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군.
- ③ [B]에는 두려움의 정서가, <보기>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바탕에 깔려 있군.
- ④ [B]에서는 상황의 유발 원인이, <보기>에서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 먼저 제시되는군.
- ⑤ [B]에는 상황을 수습하려는 태도가, <보기>에는 상황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가 나타나는군.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려 시대 문학사에서 하나의 지평을 열었다는 이규보가 만약 조선 시대에 다시 태어나 조선백자를 보았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범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중심소욕 불유구(從心所欲 不踰矩)’란 말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는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을 하늘의 조화를 빌려 빛은 ‘천공술(天工術)’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사실 동아시아의 도자 문화사를 들여다보면 ㉠ 고려청자의 위치는 ‘월드 챔피언’ 급에 해당된다. 고려청자는 명성만큼이나 화려하다. 융성했던 고려의 귀족 문화를 그대로 반영한 듯 모양이나 상감된 문양에는 섬세함과 유려함, 거기에 기묘묘함까지 깃들여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 조선백자도 고려청자에 전혀 밀리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가치가 높다. 단지, 청자처럼 화려함이 덜해 단번에 눈길을 끌지 못할 뿐이다. 기실, 나뿐만 아니라 조선백자를 고려청자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주변에 많다. 고미술품의 가격이란 것이 미적 가치와 항상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나 역대 크리스티 경매에서 세계의 모든 도자기를 제치고 가장 비싸게 팔린 도자기는 다름 아닌 조선백자였다.

기술력도 고려청자에 필적할 만큼 뛰어나다. 안으로 착 가라앉은 듯 순하고 부드러운 빛깔은 아무나 흉내 낼 수 있는 성질의 기술이 아니다. 또한 조선백자가 품고 있는 내용, 즉 예술성은 어떤 의미에선 고려청자보다 훨씬 높은 경지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단지 내용이 너무 깊다 보니 아름다움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이 흠 아닌 흠이다.

조선 도자기는 보고 있지 않아도 말없이 옆에서 조용히 기다린다. 성품이 조용하고 집잡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같이 옆에서 지낼 수 있어서 좋다. 조선 도자기는 왜 그토록 수수한 맛이 날까? 물론 이유야 많겠으나 그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평범하게 느껴지는 모양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것에는 어떤 정교함도, 치밀함도 없다. 복잡하고 화려한 형태의 회화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 형태는 단순하고 빛깔은 소박하고 그림은 간단하다. 간단하면서도 짜임새가 있는 경지에 이른 것이 조선 도자기가 지닌 특성 중의 특성이라 할 만하다. 말하자면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 아름다움을 ‘단순미’로 정의한다면 아마도 살아 있는 설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단순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조선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 있어 남들이 가 본 적이 없는 길을 걸었다. 즉 단순미를 지향하는 방식이 의외로 특별하다. 평범함이란 무엇인가. 꾸밈이나 거짓이 없고 단순하고 쉬워서 보는 이가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 개념에 따르면 조선 도자기는 평범함 그 자체가 훌륭한 아름다움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으나 이 같은 표현은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른 것을 모방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는 독보적인 세계가 거기에 펼쳐져 있다.

나는 그런 조선 예술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가슴 한 칸이 답답해진다. 우리 중에는 조선 예술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보는 이가 적지 않다는 사실 때문이다. 우리는 어찌 된 일인지, 오히려 그 평범한 점을 들어 미적 요소가 부족한 것으로 스스로 인식한다. 아예 거기에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경멸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까지 한다. 이런 경멸의 태도는 정교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을 숭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이는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은 참으로 독단에 지나지 않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의 그릇된 견해에 불과하다. 오랜 세월의 담금질 속에 숙성된 미적 직관을 내면화한 선조들이 빚은 도자기에 어찌서 인정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29.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재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종류와 특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②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을 활용하여 제재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다른 대상과의 비교, 대조의 방식으로 제재가 지닌 미학적 특성을 서술하고 있다.
- ④ 글쓴이의 감상과 주관적 논평을 통해 제재에 대한 일반화된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 ⑤ 특정한 인물의 생각을 추측하는 방식으로 제재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30. ㉠과 ㉡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기묘묘하고 유려하여 하늘의 조화를 빌려 빛은 ‘천공술’로 불리었다.
- ② ㉡은 단순미와 평범함을 미학적 자질로 삼는 개성적인 아름다움의 세계를 담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귀족 문화를 반영한 섬세함과 화려함이 있어 기술력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 ④ ㉡은 ㉠과 달리 순하고 부드러운 빛깔을 지니고 있고, 예술성의 측면에서 훨씬 높은 경지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⑤ ㉠과 ㉡은 모두 동아시아 도자 문화사에서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예술로 손꼽힌다.

31. <보기>는 글쓴이의 글 일부분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 글에 나타난 예술관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나는 조선의 정치와 예술이 서로 간에 어떤 관계에 놓여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조선의 도자기는 그 기술이 본능으로까지 성숙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것에 재현된 평범함은 생래적인 아름다움이다. 인류가 지향하는 기초적 본질을 거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다. 거기에 내가 무슨 말을 더 보탤까.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그릇을 빚었고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그릇을 보고 평범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무슨 말을 더 보탤까. 내가 여기에 말을 보탠다면 자연으로 다시 돌아온 듯한 단순한 미적 가치는 오히려 퇴색하고 만다.

- ①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성질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단순한 미적 가치를 지양해야 한다.
- ②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평범함의 미학은 다른 것을 모방하는 데에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 ③ 복잡하고 화려한 형태의 회화적 요소와 단순한 빛깔이 조화를 이루는 미학적 요인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④ 소박한 그림에 담긴 내용의 깊이가 정치와 예술의 직접적인 연관에서 비롯된 표현 방식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
- ⑤ 오랜 세월을 거쳐 온 미적 직관의 세계가 보여 주는 단순함에 가장 뛰어난 미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人間)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니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드르려코  
 빗람도 혀려 하고 들도 마즈려코  
 녀므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나고  
 시비(柴扉)란 뉘 다드며 딘 곳츠란 뉘 쓸려뇨  
 아춤이 낫브거니 나조희라 슬홀소냐  
 오늘리 부족(不足)거니 내일(來日)리라 유여(有餘)하라  
 이 뵈히 안즈 보고 저 뵈히 거러 보니  
 번로(煩勞)흔 므옴의 버릴 일리 아조 업다  
 쉼 스이 업거든 길히나 전히야  
 다만 흐 청려장(靑藜杖)이 다 뵈되어 가노미라  
 술리 너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블니며 터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리로 취흥(醉興)을 비야거니  
 근심이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라  
 누으락 안즈락 구부락 저즈락  
 을프락 폰람하락 노혜로 노거니  
 천지(天地)도 넓고 넓고 일월(日月)도 흥가하다  
 희황(羲皇)을 모을너니 니적이야 괴로고야  
 신선(神仙)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강산풍월(江山風月) 거늘리고 내 백 년(百年)을 다 누리면  
 악양루(岳陽樓) 상(上)의 이태백(李太白)이 사라 오다  
 호탕(浩蕩) 정회(情懷)야 이에서 더홀소냐  
 이 몸이 이렇 굶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송순, 「면양정가」

(나)

산중의 벗이 업서 한기(漢紀)를 빠하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스리 헤여흐니  
 성현도 만크니와 호걸도 하도 할샤  
 엇디흔 시운(時運)이 일락 배락 흐얏논고  
 모를 일도 하거니와 ㉠ 애들음도 그지업다  
 기산(箕山)의 늘근 고불 귀는 엇디 싯뉘던고  
 일표(一瓢)를 썰틴 후의 ㉡ 조장이 그장 놓다  
 인심이 늦 곳뜰야 보도록 새롭거늘  
 ㉢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머호도 머흘시고  
 엇그제 비즌 술이 어도록 니건느니  
 잡거니 밀거니 슬크장 거후로니  
 므옴의 미친 시름 저그나 흐리느다  
 거문고 시웁 언저 풍입송(風入松) 이야고야  
 손인동 주인인동 ㉣ 다 니저 브려셔라  
 장공(長空)의 썰는 학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  
 요대(瑤臺) 월하(月下)의 ㉤ 횡허 아니 만나신가  
 손이서 주인드려 널오디 그디 권가 흐노라

- 정철, 「성산별곡」

(다)

백사장(白沙場) 홍료변(紅蓼邊)에 굶니러 먹는 저 뵈노(白鷺)야  
 혼 님에 두셋 물고 무엇 낫빠 굶니느냐  
 우리도 구복(口腹)이 웬슈라 굶니러 먹네

- 작자 미상

32. (가)~(다)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옛 인물을 떠올려 화자 자신과 견주고 있다.
- ② (나)에서는 동일한 어미와 대구를 활용하여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가)와 (나)에서는 계절감을 지닌 소재들을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 ④ (가)와 (다)에서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에서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어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33. (가), (나)의 시어를 대비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술'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반면, (나)에서는 '술'을 통해 근심이 심화된다.
- ② (가)에서는 '벗'의 존재를 번거롭게 여기는 반면, (나)에서는 '벗'의 부재를 아쉬워한다.
- ③ (가)의 '시름'은 그 원인이 제시된 반면, (나)의 '시름'은 그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④ (가)의 '누으락 안즈락'에는 화자의 흥취가 투영된 반면, (나)의 '일락 배락'에는 세상사의 흥망성쇠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 ⑤ (가)의 '신선'은 화자가 일체감을 느끼는 대상인 반면, (나)의 '진선'은 화자의 불우한 처지를 더욱 부각하는 대상이다.

34. (가)와 <보기>의 화자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빈천(貧賤)을 풀라 하고 권문(權門)에 드러가니  
 침 업슨 흥정을 뉘 몬져 하자 하니  
 강산(江山)과 풍월(風月)을 달나 하니 그는 그리 못하니  
 - 조찬한

- ① (가)와 달리 <보기>는 자신의 세계관을 타인과 공유하고자 한다.
- ② <보기>와 달리 (가)는 삶의 공간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③ <보기>와 달리 (가)는 자신의 만족스러운 삶이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 진술하고 있다.
- ④ (가)와 <보기>는 모두 자연에 대한 선호를 표출하고 있다.
- ⑤ (가)와 <보기>는 모두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역사적 인물과 사건들에 대한 회한을 표출하고 있다.
- ② ㉡: 대상의 행위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보이고 있다.
- ③ ㉢: 세상의 일에 대한 회의적 시선을 내비치고 있다.
- ④ ㉣: 상대방과 어우러져 일체화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대상과 재회하고자 하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조선 후기에 들어 시조의 향유층이 확대되면서 작품의 분위기나 표현이 양반 작자층 위주의 조선 전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일상생활을 담은 표현이 빈번히 쓰였고, 관습적인 의미를 띠었던 소재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였다. 또한 작품의 내용이 삶의 체험을 다루는 쪽으로 조절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조선 후기 가집에 수록된 (다)와 같은 작품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 ① '백사장 흥료변'은 고결하고 청정한 공간이기보다는 일상생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군.
- ② '굽니러 먹는 저 빅노'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생활인의 모습을 띠고 있군.
- ③ '흔 님에 두셋 물고'는 일상적으로 자행되던 탐욕에 대한 묘사이며 당시 세태를 비판하기 위한 표현이군.
- ④ '우리도'는 대상과 자신의 처지를 동일시함으로써 일상적 삶에 대한 화자의 성찰을 집약하는 표현이군.
- ⑤ '구복이 웬슈'는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던 말로 당시 삶의 고달픔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군.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빙하는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데, 가령 남극 지방과 그린란드에는 얼음층인 빙상이 있고 알프스 산맥에는 빙하 계곡이 있다. 빙하의 99퍼센트는 남극 지방과 그린란드에 모여 있으며 빙하에 저장되어 있는 담수는 지구 전체 민물의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이다. 이러한 빙하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물질은 쌓인 눈이다. 본래 눈에는 다량의 기포가 들어 있는데 눈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기포가 줄어들고 쌓인 눈 내부의 압력은 증가한다. 이때 주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눈은 완전한 얼음으로 변한다. 이러한 변화를 눈의 재결정 작용이라 ㉠인른다. 눈을 구성하고 있던 물 분자가 압력을 받으면서 협소해진 공간 안에 있던 물의 분자 구조가 재배치되고 그렇게 재결정을 이룬 얼음 입자들이 모여 거대한 얼음층을 형성하면 빙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흐르는 물에서는 물의 분자 구조가 재배치되기 어려워 빙하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며, 더욱이 유속이 빠를수록 빙하가 생성될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빙하는 한 번 생기면 영원히 그 모습이 유지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빙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눈이 얼음 결정을 이루면서 새 빙하가 생성되는 시기를 집적대, 얼음 결정이 기화 또는 액화되면서 빙하의 규모가 줄어드는 시기를 소모대라 한다. 보통 기후 조건에 따라 빙하의 변동 폭에 차이가 생기며 소모대에 비해 집적대가 확장될 경우 빙하는 성장한다. 반대로 소모대가 더 확장되면 빙하의 규모는 자연히 줄어든다. 오늘날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빙하는 전체 대륙의 1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만, 150만 년 전에는 그 비율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한다. 이후 확장과 축소를 20번 넘게 반복하였으나, 빙하의 전체적인 규모는 점차 줄어들었다.

빙하의 변화를 촉진하는 또 다른 요인은 빙하의 이동이다. 빙하의 무게로 발생하는 압력이 높아지면 빙하의 표면과 지면 사이에 충돌이 격화되고 그 결과 빙하가 이동하게 된다. 빙하는 평균적으로는 1년에 약 10미터씩 서서히 이동하지만 빙하 밑면과 지면 사이의 마찰력에 따라 그 이동 속도가 달라진다. 물을 가득 채운 물병을 냉동실에 넣으면 곧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오른다. 마찬가지로 얼음 결정으로 부피가 커진 빙하는 내부에 강한 압력을 받게 되고 압력을 버티지 못해 다시 액화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 빙하 하단에서 이러한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 같은 액화 현상이 빙하와 지면 사이의 마찰을 줄이면서 빙하의 이동을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아울러 빙하뿐만 아니라 지면에서도 마찰력을 줄이는 원인이 제공될 수 있다. 가령 빙하 하단에 습기가 많은 연암 퇴적층이 발달해 있다면 빙하의 이동 속도는 빨라진다.

이렇듯이 빙하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빙하가 갈라져 내부에 깊고 좁은 틈이 생기는데, 그러한 균열을 '크레바스(crevasse)'라고 한다. 또 빙하가 붕괴하는 동안 형성되는 탑처럼 생긴 얼음 덩어리를 '빙탑'이라고 부른다. 빙하 내부의 긴장 상태가 최고치에 달하면 빙하는 더 큰 붕괴를 일으키게 된다. 한편 빙하의 이동은 빙하 외부에도 흔적을 남기는데, 빙하는 이동하는 동안 주변 환경을 바꾸는 침식 작용을 한다. 빙하에 의한 침식은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빙하가 이동하면서 기반암을 밀어낸다. 그때 이 거대한 암석 덩어리에 분열이 일어나면서 암석 파편들이 빙하와 합쳐지고 암석 퇴적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퇴석이 일어나는데 가끔 집채만 한 퇴석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또 빙하가 운반하는 크고 작은 암석 퇴적물이 빙하 아래의 기반암을 사포로 긁어내듯 갈아 내는 마식 작용을 한다. 마식 작용을 활발하게 일으키는 빙하는 기반암 위를 이동하는 동안 기반암 표면에 입자가 고른 모래, 즉 석분을 만들며 얼음이 녹아 물이 된 빙하가 이 석분을 먼 곳까지 운반한다. 빙하가 녹은 물이 보통 우수처럼 뿌연게 흐른 것은 바로 이 석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37. 밑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어의 개념을 소개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특정 현상의 세부적 내용을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 ③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유추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동일한 현상을 설명하는 상반된 이론의 특징을 대비하고 있다.
- ⑤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38.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지난 150만 년 동안 집적대보다 소모대가 항상 우세하였다.
- ② 기후 조건에 의해 빙하의 규모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 ③ 빙하의 무게가 커져서 압력이 증가하면 빙하가 이동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 ④ 빙하의 액화 현상은 마찰력에 변화를 주어 빙하의 이동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 ⑤ 빙하의 침식 작용은 암석 덩어리를 파편화시키는 것과 기반암을 갈아 내는 것이 있다.

**39. 밑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바닷물이 얼어서 빙하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육지에서 눈으로 빙하가 만들어질 때보다 생성 조건이 좀 더 까다롭다. 무엇보다도 바닷물은 그 속에 포함된 염분 때문에 민물에 비해 어는점이 낮다. 같은 바닷물이라도 염분이 높을수록 어는점은 더 낮아진다. 또한 수온이 내려가면 밀도가 높아져 물이 아래로 움직이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류의 규모는 수위와 비례한다.

- ① 다른 조건들이 모두 같다면 수위가 낮은 바닷물보다는 높은 바닷물에서 빙하가 생성되기가 좀 더 쉽겠군.
- ② 얼음 입자들이 생겨야만 빙하가 생성되는데, 바닷물은 어는점이 낮아서 얼음 입자들이 생기는 데 불리하겠군.
- ③ 다른 조건들이 모두 같다면 염분이 높은 바닷물보다는 낮은 바닷물에서 빙하가 생성되기가 좀 더 쉽겠군.
- ④ 눈으로 빙하가 생성될 때에는 눈의 무게가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는데, 바다에서는 그러한 눈의 무게가 없어 빙하의 생성이 어렵겠군.
- ⑤ 물 분자가 압력을 받아 분자 구조가 재배치되어야만 빙하가 생성되는데, 바다에서는 대류 현상 때문에 물 분자가 압력을 받는 데 불리하겠군.

**40. 밑글의 ㉓와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은?**

- ① 한때 도루묵을 달리 이르게 된 사연이 있었다.
- ② 형은 동생의 잘못을 이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 ③ 길산은 전생이에게 같이 떠날 것을 이르고 있었다.
- ④ 따끔하게 이르면 다시는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겠지.
- ⑤ 옛말에 이르기를 부자는 망해도 삼 년은 간다고 했다.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타작마당 돌가루 바닥같이 딱딱하게 말라붙은 뜰 한가운데, 어디서 기어들었는지 난데없는 지렁이가 한 마리 만신에 흙고물 칠을 해 가지고 바동바동 굴고 있다. 새까만 개미떼가 물어 뿜 때마다 지렁이는 한층 더 모질게 발버둥질을 한다. 또 어디선지 죽다 남은 듯한 쥐 한 마리가 튀어나오더니 종종걸음으로 마당 북관을 질러서 돌담 구멍으로 쑥 들어가 버린다. 군데군데 좁구멍이 나서 썩어 가는 기둥이 비뚤어지고, 중풍 든 사람의 입처럼 문조차 돌아가서 — ㉠ 북쪽으로 사정없이 넘어가는 오막살이 앞에는, 다행히 키는 낮아도 해묵은 감나무가 한 주 서 있다. 그러나 그게라야, 모를 낸 이후 비 같은 비 한 방울 구경 못한 무서운 가물에 시달려 그렇지 않아도 쪼그라졌던 ㉡ 고목 잎이 볼모양 없이 배배 틀려서 잘못하면 돌배나무로 알려질 판이다. 그래도 그것이 구십 도가 넘게 쪼 내리는 팔월의 태양을 가리어, 누더기 같으나마 밀둥치에는 제법 넓은 그늘을 지었다. 그걸 다행으로 깔아 둔 낮은 샛자리 위에는 발가벗은 어린애가 파리똥 앓은 얼굴에 땀물을 조르르 흘리며 울어 낸다.

[중략]

노인은 물 불은 콩깍질같이 쪼그라진 눈에 퀸 눈물을 빼다 귀 손으로 썩 씻었다. 곁에 누운 손자 놈은 땀국에 쪽 젖어 있다. 노인은 손자 놈의 입이며 콧구멍에 별뿔처럼 모여드는 파리똥을 쫓아 버리면서, 말라붙은 고추를 어루만진다.

“응, 그래, 울지 말아. 자장 자장 우리 얘기 …… 네 에미는 왜 여태 오잖을까? 입안이 이렇게 바짝 말랐고나. 그놈의 집에서는 무슨 일을 끼니때도 모르고 시킬꼬 응! 에헴, 에헴……”

노인은 억지힘을 내 가지고, 어린 걸 움켜 안고는 게다리처럼 엉거주춤 번디디고 일어섰다. 그럴 때, 마침 아들이 별살에 얼굴을 별정계 구어 가지고 들어왔다. 들어서면서부터 통명스럽게,

“다들 어딜 갔어요?”

“일 나갔지.”

“무슨 일요?”

“진수네 무명밭 매러 간다고 했지, 아마.”

둘개는 잠자코 윗통을 훨쩍 벗어서 감나무 가지에 걸쳐놓고는 늙은 아버지로부터 어린것을 받아 안았다. 치삼 노인은 뽕나무 잎이 반이나 넘게 섞인 담배를 장죽에 한 대 피워 물면서 아들을 위로하듯이 — 그러나 ㉢ 대답을 두려워하며 물었다.

“논은 어떻게 돼 가니?”

“어떻게라니요. 인젠 다 틀렸어요. 풀래야 풀물도 없고, 병아리 오줌만한 붓물도 중들이 죄다 가로막아 넣고, 제에기…….”

“꼭 기사년 모양 나겠군 그래.”

“기사년은 그래도 냇물은 조금 안 있었나요.”

“그랬지. ㉠ 지금은 그놈의 수돗바람에 ……”

“그것도 원래 약속을 할 때는 농사철에는 냇물은 아니 막아 가기로 했다는데, 제에기, 면장 녀석은 색주가 갈보 놀릴 줄이나 알았지, 어디 백성 죽는 건 알아야죠.”

들개는 열을 바짝 더 냐다.

“할 수 없이 이곳엔 인제 사람 못 살 거여.”

“참 아니꼽지요. 더군다나 전과 달라 중놈들까지 덤비는 꼴을 보면 ……”

아들의 불통스러운 어조에는, 거칠 대로 거칠어진 농민의 성미가 뚜렷이 엿보였다. 가물은 그들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하였던 것이다.

치삼 노인은 ‘중놈’이란 바람에 가슴이 섬뜩하였다. — 그것은, 자기들이 부치고 있는 절논 중에서 제일 물길 좋은 두 마지기가, 자기가 젊었을 때, ㉡ 자손 대대로 복 많이 받고 또 극락 가리라는 중의 땀에 속아서 그만 불전에 아니 보광사(普光寺)에 시주한 것이기 때문이다. **멀쩡한 자기 눈을 괜히 중에게 주어 놓고 꾸꾸 소작을 하게 되고 보니**, 성경기도 짝이 없거니와, 딱한 살림에 아들 보기에 여간 미안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 김정환, 「사하촌」

41.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실에 대한 불평을 토로하는 장면에서 간접적으로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인물의 말과 행동에 내재된 심리적 상태를 논평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대립과 갈등의 현실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서술자가 현실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보고하는 형식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42.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치삼 노인은 일터로 나가 끼니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며느리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② 치삼 노인은 자신의 과거 행동으로 인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
- ③ 들개는 농사를 짓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 담담히 순응하려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 ④ 들개는 치삼 노인의 물음에 통명스럽게 답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치삼 노인과 들개는 면장이나 중을 현실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조력자로 보고 도움을 요청하려 하고 있다.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치삼 노인의 가게가 몹시 궁핍한 생활로 기울어져 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② ㉡: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자연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③ ㉠: 아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아버지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 가뭄이라는 자연적 재해 이외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⑤ ㉡: 자손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인물의 심리를 악용한 행태를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4. 지렁이와 개미떼의 상징성을 인물에 적용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렁이

개미떼

- |   |       |       |
|---|-------|-------|
| ① | 들개    | 보광사 중 |
| ② | 보광사 중 | 면장    |
| ③ | 면장    | 치삼 노인 |
| ④ | 보광사 중 | 들개    |
| ⑤ | 치삼 노인 | 들개    |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사하촌」은 지독한 가뭄에 농사지를 물길이 막혀 버린 성동리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과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저수지 물길을 막아 제 살 길만을 찾는 보광리 사람들의 대립을 쟁점화한 작품이다. 친일 계급을 등에 업은 사찰과 이를 비호하며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면장과 같은 관리의 행태를 통해, 민중들의 삶의 터전인 농토의 소유와 경작에 대한 갈등이 첨예화된 식민지 현실을 비판적으로 서사화한 것이다.

- ① “인젠 다 틀렸어요. 풀래야 풀물도 없고”에서 지독한 가뭄에 농사지를 물길이 막혀 버린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군.
- ② “기사년은 그래도 냇물은 조금 안 있었나요.”에서 농민들 간의 대립이 첨예화된 현재의 원인과 당시의 상황이 발생한 원인이 같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③ “원래 약속을 할 때는 농사철에는 냇물은 아니 막아 가기로 했다는데”서 민중들의 삶터와 생활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대립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더군다나 전과 달라 중놈들까지 덤비는 꼴을 보면 ……”에서 친일 계급을 등에 업은 사찰의 횡포를 짐작할 수 있군.
- ⑤ “멀쩡한 자기 눈을 괜히 중에게 주어 놓고 꾸꾸 소작을 하게 되고 보니”에서 농토의 소유와 경작에 대한 갈등이 초래된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군.

※확인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2020학년도 경찰대학 1차 시험 (국 어)

※ 총 12쪽 45문항(2점 35문항, 3점 10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 <보기>의 문장을 어법에 맞게 고쳐쓸 때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인간은 자연의 위대한 힘과 맞설 때도 있었지만 대개는 굴복하면서 살아왔다.
- 대도시의 수도관이 낡고 녹슬어서 녹이 섞이거나, 물이 새는 일이 적지 않다.

- ① 생략된 조사를 적절하게 보충한다.
- ② 잘못 쓰인 관형어를 적절하게 수정한다.
- ③ 연결 어미가 의미에 맞도록 적절하게 수정한다.
- ④ 불필요하게 쓰인 피동 표현을 적절하게 수정한다.
- ⑤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를 적절하게 보충한다.

2. 밑줄 친 부분이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것은? [3점]

- ① 이 나무는 밤나무가 아니예요.
- ② 위조품은 진품을 본따서 만든다.
- ③ 마당에 핀 장미꽃이 정말 빨갈네.
- ④ 가을이 오자 들판의 곡식이 누레졌다.
- ⑤ 하산길은 경사가 가팔라서 무척 위험하다.

3. <보기>의 음운 변동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기>

- 열여섯 → 열녀선 → [열려선]

①                      ②

- ① ㉠: 첨가와 교체가 일어난다.
- ② ㉠: 교체와 축약이 일어난다.
- ③ ㉠: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 ④ ㉡: 첨가가 일어난다.
- ⑤ ㉡: 축약이 일어난다.

4. ㉠~㉡의 로마자 표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보기) 백마 Baengma    ㉠신라 \_\_\_\_\_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보기) 학여울 Hangnyeoul    ㉡알약 \_\_\_\_\_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보기) 해돋이 haedoji    ㉢같이 \_\_\_\_\_
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보기) 좋고 joko    ㉣놓다 \_\_\_\_\_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보기) 목호 Mukho    ㉤집현전 \_\_\_\_\_

- ① ㉠: Silla                      ② ㉡: allyak
- ③ ㉢: gachi                      ④ ㉣: nota
- ⑤ ㉤: Jipyeonjeon

5. ㉠~㉤의 형태소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용언의 활용형 ‘가는’은 다음 세 가지 의미로 쓰인다.

- ㉠ 학교에 가는 학생 (등교하는)
- ㉡ 칼을 가는 사람 (연마하는)
- ㉢ 손목이 가는 사람 (얇은)

- ① ㉠: 갈-+-는                      ② ㉡: 가늘-+-는
- ③ ㉢: 갈-+-는                      ④ ㉣: 가-+-는
- ⑤ ㉤: 갈-+-는

6. ㉠의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국어에서 접미사 ‘-적(的)’이 결합한 말은 명사와 관형사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 명사: 백화점은 **일반적**으로 시장보다 값이 비싸다.
- 관형사: **일방적** 의견만 제시하는 것은 토론이 아니다.
- 부사: ㉠\_\_\_\_\_

- ① 이번 일은 **비교적** 쉽다.
- ② 이런 태도는 **비상식적**이다.
- ③ 이 제품은 **기술적** 결합이 있다.
- ④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
- ⑤ 갈등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자.

7. 밑줄 친 말이 ㉠의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국어의 조사나 어미 가운데에는 하나의 형태소가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둘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목적격 조사는 환경에 따라 ‘을’과 ‘를’로 나타나는데, 이때 ‘을’과 ‘를’을 ㉠이형태 관계에 있다고 한다.

- ㉠ ㄱ 학교 앞 공원에서 내일 만나자.
- ㉡ ㄴ 봄이 오니 거리에 꽃이 가득하다.
- ㉢ ㄷ 친구로서 간곡하게 부탁한다.
- ㉣ ㄹ 이것으로써 결혼식을 마치겠습니다.
- ㉤ ㄹ 젊은이여, 내일의 희망을 간직하라.
- ㉥ ㄹ 젊은이여, 내일의 희망을 간직해라.
- ㉦ ㄱ 심심한데 어디라도 나가 볼까?
- ㉧ ㄴ 작은 관심이라도 큰 도움이 됩니다.
- ㉨ ㄱ 소풍을 어디로 가니?
- ㉩ ㄴ 밥을 먹으니 배가 부르다.

8. <보기>는 국어사전의 문형 정보와 용례이다.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설득-하다(說得--)  
「동사」 상대방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하다.

- 【 ...을】 ㉠ \_\_\_\_\_
- 【 ...에게 ...을】 ㉡ \_\_\_\_\_
- 【 ...에게 -기를】 ㉢ \_\_\_\_\_
- 【 ...에게 -도록】 ㉣ \_\_\_\_\_
- 【 ...에게 -고】 ㉤ \_\_\_\_\_

- ① ㉠: 경찰은 용의자를 설득하여 자수하게 했다.
- ② ㉡: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용기를 낼 것을 설득하였다.
- ③ ㉢: 경찰은 범인에게 투항하기를 설득하였다.
- ④ ㉣: 나는 동생에게 누나를 설득하도록 했지만 소용없었다.
- ⑤ ㉤: 나는 두 사람에게 그만 화해하라고 설득하였다.

9.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사업에서 손을 떼지 이미 오래다.(→그만두다)
- ② 그런 이상한 말은 머리에 털 나고 처음 들어본다.(→어른이 되다)
- ③ 내 월급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근근이 살아가다)
- ④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렵었다.(→죽어 땅에 묻히다)
- ⑤ 선생은 ‘독립’ 두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고 한다.(→잊지 않고 기억하다)

10.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장에서 청유형 어미가 쓰이면 화자와 청자가 어떤 행동을 함께 수행한다는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 화자나 청자 단독으로 행동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나타나기도 한다.

행동 수행 주체	화자, 청자	화자 단독	청자 단독
청유형 어미			
-자	㉠		㉡
-되시다		㉢	㉣
-세		㉤	

- ① ㉠: (회의를 끝내며) 이 문제는 내일 다시 논의하자.
- ② ㉡: (아기에게 밥을 먹이며) 아기야, 밥 먹자.
- ③ ㉢: (도서관에서 떠드는 사람에게) 거, 조용히 좀 합시다.
- ④ ㉣: (길을 막고 있는 사람에게) 길 좀 비키시다.
- ⑤ ㉤: (책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나, 그 책 좀 보세요.

11. <보기>의 대화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須達이\* 날오디 니르산 양으로 호리이다  
 ㉡ 太子 | 날오디 내 룡담하더라  
 ㉢ 須達이 날오디 太子人 法은 거길마를 아니 흐시는 거시니  
\*須達(수달): 사람 이름

- ① ㉠: ‘호리이다’에는 선어말 어미 ‘-오-’가 들어 있겠군.
- ② ㉡: ‘내 룡담하더라’를 보니 화자가 청자보다 상위자로군.
- ③ ㉢: ‘太子 |’가 주어인 걸 보니 ‘|’는 주격 조사이겠군.
- ④ ㉣: ‘太子人 法’은 ‘法’이 무정물이므로 관형격 조사 ‘人’이 쓰였군.
- ⑤ ㉤: ‘아니’가 부사로 쓰이고 있군.

12. ㉠이 적용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국어에서 ㉠동일 모음 탈락은 ‘가--아 → 가’, ‘만나--아 → 만나’, ‘건너--어 → 건너’와 같이 어간의 모음과 어미의 모음이 동일할 때 나타난다.

- ① 많이 자도 줄리다.
- ② 집에 가다가 친구를 만났다.
- ③ 이제는 정말로 떠나야 한다.
- ④ 여기 서서 잠시 기다리고 있으렴.
- ⑤ 애들아, 밤이 너무 늦었으니 어서 자.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종종 다른 사람이 웃으면 자신도 따라 웃게 되는 경험을 한다. TV 시트콤에서 재미있을 만한 장면에 녹음된 웃음소리를 삽입하는 것도 이를 통해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신경과학자들은 타인이 웃으면 따라 웃게 되는 것은 우리의 뇌에 웃음소리에만 반응하는 웃음 감지 영역(laughter detector)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청각 신호를 담당하는 뇌 영역 어딘가에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품할 때 덩달아 하품하게 되는 것도 뇌의 시각 영역 어딘가에 하품하는 모습에 반응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가설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웃음 감지 영역이 흥분하게 되고, 이 신호가 웃음 발생 영역(laughter generator)으로 전달돼 결국 따라서 웃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츠하크 프리드(Itzhak Fried) 박사와 그의 동료 신경외과 의사들은 ①인간의 웃음을 유발하는 뇌의 영역이 존재하며, 그 곳에 자극을 가하면 웃음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네이처』지에 발표했다. 또 로체스터 의대 신경방사선과에 있던 딘 시바타(Dean K. Shibata) 교수 연구팀은 2000년 학회에서 핵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해 뇌의 어떤 부분이 웃음에 관여하는지 촬영했다. 연구 팀은 13명의 피실험자들에게 우스운 만화를 보여주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웃음소리를 녹음한 테이프를 들려주었을 때 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촬영했다. 그 결과 웃을 때 오른쪽 이마 뒤쪽에 있는 뇌의 ‘전두엽 하단’이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뇌출혈 등으로 이 영역이 손상된 사람들은 유머를 이해하고 웃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그들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웃음 유발 영역으로 지목된 ‘전두엽(Frontal lobe)’은 사회적 행동이나 감정적 판단, 의사소통 등을 관장하는 영역이다. 고등동물일수록 이 영역이 발달된다. 시바타 박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들은 전두엽 하단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지만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및 신경과학과 로버트 프로빈(Robert R. Provine) 교수는 『웃음, 그에 관한 과학적 탐구』라는 책에서 웃음은 그저 유머에 대한 생리적인 반응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 주는 사회적 신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광장과 근처의 거리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 1,200명의 대화 내용을 분석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대화 도중 농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 때문에 웃는 경우는 10~20퍼센트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그동안 어디 있었니?’ 혹은 ‘만나서 반가워요.’ 같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 가장 많이 웃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농담을 듣는 사람보다 농담을 하는 사람이 1.5배 이상 더 많이 웃는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결국 대화 상대에게 친밀감이나 호감을 느끼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즐거워 웃는 것이지, 농담을 주고받아야만 웃음이 넘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웃음이 인간관계를 위한 사회적 신호라는 사실은 웃음의 성격이나 빈도가 이성과 함께 있으나, 혹은 동성 친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현격히 달라진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프로빈 교수는 남성과 여성이 대화를 나눌 때, 여성이 남성보다 1.3배 더 많이 웃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이것을 “이성과 대화할 때 남성은 여성을 웃기려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여성이 더 많이 웃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석했다.

웃음이 남녀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조-앤 바호로프스키(Jo-Anne Bachorowski) 교수는 더 자세한 실험을 했다. 피실험자들을 이성이나 동성 친구, 혹은 낯선 사람과 한방에 들어가게 한 다음 로맨틱 코미디의 클라이맥스 장면을 보여주었다. 이 실험에서 여자들은 같은 여자와 함께 영화를 볼 때보다 남자와 함께 볼 때 더 많이 웃었다. 재미있는 것은 여성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남성과 함께 영화를 볼 때 더 크게 웃는다는 것이었다. 반면 여자가 혼자 영화를 보거나 여자들과 영화를 볼 때는 웃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남자들은 여자들과 많이 달랐다. 남자들은 남자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크게 웃었으며, 여성과 함께 있거나 낯선 사람과 있을 때 웃음소리가 더 작았다.

[A]

13.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 속 웃음의 증상
- ② 웃음에 관한 다양한 이해
- ③ 남녀 간 웃음 반응의 차이
- ④ 웃음 유발과 웃음 감지의 상관성
- ⑤ 웃음을 통한 우울증 치료의 현주소

14. 윗글에서 사용한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녹음된 웃음소리의 효과를 유형별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 ② 뇌의 웃음 발생 영역을 개념 정의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웃음에 대한 과학적 논의를 설명하고 있다.
- ④ 웃음이 남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반합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 ⑤ 가설을 설정하여 대화 상대에 따라 웃는 정도가 다름을 설명하고 있다.

15. 윗글과 <보기>를 참고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미국 캘리포니아 의대에 있는 폴 에크먼(Paul Ekman) 박사는 입 꼬리를 위로 올리고 억지로라도 웃는 시늉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 주었다. 그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인위적으로 특정한 감정을 만들어 내면 몸도 거기에 따른 생리적 변화를 보인다. 일례로, 슬픈 역할을 오랫동안 맡은 배우는 실제로도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 니체가 “세상에서 가장 심하게 고통 받는 동물이 웃음을 발명했다.”라고 말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 ① 웃음은 타인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 ② 웃음소리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에 영향을 미친다.
- ③ 재미없는 농담이라도 옆 사람이 웃으면 따라 웃는 것이 좋다.
- ④ 인간은 행복해서 웃기도 하지만 웃는 행위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다.
- ⑤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의식적으로 웃는 것이 필요하다.

16. [A]에 나타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혼자 개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여성은 남성과 함께 볼 때보다 크게 웃겠군.
- ② 여성이 여성들과 개그 프로그램을 본다면 남성과 볼 때보다 조용히 시청하겠군.
- ③ 남성이 낯선 여성과 개그 프로그램을 시청한다면 남성 동료와 시청할 때보다 조용하겠군.
- ④ 여성이 낯선 남성과 개그 프로그램을 시청한다면 아는 남성과 시청할 때보다 크게 웃겠군.
- ⑤ 남성들은 동료 남성과 개그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낯선 남성과 시청할 때보다 더 크게 웃겠군.

17. 윗글을 읽고 ㉠에 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의 뇌는 다른 동물에 비해 감정적 판단과 의사소통을 관장하는 영역이 발달했다.
- ② 우울증 환자들은 웃음을 유발하는 뇌의 특정 부분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웃음소리를 들으면 뇌의 웃음 발생 영역이 자극을 받아 웃음 감지 영역으로 신호가 전달된다.
- ④ 웃음소리를 들려주고 핵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해 뇌를 촬영하면 뇌의 웃음 유발 부분을 알아낼 수 있다.
- ⑤ 대화할 때 재미있는 이야기나 농담을 말하는 사람이 그것을 듣는 사람보다 뇌의 전두엽 하단이 더 활성화된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잭 케루악(Jack Kerouac)은 미국 문학사조 면에서 대체로 ‘비트 세대(beat generation)’ 작가 군으로 분류된다. 비트 세대 작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60년대 미국의 지배적인 정치, 경제, 문화 상황에 저항하면서 소위 반문화(counter culture)를 형성한 작가들이다.

얼핏 풍요롭고 평온하게 보이던 이 당시 미국 사회에서 케루악을 비롯한 비트 세대 작가들은 당대의 미국 사회가 순응, 일치, 동질화, 물질주의, 검열, 규범, 획일성 등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풍요와 평온 밑에 은닉된 이러한 속성들은 정치적, 심리적 억압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미국 시인 로버트 로웰(Robert Lowell)은 이 시기의 미국 사회를 ‘진정제 맞은 1950년대’라고 규정했다. 로웰의 지적처럼 이 당시 미국 사회는 순응과 획일성을 강요받아 마치 진정제를 맞은 환자처럼 그저 평온한 사회였다. 로웰과 비트 세대 작가들은 문학사조 면에서는 공통점이 없지만, 그들이 진단한 미국 사회의 모습은 비슷했다.

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미국 사회의 속성들을 미국적 가치로 신봉하던 중산층 계급의 허위 의식을 비판하였다. 즉 청교도라는 전통적 배경과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함께 작용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아 검열을 강요하고 개인들의 의식과 무의식을 통제한 결과, 개인성과 자율성이 억압되었다는 것이다.

비트 세대 작가들은 그 당시 미국이 풍요와 평온을 가장한 공포의 사회이고,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단절되고 분열되었으며, 개인은 소외되었다는 생각을 공유하였다. 거의 모든 미국 시민들이 무의식적으로 사회에 순응하고 적응할 때, 그들은 자본주의의 물질주의와 국가 권력이 조절하는 규범화된 삶을 거부하고 저항적인 반문화를 형성하였다.

개인의 자율성과 개인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개인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 시기에 소위 ‘미국주의’의 대두로 그 존립 근거를 상실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적 경제와 통치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인의 사적인 경험, 자율적인 판단, 자유는 억압되거나 유보되었고 개인은 소비로 불안감을 대신하고 대중문화나 매체에 의하여 쉽게 선동되어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소위 **일차원적 인간**이 되어 버렸다. 당시에 미국은 일차원적 인간으로 이루어진 전체 국가로 나아가고 있었다. 비트 세대 작가들은 전체 국가와 일차원적 인간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중심과 그것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폭로하고 이에 정면으로 저항하였다.

비트 세대 작가들의 저항과 대안 추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앨런 긴즈버그(Allen Ginsberg)의 대표작 「절규」는 미국의 지배적 주류 문화에 대한 ‘울부짖음’이었다. 이처럼 절망과 분노를 직접 표출하는 것 외에도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존의 가치 체계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식들은 당시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생소하거나 비도덕적 행위로 비난받았지만 기존의 가치 체계를 넘어 서서 미국 사회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비트 세대 작가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개인의 모습은

방랑자이다. 보통 여행의 이미지에서 가장 많이 연상되는 덕목은 자유의 추구이다. 이처럼 미국 대륙을 여행하는 방랑자로서 이들 작가들은 그들의 여행을 통하여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자유를 추구하고 만끽한다. 하지만 이들의 여행은 기차에 몰래 타거나 지나가는 자동차를 얻어 타기도 하고 마치 불교의 수도승처럼 남루한 모습으로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자는 등 탈규범적인 행위였다. 비트 작가인 윌리엄 버로스(William Burroughs)에 따르면 케루악의 방랑은 '정신적 소외, 불안감, 불만'에서 시작된 것이었고, 비트 세대 작가들 중 대표적인 방랑자였던 게리 스나이더(Gary Snyder)는 방랑의 시작이 '1950년대 미국의 정신적, 정치적 외로움'이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비트 세대 작가들은 선불교 사상 수용, 새로운 생태 의식, 비윤리적 행위, 탈규범적 행동을 공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반문화를 형성하여 주류 문화에 저항하였다. 이들이 여기에서 추구한 가치는 비순응성, 자율성, 직접성, 단순성 등이었다.

이러한 가치들은 위에 언급한 주류 사회가 강요한 가치들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또한 이러한 비트 세대 작가들의 행위는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난 각 개인들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억압된 개인성의 회복이며 닫힌 세계가 강요하는 자아 억제에서 벗어나 자아 표현으로 나아가고자 한 것이다.

18.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의 개념을 밝혀 정확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적절한 예를 제시하여 중심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다양한 가설을 세워 서로 다른 논리들을 비교하고 있다.
- ④ 여러 사람의 견해를 인용하여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⑤ 원인과 결과를 밝혀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950년대 미국 사회는 진정체가 필요한 정신적 질병을 앓는 환자가 많았다.
- ②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사회는 개인주의와 반문화주의의 조화를 추구했다.
- ③ 케루악의 정신적 소외나 스나이더의 외로움은 그들의 방랑의 원천이었다.
- ④ 비트 세대 작가들은 선불교 사상을 수용하여 주류 문화를 강화하고자 했다.
- ⑤ 비트 세대 작가들은 내면적으로는 미국의 주류 문화에 대한 긍정을 추구했다.

20. 일차원적 인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주체적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
- ② 공익보다 자신의 자유를 먼저 중시한다.
- ③ 자신의 존재적 불안을 사회적 기여로 극복하고자 한다.
- ④ 사회적 현안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갖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 ⑤ 타인과 구별되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21.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조명이 경기장을 환하게 밝혔다.
- ②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밝혔다.
- ③ 옛날에는 등잔불을 밝히고 책을 읽었다.
- ④ 인생에서 돈만 밝혀서는 행복하기 어렵다.
- ⑤ 자식 걱정에 어머니는 뜬눈으로 밤을 밝히셨다.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파트는 그 내부의 면적이 어떠하거나 같은 높이의 단일한 평면을 나누어 사용하게 되어 있다. 보통 집, 아니 다시 내 아내의 표현을 빌면 땅집은 아무리 그 면적이 적더라도 단일한 평면을 분할하게 되어 있지 않다. 다락방이나 지하실은 거실이나 안방과 같은 높이의 평면 위에 있지 않다. 그것들은 거실이나 안방보다 ㉠높거나 낮다. 그런데 아파트는 모든 방의 높이가 같다. 다만 분할된 곳의 크기가 다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의 삶은 입체감을 갖고 있지 않다. 아파트에서는 부엌이나 안방이나 화장실이나 거실이 다 같은 높이의 평면 위에 있다. 그것보다 밑에 또는 위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파트이다. 좀 심한 표현을 쓴다면 아파트에서는 모든 것이 평면적이다. 깊이가 없는 것이다. 사물은 아파트에서 그 부피를 잃고 평면 위에 선으로 존재하는 그림과 같이 되어 버린다. 모든 것은 한 평면 위에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아파트에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다 같이 자신을 숨길 데가 없다. 모든 것이 열려 있다. 그러나 그 열림은 깊이 있는 열림이 아니라 표피적인 열림이다. 한눈에 드러난다는 것, 또는 한눈에 드러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깊이를 가진 인간에게는 상당한 형벌이다. 요즘에 읽은 한 소설가의 소설 속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몸을 숨길 곳을 찾지 못한 아이들이 옥상 위의 물탱크 속에 들어가 숨음으로써 자신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간 끔찍한 사건이 기술되어 있었다. 물탱크는 밖에서는 열 수 있으나 안에서는 열 수가 없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같은 평면 위에서 대번에 그 정체를 드러내는 사물과 인간은 두께나 깊이를 가질 수 없다. 두께나 깊이는 차원이 다른 것이 겹쳐서 생기기 때문이다. 땅집에서는 사정이 전혀 판판이다. 땅집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 나름의 두께와 깊이를 가지고 있다. 같은 물건이라도 그것이 다락방에 있을 때와 안방에 있을 때와 부엌에 있을 때는 거의 다르다. 아니 집 자체가 인간과 마찬가지로의 두께와 깊이를 갖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한 철학자는 집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인간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락방은 의

식이며, 지하실은 무의식이다. 땅집의 지하실이나 다락방은 우리를 얼마나 즐겁게 해 주는 것인지. 그곳은 자연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 다락방과 지하실에서는 하찮은 것들이라도 굉장한 신비를 간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들은 쓸모가 없는, 또는 쓰임새가 줄어든 것들이어서, 쓰임새 있는 것에만 둘러싸여 살던 우리를 쓰임새의 세계에서 안 쓰임새의 세계로 인도해 간다. 화가 나서, 주위의 사람들이 미워서, 어렸을 때에 다락방이나 지하실에 혼자 들어가, 낮설지만 흥미로운 것들을 한두 시간 매만지면서 나 혼자만의 세계에 잠겨 있었을 때에 정말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화는 어느새 풀리고, 주위 사람들에 대한 증오도 사라져, 이윽고 밖으로 나와 때로는 이미 전기가 들어와 바깥은 컴컴하나 안은 눈처럼 밝은 것을 볼 때에, 때로는 황혼이 느리게 내려 모든 것이 있음과 없음의 그 미묘한 중간에 있는 것을 보고 느낄 때에 세계는 언제나 팔을 활짝 열고 나를 자기 속으로 깊숙이 이끌어 들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 자란 뒤에도 다락방이나 지하실을 쓸데없는 것들이 잔뜩 들어 있는 쓰레기 창고로서가 아니라 내가 끝내 간직해야 될 신비를 담고 있는 신비로운 사물함으로 자꾸만 인식하게 된다. 나도 내가 사랑한,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그 철학자처럼 다락방과 지하실 때문에 땅집을 사랑하는 것인지 모른다. 그 지하실과 다락방 말고도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한식집의 부엌이다. 내가 태어난 시골의 내 외갓집 부엌은, 그 집이 제법 부유했기 때문에 꽤 넓었다. 그 부엌에는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아낙네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부엌을 건너 질러가면, 외할아버지가 친손자들에게만 주려고 외손자들에게는 접근을 막은 단감나무, 대추나무들이 있었다.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부엌에 들어가 보면, 부엌 바닥은 한없이 깊고 컴컴했고, 누룽지를 넣어 둔 찬장은 한없이 높고 높았다. 그 부엌을 나는 한 달 전에 두 사람의 시인과 함께 놀러 간 어떤 절에서 다시 보았다. 그때의 그 즐거움!

땅집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많은 것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에 대한 아름다운 산문을 남긴 생텍쥐페리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디엔가 우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과연 그렇다. 땅집이 아름다운 것은 곳곳에 우물과 같은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에는 그 비밀이 있을 수 없다. 5분 안에 찾아낼 수 없는 것은 아파트에는 없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다. 스물두 평 서른두 평의 평면 위에 무엇을 숨길 수가 있을 것인가.

-김현, 「두꺼운 삶과 얇은 삶」

22.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원인과 결과를 밝혀 서술하고 있다.
- ② 대상을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 ③ 다른 사람의 견해로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 ④ 사물의 속성을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⑤ 허구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서술의 초점을 이동하고 있다.

23. 윗글에서 **아파트**와 **땅집**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아파트가 삶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비밀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 ② 아파트에서는 삶이 입체적이지 않은 반면, 땅집에서는 삶이 입체적이다.
- ③ 아파트는 한 눈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곳이지만, 땅집은 많은 것을 숨길 수 있는 곳이다.
- ④ 땅집이 아파트에 비해 아름다운 것은 두께와 깊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⑤ ‘나’는 땅집의 매력을 직접 경험한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24. 글쓴이가 느끼는 ‘땅집의 삶’의 매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낮설지만 흥미로운 것을 매만지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 ② 익숙한 쓰임새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 ③ 해질 녘에 있음과 없음의 중간에 있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다.
- ④ 하찮은 것들 가운데 쓸모 있는 것과 쓸데없는 것을 구분하게 해 준다.
- ⑤ 컴컴한 바깥의 어둠과 전깃불로 눈처럼 환한 안쪽을 모두 체험할 수 있다.

25. <보기>를 참조할 때 단어의 구조가 **땅집**과 다른 것은?

<보 기>

‘땅집’은 ‘장소 + 대상’의 의미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땅에 지은 집’이라는 뜻이다.

- ① 은수저
- ② 산패지
- ③ 가로등
- ④ 북극곰
- ⑤ 섬마을

26. 윗글의 글쓴이가 <보기>의 글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주거 문화는 큰 변화를 겪었다. 마당이 있는 집이 있고 그 집들 옆에 골목길이 있는 단독주택들을 대신해서 복도와 계단이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이다. 이와 함께 골목길의 공간적 성격도 달라졌다. 자동차 대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자동차들이 사람들이 느리게 사용하던 골목길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추억이 깃들어 있던 골목길은 삶 속에서 점차 사라져 갔다.

- ① 빠른 자동차 세상에도 출구 없는 골목길은 어디엔가 있기 마련이야.
- ② 외국의 큰길들에 비해 한국의 골목길은 너무 좁아. 이제는 우리 길도 더 넓어져야 할 때가 왔어.
- ③ 골목길도 사라지고 주거 문화도 변하고 있군. 우리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미래로 나아가갈 수 있어야 해.
- ④ 비좁은 골목길은 자동차 시대를 가로막는 장애물 중의 하나야. 단독주택들과 골목길은 한시바빠 사라져야 해.
- ⑤ 동네 주민들이 일하고 이야기 나누던 골목길은 자동차들이 다니기에는 너무 좁았지만 각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야.

27. <보기>를 참조할 때 반의어의 유형이 ㉠과 다른 것은?

—<보 기>—

국어의 등급 반의어는 중간 상태가 있기 때문에 두 단어를 동시에 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동장이 넓지도 좁지도 않다.’가 가능하다. 이에 비해 상보 반의어는 동시에 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① 살다-죽다
- ② 춥다-덥다
- ③ 좋다-싫다
- ④ 크다-작다
- ⑤ 빠르다-느리다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전 줄거리]

수성궁 옛터에서 풍류를 즐기려던 유영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우연히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나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된다. 수성궁에서 안평 대군과 궁녀들이 시를 짓고 있을 때 김 진사가 찾아오는데, 궁녀인 운영은 김 진사의 재주와 용모에 마음이 끌려 그를 사랑하게 되고, 김 진사 역시 운영을 마음에 품게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안평 대군이 진노하여 운영을 죽이려 하지만, 다른 궁녀들이 이를 만류한다.

자란이 초사(招辭)\*를 올려 말했습니다.

“오늘의 일은 죄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니,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어떻게 차마 속이겠습니까? 저희들은 모두

항간(巷間)의 천한 여자로 아버지가 순(舜)임금도 아니며 어머니는 아황(娥皇)과 여영(女英)도 아닙니다. 그러니 남녀의 정욕이 어찌 유독 저희들에게만 없겠습니까? 천자인 목왕도 매번 요대의 즐거움을 생각했고, 영웅인 항우도 휘장 속에서 눈물을 금하지 못했는데, 주군께서는 어찌 운영만이 유독 운우지정(雲雨之情)이 없다 하십니까? 김생은 곧 우리 세대에서 가장 단아한 선비입니다. @그를 내당(內堂)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주군의 일이었으며, 운영에게 버루를 받들라 한 것은 주군의 명이었습니다. 운영은 오래도록 깊은 궁궐에 갇혀 가을달과 봄꽃에 매번 성정(性情)을 잃었고, 오동잎에 떨어지는 밤비에 애가 끊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호남(豪男)을 한 번 보고서 심성(心性)을 잃어버렸으며, 마침내 병이 골수에 사무쳐 비록 불사약이나 월인(越人) 명의(名醫)의 재주라 할지라도 효험을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운영이 하루 저녁에 아침 이슬처럼 스러진다면, 주군께서 비록 측은한 마음을 두시더라도 돌이켜 보건대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김생으로 하여금 운영을 만나게 하여 두 사람에게 맺힌 원한을 풀어주신다면, 주군의 적선(積善)이 이보다 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날 운영이 훼손(毀節)한 것은 죄가 저에게 있지 운영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의 이 한마디 말은 위로는 주군을 속이지 않고 아래로는 동료로 저버리지 않았으니, 오늘의 제 죽음 또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주군께서는 운영의 목숨을 잇게 해 주십시오.”

옥녀가 초사를 올려 말했습니다.

“서궁(西宮)의 영광을 제가 이미 함께 했는데, 서궁의 재난을 저만 홀로 면하겠습니까? 곤강(崑崗)에 불이 나서 옥석구분(玉石俱焚)\*\*하였으니, 오늘의 죽음은 제가 마땅히 죽을 곳을 얻은 것입니다.”

제가 초사를 올려 말했습니다.

“주군의 은혜는 산과 같고 바다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능히 정절을 고수하지 못한 것이 저의 첫 번째 죄입니다. 지난날 제가 지은 시가 주군께 의심받게 되었는데도 끝내 사실대로 아뢰지 못한 것이 저의 두 번째 죄입니다. 죄 없는 서궁 사람들이 저 때문에 함께 죄를 입게 된 것이 저의 세 번째 죄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큰 죄를 짓고서 무슨 면목으로 살겠습니까? 만약 죽음을 늦춰 주실지라도 저는 마땅히 자결할 것입니다. 처분만 기다립니다.”

대군은 우리들의 초사를 다 보고 나서, 또다시 자란의 초사를 펼쳐놓고 보더니 점차 노기(怒氣)가 풀렸습니다.

이때 소옥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아뢰었습니다.

“지난날 중추절에 빨래하기를 성내(城內)에서 하지 말자고 한 것은 제 의견이었습니다. 자란이 밤에 남궁에 와서 매우 간절하게 요청하기에, 제가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배척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운영의 훼손은 죄가 제 몸에 있지 운영에게 있지 않습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주군께서는 제 몸으로써 운영의 목숨을 이어 주십시오.”

대군의 분노가 점차 풀어져서 저를 별당에 가두고, 그 나

머지 사람은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단 수건에 목을 매어 자결하였습니다.

[A] 진사가 붓을 들고 윤영이 옛일을 슬회한 대로 기록하니,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면서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한참 후 윤영이 진사에게 말했다.

“이 이하는 낭군께서 말씀하십시오.”

이에 진사가 윤영의 뒤를 이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윤영이 자결한 이후 궁중 사람들 가운데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통곡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통곡 소리가 궁문 밖까지 들렸으며, 저 역시 그 소리를 듣고 오랫동안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중략]

① 김 진사는 쓰기를 마치고 붓을 던졌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고 슬픈 울음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윤영이 위로하여 말했다.

“두 분이 다시 만나서 바라던 뜻이 이루어졌고, 원수인 노비 특도 이미 제거되어 분통함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비통함을 그치지 아니하십니까?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못함을 한탄하는 것입니까?”

김 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사례하여 말했다.

“◎우리 두 사람 다 원한을 품고 죽었습니다. 저승의 관리는 죄 없이 죽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의 즐거움도 인간 세상보다 덜하지 않는데, 하물며 천상의 즐거움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슬피하는 것은 대군이 한 번 패배한 이후로 고궁(古宮)에는 주인이 없으며, 까마귀와 참새가 슬피 울고 인적이 이르지 않아 슬픔이 극에 달한 때문입니다. 게다가 새로 병화(兵火)를 겪은 뒤에 화려했던 집들은 제가 되고 회칠한 담장은 모두 무너졌는데, 오로지 섬돌의 꽃은 향기롭고 뜰의 풀들만 무성합니다. 이렇듯 봄빛은 옛날의 정경을 바꾸지 않았으나 인사(人事)는 변하여 이처럼 바뀌었습니다. 다시 이곳에 와서 옛일을 회상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습니까?”

윤영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모두 천상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김 진사가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은 본래 천상의 선인(仙人)으로 오래도록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황께서 태청궁(太淸宮)에 납시어 저에게 옥원(玉園)의 과실을 따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저는 ④반도와 보배를 취해 사사로이 윤영에게 주었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옥황께서 속세에 적강시켜 인간 세상의 괴로움을 두루 겪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옥황께서 이미 전날의 잘못을 용서하고 삼청궁에 올라 다시 향안전(香案前)을 모시도록 하셨는데, 잠시 틈을 내어 폭풍 수레를 타고 옛날에 노닐던 속세를 다시 찾은 것뿐입니다.”

[중략]

◎윤영이 취하여 깜빡 잠이 들었다. 잠시 뒤 산새 울음소리에 깨어 보니, 안개가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이 어둑어둑하며 사방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다만 김 진사가 기록한 책 한 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윤영은 서글프고 하릴 없어 책을 소매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상자 속에 간직해 두고 때때로 열어 보며 망연자실하더니 침식을 모두 폐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명산을 두루 유람하였는데, 그 뒤로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작자 미상, 「윤영전」

\*초사: 조선 시대에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던 말 또는 글.

\*\*옥석구분: 옥과 돌이 모두 불에 탄다는 뜻으로, 선악 구별 없이 함께 화를 당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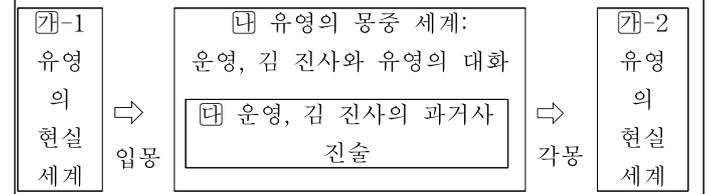
28. 윗글에 나타난 인물들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란은 본성을 근거로 윤영의 사랑을 옹호하고 있다.
- ② 윤영은 모든 잘못을 자기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고 있다.
- ③ 옥녀는 뚜렷한 자기 소신을 갖고 의리를 지키고자 한다.
- ④ 윤영은 세속적 삶의 의욕을 잃고 다른 곳으로 떠나간다.
- ⑤ 대군은 김 진사와의 의리 때문에 궁녀들을 용서하고 있다.

29. [A]와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작품은 일명 ‘수성궁몽유록’으로 불린다. 몽유록은 흔히 ‘입몽-토론-각몽’이라는 정형화된 서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인공이 우연히 꿈을 꾸게 되고, 꿈속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한 후 현실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난다. 윤영과 김 진사가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는 몽유록 서술 구조에서 ‘토론’에 해당한다. 이 작품은 복잡한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바, 여러 이야기 장면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2로 돌아온 윤영은 꿈꾸기 전과는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
- ② ㉡에서 언급된 안평 대군은 ㉢의 윤영, 김 진사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좌절된 인물이다.
- ③ ㉢의 과거사에서 김 진사와 노비 특은 갈등을 겪었을 것이다.
- ④ ㉢의 이야기는 윤영과 김 진사라는 일인칭 서술자의 입을 통해 진술된 것이다.
- ⑤ ㉢에 윤영과 김 진사가 안평 대군이 몰락한 일로 비통해하는 이유가 나타나 있다.

30.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운영은 고민과 갈등 끝에 결론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여성이군.
- ② 궁녀들은 대군에게 자신들의 죽음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일깨워 주고 있군.
- ③ 자란은 역사적 인물들의 고사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군.
- ④ 평생을 궁에 갇혀 지내는 궁녀라는 설정은 운영과 김 진사의 사랑에 비극성을 부여하고 있군.
- ⑤ 죽은 뒤 천상에서 복을 누리게 된 운영과 김 진사는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군.

31. ㉠~㉣ 중 사건 전개상 가장 앞서 일어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32. 윗글에 나타난 유영의 정서와 가장 가까운 것은? [3점]

- ① 얼굴 씻으며 눈물이 물을 이루고 / 거문고 타매 한스러움 현(絃)을 울리네 / 가슴속 원망 끝이 없어서 / 고개 들고 하늘에 하소연하네
- ② 가느다란 푸른 연기 멀리 바라보다 / 미인은 김 짜는 걸 그 만 두누나 / 바람 맞으며 홀로 설위하하니 / 날아가 무산(巫山)에 떨어지누나
- ③ 옛 궁궐의 버드나무와 꽃은 새봄을 띠었고 / 천 년의 호사 자주 꿈에 보이네 / 오늘 밤 놀러 와 옛 자취 찾노니 / 눈물이 수건 적심 금치 못하네
- ④ 서리 가득한 외로운 성에 군대 머무니 / 지는 달빛 아래 뿔 피리 소리 군막에 울리네 / 등불 앞에서 피로이 강남의 밤 생각하노라니 / 기러기는 울며 초나라로 돌아가누나
- ⑤ 베개 베도 호접몽(胡蝶夢) 이루지 못하고 / 눈 빠지게 기다리나 소식이 없네 / 그대 얼굴 눈앞에 어른거리건만 왜 말이 없는지? / 수풀에 피꼬리 우니 눈물이 옷을 적시네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내 님을 그리스와 우니다니  
 ㉠산(山) 접동새 난 이숫하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둘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르시리이다  
 녀시라도 님은 혼더 녀저라 아으  
 버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물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몰히 마리신더\*  
 슬웃븐더\*\* 아으  
 니미 나를 허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피오쇼셔

-정서, 「정과정」

\*몰히 마리신더: 못 사람들의 참소하는 말입니다  
 \*\*슬웃븐더: 슬프구나

(나)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 십이루(十二樓) 어디매오/ 오색  
 운 김폰 곳의 자청전(紫淸殿)이 ㄱ려시니/ 천문(天門) 구만  
 (九萬) 리(里)를 쏘이라도 갈동말동/ 츠라리 식여지여 억만  
 번 변화하여/ 남산 늦춘 봄의 두견(杜鵑)의 녀시 되어/ 이  
 화(梨花) 가디 우희 밤낮을 못 울거든/ 삼청 동리(三清洞裏)  
 의 점은 한널 구름 되어/ 바람의 홀리 느라 자미궁(紫微宮)  
 의 느라 올라/ 옥황 향안전(香案前)의 지척의 나아 안자/  
 흥중의 싸헌 말슴 쓸커시 스로리라/ 어와 이내 몸이 천지간  
 의 느저 나니/ ㉡황하수(黃河水) 물다만논 조객(楚客)\*의 후  
 신(後身)인가/ 상심(傷心)도 ㄱ이 업고/ 가태부(賈太傅)\*\*의  
 녀시러가 한숨은 무스 일고

- 조위, 「만분가」

\*조객: 중국 전국 시대 초나라의 시인 굴원. 간신들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귀양을 가 멍라수에 몸을 던졌다.  
 \*\*가태부: 중국 전한(前漢) 시대의 문인 가의(賈誼). 모함을 받아 좌천되자 자신을 굴원(조객)에 비유한 시를 써 억울함을 드러냈다.

(다)

님다히 소식(消息)을 아쁘려나 아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니일이나 사름 올라/ 내 마음 둘 더 업다 어드러로 가쟝 말  
 고/ 잠거니 밀거니 높픈 피희 올라가니/ 구름은카니와 안개  
 는 므사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엇디 보  
 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리(千里)랄 바라보랴/ 출하리  
 물ㄱ의 가 비 길히나 보라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등정  
 된더이고/ 샹공은 어디 가고 ㉢빈 빈만 걸렸는고/ 강턴(江  
 川)의 혼자 서서 디는 희를 구버보니/ 님다히 소식이 더욱  
 아득하더이고/ ㉣모첨(茅簷) 촌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늘 위하야 불갓는고/ 오르며 느리  
 며 헤쓰며 바니니/ 저근덧 녀진(力盡)하야 뜻증을 잠간 드  
 니/ 정성(精誠)이 지극하야 꿈의 님을 보니/ 옥 ㄱ튼 열구  
 리 반(半)이나마 늘거세라/ 마음의 머근 말슴 슬크장 숲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슴인들 어이허며/ 정(情)을 못다  
 하야 목이조차 메여하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잠은 엇디  
 씨뎡던고/ 어와 허스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  
 자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엇븐 그림재 날 조출 뿐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창  
 (窓) 안희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들이야크니와 구즌비나  
 되쇼셔

-정철, 「숙미인곡」

33. (가)~(다)에 나타난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4음보의 율격으로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② 감탄사를 활용하여 시상을 집약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 ③ 결핍 상태의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화자의 욕망을 노래하고 있다.
- ④ 화자가 현재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⑤ 화자는 대상(임)과 같은 공간에 놓여 있지만, 가까이하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34. (가)~(다)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산(山) 접동새'와 (나)의 '가태부(賈太傅)의 뉘'는 화자 자신을 비유한다.
  - ② (가)의 '괴오쇼셔'와 (다)의 '꿈'은 소망의 간절함을 담고 있다.
  - ③ (나)의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과 (다)의 '높픈 피'는 탈속적 공간을 의미한다.
  - ④ (나)의 '구름'과 (다)의 '비 길'은 화자의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통로이다.
  - ⑤ (다)의 '구름'과 '보람'과 '물결'은 화자의 소망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35. <보기>를 참고해 (가)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작자인 정서(鄭敍)가 역모에 가담했다는 죄명으로 귀양을 가게 되자, 의종(毅宗)은 “오늘은 어쩔 수 없으나, 가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왕의 소식이 없자, 정서는 왕에게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고 자신에게 한 약속을 상기시키고자 이 작품을 지었다. 이 작품은 왕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사랑하는 이와 헤어진 여성 화자의 마음에 빚대어 표현한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의 시초다.

- ① 1, 2행에서 접동새의 울음은 님에 대한 그리움과 억울함을 표상한다.
- ② 4행에서 잔월효성(殘月曉星)은 화자의 결백을 알고 있는 초월적 존재에 해당한다.
- ③ 5행에서 화자는 자신의 소망을 직접적 진술로 드러내고 있다.
- ④ 7행은 왕을 모시고 싶다는 화자의 충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10, 11행에는 원망과 그리움이라는 두 가지 정서가 교차되어 있다.

36. <보기>를 참고해 (다)의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정철의 「속미인곡」은 전체적으로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사는 주로 주 화자의 진술로 이루어져 있다. 서사에서 등장했던 보조 화자는 결사 부분에서 다시 나온다. 「속미인곡」에서 보조 화자가 말하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역할이 적지 않다.

- ① 보조 화자의 발화는 작품을 종결짓는 역할을 한다.
- ② 주 화자는 죽음을 감수할 정도로 절박한 심경에 놓여 있다.
- ③ 주 화자와 보조 화자는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 ④ 보조 화자는 입을 그리워하는 주 화자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
- ⑤ 보조 화자는 주 화자에게 사랑의 표현을 좀 더 완곡하게 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37. ㉠~㉢ 중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랑한다는 것은

열매가 맺지 않는 과목은 뿌리째 뽑고  
그 뿌리를 썩힌 흙 속의 해충은 모조리 잡고  
그리고 새 묘목을 심기 위해서  
깊이 파헤쳐 내 두 손의 땀을 섞은 흙  
그 흙을 깨끗하게 실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이어도  
바위 속보다 어두운 밤이어도  
그 어둠 그 밤을 새워서 지키는 일이다.  
흰한 새벽 햇살이 피질 때까지  
그 햇살을 뚫고 마침내 새 과목이  
샘물 같은 그런 빛 뿌리면서 솟을 때까지  
지키는 일이다. 지켜보는 일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전봉건, 「사랑」

(나)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 피진 말아라

㉡낮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겉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이육사, 「교목」

(다)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 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저 가 버리면  
억만(億萬) 세대가 그 뒤로 잡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데!” 독은 차서 무엇 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앓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데!”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  
임을

나는 독을 품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김영랑, 「독을 차고」

38. (가)~(다)의 화자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마음속에 소중한 가치를 간직하고 있다.
- ②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자 한다.
- ③ 윤리적 고민을 던지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자 한다.
- ④ 개인적 차원의 사랑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
- ⑤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39. (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정서를 애상적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상반된 함축적 의미를 가진 시어들을 활용하고 있다.
- ③ 공감각적 표현으로 생생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 ④ 계절의 변화를 드러내는 시어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 ⑤ 점층적 표현을 통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40. (나)의 ㉠~㉣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이상적인 세계’를 뜻한다.
- ② ㉡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을 가리킨다.
- ③ ㉢은 ‘마음속의 이상’을 가리킨다.
- ④ ㉣은 ‘부정적인 자아’를 가리킨다.
- ⑤ ㉣은 ‘시련’의 의미를 갖는다.

41. (다)에서 [독]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누구라도 해칠 수 있는 ‘내’ 안의 부정적 성향을 가리킨다.
- ② ‘나’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준다.
- ③ 부정적 현실로 인해 ‘내’가 간직해야 했던 삶의 태도를 가리킨다.
- ④ 부정적 현실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의미한다.
- ⑤ ‘나’로 하여금 허무주의적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한다.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악몽과 같은 전쟁이 끝났다.

[진영]은 아들 문수의 손을 잡고 황폐한 서울로 돌아왔다. 집터는 쑥대밭이 되어 축대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진영은 무심한 아이의 눈동자를 멍하니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있었다.

문수가 자라서 아홉 살이 된 초여름, 진영은 내장이 터져서 파리가 엉겨 붙은 소년병을 꿈에 보았다. 마치 죽음의 예고처럼

다음 날 문수는 죽어버린 것이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일찍부터 홀로 되어 외동딸인 진영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어머니는 ‘내가 죽을 거로.’ 하며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치는 것이었으나 진영은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앓다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 길에서 넘어지고 병원에서 죽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진영으로서는 전쟁이 빚어낸 하나의 악몽처럼 차차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었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의사의 무관심이 아이를 거의 생죽음을 시킨 것이다. 의사는 중대한 뇌수술을 엑스레이를 찍어보지 않고, 심지어는 약 준비도 없이 시작했던 것이다. ㉠마취도 안한 아이는 도수장(屠獸場)\* 속의 망아지처럼 죽어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다 버린 진영이었다.

바깥 거리 위에는 싸아 하며 밤비가 내리고 있었다.

누워서 멀거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진영의 눈동자가 이따금 불빛에 번뜩인다. 창백한 불이 불그스름해진다. 폐결핵에서 오는 발열이다.

바깥의 빗소리가 줄기차온다.

아이가 죽은 지 겨우 한 달, 그러나 천 년이나 된 듯한 긴 나날들이었다. ㉡눈을 감은 진영의 귀에 조수(潮水)처럼 밀려오는 것은 수술실 속의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중략]

아주머니가 가버린 뒤 진영은 자리에 쓰러졌다. 숨처럼 몸이 풀어진다.

진영은 방속에 피운 구멍탄 스토브에서 가스가 분명히 지금 방에 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 안에 가득히 가스가 차면 나는 죽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새 진영은 괴로운 잠이 드는 것이었다.

㉢내장이 터진 소년병이 꿈에 나타났다. 진영은 꿈을 깨려고 무척 애를 썼다.

“모레가 명절인데 절에도 돈 천 환이나 보내야겠는데……” 어렵פות이 들려오는 어머니의 말소리다. 진영은 몸을 들치며 눈을 떴다.

“귀신이나 사람이나 매한가진데…… 남들은 다 채 몫을 먹는데 우리 문수는 손가락을 물고 에미를 기다릴 거다.”

잠이 완전히 깬 진영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영은 외투와 목도리를 안고 마루에 나와 그것을 몸에 감았다.

진영은 부엌에서 성냥 한 갑을 외투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갔다. 오랫동안 마음속에서만 버려던 일을 오늘이야말로 해치울 작정인 것이다.

진영은 눈이 사박사박 밟히는 비탈길을 걸어 올라간다.

㉣진영은 고슴도치처럼 바짝 털이 솟은 자신을 느낀다.

목도리와 외투자락이 바람에 나부낀다. 그러면은 잡나무 가지 위에 앉은 눈이 외투 깃에 날아 내리는 것이었다.

진영은 절로 가는 것이다.

진영이 절 마당에 들어갔을 때 “당신네들 같으면 중이 먹고 살았수.” 하던 늙은 중이 막 승방에서 나오는 도중이었다. 절은 괴괴하니 다른 인기척은 없었다.

진영은 얼굴의 근육이 경련하는 것을 의식하며 중 옆으로 다가선다. “저 말이지요. 저희들이 이변에 시골로 가는데 아이 사진과

위패를 가지고 가고 싶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진영은 나지막하게 말한다. 허영게 풀어진 눈으로 진영을 쳐다보던 중이 겨우 생각이 난 모양으로, “이사를 하신다고요? 그럼 어머우. 그냥 두구려. 명절에 우편으로라도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지.”

진영은 숙인 고개를 발딱 세우더니 옆으로 책 돌리며, “참견할 것 없어요. 사진이나 빨리 주세요!” 쏘아붙인다. 중은 좀 어리둥절해하더니 무엇인지 모르게 중얼중얼 씩부렁거리며 법당으로 간다.

이윽고 중이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가지고 나오자 진영은 그것을 빼앗듯이 받아 들고 인사말 한마디 없이 절 문 밖으로 걸어 나간다. 화가 난 중은 진영의 뒷모습을 겨누어보다가 중얼중얼 씩부렁거리며 뒷간으로 간다.

진영은 중에게 화를 낸 것은 아니었다. 다만 진영으로서 빨리 사진을 받아 가지고 절 문 밖으로 나가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초조했던 것이다.

진영은 비탈길을 돌아 산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면서 진영은 이리저리 기웃거리다. 어느 커다란 바위 뒤에 눈이 없는 마른 잔디 옆에 이르자 진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리하여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놓고 물끄러미 한동안 내려다본다.

㉠한참 만에 그는 호주머니 속에서 성냥을 꺼내어 사진에다 불을 그어댄다. 위패는 이내 사라졌다. 그러나 사진은 타다 말고 불꽃이 잦아진다. 진영은 호주머니 속에서 휴지를 꺼내어 타다 마는 사진 위에 찢어서 놓는다.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다. 사진이 말끔히 타버렸다. 노르스름한 연기가 차차 가늘어진다.

진영은 연기가 바람에 날려 없어지는 것을 언제까지나 쳐다 보고 있었다.

“내게는 다만 쓰라린 추억이 남아 있을 뿐이다. 무참히 죽어버린 추억이 남아 있을 뿐이다!”

진영의 깎은 듯 고요한 얼굴 위에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겨울하늘은 매몰스럽게도 맑다. 잠목 가지에 었힌 눈이 바람을 타고 진영의 외투 깃에 날아 내리고 있었다.

“그렇지.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 있었다. 항거할 수 있는 생명!”

진영은 중얼거리며 잡나뭇을 휘어잡고 눈 쌓인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다.

\*도수장: 도살장

-박경리, 「불신시대」

42.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사건의 전개 과정이 우화적인 의미를 갖도록 서술하고 있다.
- ② 사건의 인과 관계가 느슨한 여러 개의 삽화를 연결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③ 특정 인물의 시각을 중심으로 사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사건의 실제적 전개보다 인물의 의식의 흐름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여러 인물들의 회상을 통하여 사건의 의미가 입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

43. 진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전쟁 중에 의사의 실수로 아들을 잃고 만다.
- ② 어머니와 어려서부터 사이가 좋지 않다.
- ③ 건강을 위협하는 병에 걸려 있다.
- ④ 연탄가스가 새는 집을 떠나고 싶어 한다.
- ⑤ 절의 늙은 중을 정성껏 응대하고 있다.

4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도수장(屠獸場) 속의 망아지’는 죽어간 아들의 끔찍한 모습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게 한다.
- ② ㉡: ‘밀려오는’ ‘조수’는 인물이 아이의 죽음을 잊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 ③ ㉢: 꿈에 나타난 ‘내장이 터진 소년병’은 인물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④ ㉣: ‘고슴도치처럼 바짝’ ‘숯은’ ‘털’은 인물이 앞으로 있을 싸움을 앞두고 몹시 화가 나 있음을 의미한다.
- ⑤ ㉤: ‘사진’을 태우는 행위에는 아들의 죽음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인물의 의지가 담겨 있다.

45. [A]를 중심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인공은 자신에게는 근본적인 생명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
- ② 주인공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 현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어.
- ③ 주인공의 경우처럼 전쟁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시련을 겪게 되는 것 같아.
- ④ 주인공처럼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버리면 안 되겠어.
- ⑤ 주인공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진 데에는 종교적 믿음이 부족한 것도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어.

※ 확인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2021학년도 경찰대학 1차 시험 (국 어)

※ 총 12쪽 45문항(2점 35문항, 3점 10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 1. 밑줄 친 ㉠, ㉡의 사례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로는 소리대로 적는 ㉠ 표음주의와 어법에 맞도록 적는 ㉡ 표의주의가 있다. 표음주의는 표기가 소리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적는 원리이다. 반면 표의주의는 형태를 밝혀 적는 것으로서, 간단히 말하면 동일한 형태소를 고정해서 적는 원리를 말한다.

- |   | ㉠   | ㉡   |
|---|-----|-----|
| ① | 쇠붙이 | 무르팍 |
| ② | 쓰레기 | 달맞이 |
| ③ | 달맞이 | 쇠붙이 |
| ④ | 코끼리 | 쓰레기 |
| ⑤ | 무르팍 | 코끼리 |

### 2. <보기>를 참고하여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의’의 표준 발음  
 - ‘니’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 다만(1),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 ‘니’는 [ ]로 발음한다. (예) 희망[희망]  
 - 다만(2),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 ], 조사 ‘의’는 [게]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예) 주의[주의/주이], 혐의[혐비/혐비], 우리의[우리의/우리예]

- ① ‘의식’을 [의식]으로 발음하면 표준 발음이군.
- ② ‘너희’를 [너희]로 발음하면 표준 발음이 아니군.
- ③ ‘논의’를 [논의]로 발음하면 표준 발음이 아니군.
- ④ ‘의의’를 [의의]로 발음하면 표준 발음이 아니군.
- ⑤ ‘너의 (집)’를 [너예]로 발음하면 표준 발음이군.

### 3. 밑줄 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음과 모음이 결합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 모음 중 하나가 탈락할 수도 있고, 두 모음이 합쳐져 하나의 이중 모음으로 바뀔 수도 있다. 둘 중 어느 변동이 일어나든 모음과 모음이 직접 결합하는 것을 막아 준다.

- |                |               |
|----------------|---------------|
| ① 비+어서 → [벼:서] | ② 피+어서 → [피서] |
| ③ 서+어서 → [서서]  | ④ 쓰+어서 → [쓰서] |
| ⑤ 크+어서 → [커서]  |               |

### 4. 다음 문장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나는 정성껏 만든 선물을 몰래 엄마에게 드렸다.
- 나는 예전에 존경하던 선생님께 편지를 보냈다.

- ① 세 자리 서술어가 쓰였다.
- ② 부사가 부사어로 나타난다.
- ③ 객체를 높이는 형태소가 쓰였다.
- ④ 관형어로 기능하는 간접문장이 있다.
- ⑤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품사가 나타난다.

### 5. ㉠에 속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그런데 접사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합성어로 분석되는 특이한 경우도 있다. ‘금목걸이’가 대표적이다. 이 단어에는 접사 ‘-이’가 결합되어 있지만 ‘금목걸이’는 파생어가 아닌 합성어이다. ‘금목걸이’를 둘로 쪼개면 ‘금’과 ‘목걸이’가 되는데, 이 둘은 모두 어근 또는 어근의 자격을 지니므로 ‘금목걸이’에 접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파생어가 될 수는 없다. 이처럼 ㉠ 접사가 포함되어 있어도 합성어로 분석되는 경우는 더 존재한다.

- |        |       |        |
|--------|-------|--------|
| ① 나뭇가지 | ② 병따개 | ③ 손가락질 |
| ④ 아침밥  | ⑤ 비웃음 |        |

### 6. <보기>에서 설명하는 사례에 속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한글 맞춤법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 ‘ㄹ’이 줄어들 적  
(예) 갈다: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
  2. 어간의 끝 ‘ㅅ’이 줄어들 적  
(예) 굶다: 그어 그으니 그었다
  3. 어간의 끝 ‘ㅎ’이 줄어들 적  
(예) 그렇다: 그러니 그러면 그러오
- ...

- |             |             |
|-------------|-------------|
| ① (가방에) 넣다  | ② (울음을) 울다  |
| ③ (젓가락을) 젓다 | ④ (색깔이) 벌겋다 |
| ⑤ (사이를) 잇다  |             |

7. 밑줄 친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동사 중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타동사, 그렇지 않은 것을 자동사라고 한다. 하나의 동사는 타동사 또는 자동사로만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때로는 ㉠ 동일한 동사가 타동사와 자동사로 모두 쓰이기도 한다. 예컨대 ‘움직이다’의 경우 ‘환자가 팔을 움직였다.’에서는 타동사, ‘환자의 팔이 움직였다.’에서는 자동사로 쓰이고 있다.

- ① [ 그는 사람들에게 천사로 불렸다.  
그는 갖은 방법으로 재산을 불렸다.
- ② [ 그는 수배 중에 경찰에게 잡혔다.  
그는 자기 집도 저당으로 잡혔다.
- ③ [ 그가 접은 배가 물에 잘 뗏다.  
그는 집에 가기 위해 자리를 뗏다.
- ④ [ 그가 부르던 노랫소리가 그쳤다.  
그는 하던 일을 갑자기 그쳤다.
- ⑤ [ 그는 품행이 매우 발랐다.  
그는 손에 연고만 발랐다.

8. 빈칸 ㉠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타다<sup>2</sup> [타다]  
 활용 타[타], 타니[타니]  
 「동사」  
 1. 【…에】 【…을】  
 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엮다. (예문) 비행기에 타다.  
 2. 【…을】  
 「1」 도로, 줄, 산, 나무, 바위 따위를 밟고 오르거나 그것을 따라 지나가다. (예문) 윈승이는 나무를 잘 탄다.  
 「2」 어떤 조건이나 시간, 기회 등을 이용하다. (예문) [ ㉠ ]  
 ...

- ① 썰매를 타려면 장갑을 꼭 끼어야 한다.
- ② 그는 따뜻한 차를 타서 천천히 마셨다.
- ③ 사람들은 틈을 타서 도주하려고 했다.
- ④ 아이들이 놀이 기구를 타러 가고 있다.
- ⑤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9.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글 자모 24자 중 모음을 나타내는 글자는 10개(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이다. 이것은 훈민정음의 중성자 11자 중 ‘·’가 없어진 결과이다. 이 글자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10개의 글자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적인 글자이다. 가령 ‘ㅝ’는 ‘ㅏ’와 ‘ㅓ’의 두 글자가 합쳐진 것이고 ‘ㅞ’는 ‘ㅓ, ㅕ, ㅣ’의 세 글자가 합쳐진 것이다.

- ① ‘ㅝ’는 ‘ㅏ’와 ‘ㅓ’의 두 글자가 합쳐진 글자이다.
- ② ‘ㅞ’는 ‘ㅓ’와 ‘ㅕ’의 두 글자가 합쳐진 글자이다.
- ③ ‘ㅞ’는 ‘ㅓ’와 ‘ㅓ’의 두 글자가 합쳐진 글자이다.
- ④ ‘ㅝ’는 ‘ㅓ’와 ‘ㅕ’의 두 글자가 합쳐진 글자이다.
- ⑤ ‘ㅞ’는 ‘ㅓ, ㅕ, ㅣ’의 세 글자가 합쳐진 글자이다.

10. ㉠~㉣ 중 ‘선혜’를 높이는 말이 아닌 것은? [3점]

善慧(선혜) 精誠(정성)이 ㉠至極(지극)호실씩 고지 소사나 거늘 조차 불러 사아지라 ㉡후신대 俱夷(구이) 니르샤디 大闕(대궐)에 ㉢보내스반 부텃고 받즈불 고지라 문호리라 善慧(선혜) 니르샤디 五百(오백) 銀(은) 도노로 다섯 줄기를 사아지라 俱夷(구이) ㉣물즈불샤디 므스게 ㉤쓰시리  
 [현대역] 선혜가 정성이 지극하시므로 꽃이 솟아나거늘 좇아서 불려 사고 싶다고 하시니, 구이가 이르시되 대궐에 보내어 부처께 바칠 꽃이라 못하리라. 선혜가 이르시되 오백은 돈으로 다섯 줄기를 사고 싶다. 구이가 물으시되 무엇에 쓰시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8년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인공 지능 화가 ‘오비어스’가 그린 『에드몽 드 벨라미(Edmond de Belamy)』라는 초상화가 43만 2천 달러(약 5억 원)에 낙찰되었다. 이 사건은 해묵은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인공 지능이 그린 그림을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적어도 누군가 돈을 주고 샀으니 예술품인 걸까? 우선 인공 지능이 그린 그림이 팔렸다는 사실 자체는 예술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두고 싶다. 5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조차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예술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있으리라. 예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그럴 것이다. 하지만 예술품이 일단 시장에 나오면 그것의 가치는 예술이 아니라 시장이 결정한다. 따라서 인공 지능의 그림이 경매에서 5억 원에 팔렸다는 사실 자체는 뉴스가 아니다. 누군가 이 그림이 앞으로 더 비싼 값에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거래에 있어 그림이 진짜 예술품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이 예술품인지 여부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E. H. 고프리치의 『서양미술사』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된다. “미술(art)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 미술가가 하는 일이 미술이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미술가는 누구인가? 미술 하느님 사람이 미술가니까 결국 자기 참조의 오류에 빠진 것이 아닌가? 고프리치의 말에는 심오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결과물이 미술품인지 판단하는 근거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만든 주체에 있다는 것이다.

미술가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할까? 2005년 ‘콩고’라는 침팬지가 그린 그림들이 약 2,500달러(약 250만 원)에 팔렸다. 콩고는 1964년에 죽었는데, 살아 있는 동안 수백여 점의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콩고가 그린 것이 예술품이냐는 문제에 있어 그림이 팔렸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인간이 만든 것만이 예술품이라면, 콩고의 작품은 예술품이 아니다. 하지만 작품은 언제나 작가에 의해 만들어질까?

앤디 워홀은 그의 작품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 앤디 워홀의 작품이 예술품이라면 기획이나 지시만으로도 예술품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 인간이 주체라면 의도만으로 예술품을 만들 수 있지만, 동물은 자신이 기획하고 직접 제작하더라도 예술품을 만들 수 없다. 동물은 자신이 그린 그림의 지적 재산권도 가질 수 없다. 동물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과물에 대한 법적 권리가 예술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까? 법인(法人)은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의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재단 법인은 소송, 소유, 계약에서 재물(財物)이 인간의 권리를 갖는 것인데, 인간의 모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재단 법인이 그린 미술품은 없다. 하지만 인간은 필요하다면 자신의 권리 일부를 법인이라는 비인간에게 줄 수 있다.

미술가를 인간으로 국한하더라도 인공 지능이 그린 그림은 예술품이 될 수 있다.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인공 지능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면 된다. 아니면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인간이 조금이라도 개입하면 된다. 인공 지능은 칠판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인간을 흉내 낼 수 있다. 아니, 기술적으로는 웬만한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인공 지능의 작품이 예술품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어쩌면 예술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믿음뿐이다. 결국 인공 지능이 그린 그림이 예술품이냐는 질문은 논리나 예술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법인과 같이 인간이 자신이 가진 예술적 권리의 일부를 인공 지능에 양도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때부터 인공 지능은 예술가가 될 것이다.

**11. 밑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질문을 제시하여 쟁점 사항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② 대상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논쟁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 ③ 인과 관계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사회적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
- ④ 다양한 가설을 명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충돌되는 견해의 유사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적절한 예시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주장에 내포된 공통점을 부각하여 설명하고 있다.

**12. 밑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칠판지의 그림이 팔렸다는 데서 칠판지도 그림의 지적 재산권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인간만이 예술품을 창작할 수 있다는 믿음은 인공 지능이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근본 바탕이 된다.
- ③ 예술품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에 의거하여 인공 지능의 그림이 경매에서 거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재단 법인은 인간에게 소송, 소유, 계약의 권리를 부여받더라도 예술품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없다.
- ⑤ 예술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가운데 그림의 가치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있다.

**13. 하는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엄마가 갑자기 무서운 얼굴을 했다.
- ② 내 친구는 건강한 삶을 목표로 했다.
- ③ 오늘은 가족들이 점심으로 냉면을 했다.
- ④ 범인은 그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했다.
- ⑤ 그는 대학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전공을 했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2009년 소더비 경매에서 앤디 워홀의 작품 「200개의 1달러 지폐」는 4,380만 달러(약 500억 원)에 팔렸다. 인공 지능 화가 오비어스가 그린 그림의 100배 가격이다. 앤디 워홀의 작품은 제목 그대로 1달러 지폐 200장이 가로 열 개, 세로 스무 개로 열을 맞춰 놓여 있다. 1달러 지폐는 전문 판화가가 제작한 것이다. 앤디 워홀이 직접 한 일은 판화를 200번 찍은 것뿐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그마저도 다른 사람이 했을지 모른다. 이런 작품이 500억 원에 팔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 ① 앤디 워홀은 오비어스보다 그림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공력을 들였다.
- ② 앤디 워홀은 미술품을 직접 제작했지만 오비어스는 작품 제작을 직접 하지 않았다.
- ③ 앤디 워홀의 기획과 지시는 인간의 의도가 반영된 인공 지능의 창작과 크게 다를 바 없다.
- ④ 콩고가 그린 그림이 매매되었다는 것과 오비어스가 그린 그림이 매매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 ⑤ 오비어스가 그린 그림보다 콩고가 그린 그림이 앤디 워홀의 그림 수준에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고 할 수 있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오  
내악수를받을줄모르는-악수를모르는왼손잡이오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려마는  
거울이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했겠소

나는지금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에골몰할게요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요마는  
또꽤닮았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할수없으니꼭섭섭하오

- 이상, 「거울」

(나) 산모퉁이를 돌아 논 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A]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B]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C]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D]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E]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  
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

(다)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 **엄동** 혹은 일수룩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 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컥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에꽃」

1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시의 표현 기법과 상식적 질서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자의식의 세계를 표출하고 있다.
- ② (나)는 병렬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현실적 상황과 대비되는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 ③ (다)는 은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대립과 갈등을 직접적으로 표면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시적 대상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6. (가)의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거울 속에도 세상이 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느낀다.
- ② 거울 속의 자신과 악수를 시도하지만, 거울 속의 자신은 악수를 받을 수 없다고 여긴다.
- ③ 거울 속의 자신에게 대화를 시도하지만, 거울 속의 자신은 귀가 있으면서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 ④ 거울 속의 자신과 단절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거울이 있기에 거울 속의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⑤ 거울을 안 쳐다볼 때도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울 속의 자신과 늘 함께 행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17. [A]~[E]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화자는 우물 속의 평화로운 풍경을 보면서 현실에 비판적인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드러낸다.
- ② [B]: 화자는 현실 초월적인 자신의 모습에 슬픔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③ [C]: 화자는 현재 상황과 비판적 거리를 둬으로써 미래에 대한 동경의 자세를 드러낸다.
- ④ [D]: 화자는 자신에 대한 애증을 반복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타협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⑤ [E]: 화자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연의 모습을 통해 과거의 자신을 추억하는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낸다.

18. ㉠~㉤에서 의미하는 시적 대상이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9. ‘거울’, ‘우물’, ‘차창’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거울’은 사회를 반영하는 대상으로 현실 비판의 매개체로 작용한다.
- ② ‘우물’은 바라봄과 드러남의 양면성을 통해 현대인의 불안 의식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 ③ ‘차창’은 시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통로가 된다.
- ④ ‘거울’과 ‘차창’은 밖과 안의 대비를 통해 단절된 자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부각한다.
- ⑤ ‘우물’과 ‘차창’은 자기 자신을 긍정의 대상으로 심화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점에서 동질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작권은 표현에 미치고, 표현의 바탕이 되는 아이디어에는 미치지 않는다. 저작물의 보호 요건인 창작성의 판단 역시 표현에만 적용된다. 비록 아이디어가 진부하다 할지라도 그 표현이 ㉠ 어떤 것을 모방하지 않은 독자적 성격을 띤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이러한 기준을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이라 한다. 저작권법에서 이렇게 표현과 아이디어를 구별하여 표현만 보호하는 이유는 ㉡ 어떤 아이디어를 특정 사회 구성원의 소유로 하는 것이 문화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는 제한 없이 공유되고 소통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먼저 착안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아이디어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 자칫 헌법적 권리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자유로운 토론이 제약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의 의의가 있다.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착상(conception)이 특허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실제 저작물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을 분리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소설을 예로 들자면, 개별적 사건에 관한 서술은 표현에 가깝겠지만 그 사건을 구성하는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 등은 표현과 아이디어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 즉,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인가에 따라 표현에 가까워졌다가 다시 아이디어에 가까워지고는 한다. 저작권 침해 사건을 심리할 때 이 문제가 종종 심각하게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창작자와 미래의 창작자 양쪽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선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표현으로 보호하는 범위를 너무 좁게 함으로써 현재의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꺾는다거나, 반대로 그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함으로써 미래의 창작자가 창작 활동에 제한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표현이라 할지라도 특정한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논리적으로든 사실적으로든 매우 제한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가 부인되기도 한다. 크게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들 중 ㉢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느냐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먼저 ‘합체의 원칙’이다. 특정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당초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 오직 그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달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표현에 대하여는 저작권 보호가 부인된다. 만일 그러한 표현마저 저작권으로 보호하면 그와 합체되어 있는 아이디어까지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져 필연적으로 아이디어에 대해 독점권 내지 배타적 이용권을 부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실상의 표준’이다. 처음 창작을 할 당시에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 어떤 표현 방법이 업계의 표준으로 굳어져 통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그와 같은 표현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면 후발 업자는 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어 경쟁이 제한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사실상의 표준은 사후적인 합체에 해당하므로 최초 창작자의 권리가 충

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끝으로 ‘필수 장면’이다. 합체의 원칙이 주로 기능적인 저작물에 적용된다면, 필수 장면은 예술적 저작물에 주로 적용된다. ㉤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당연히 도입해야만 하는 사건 또는 장면이나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유형과 같은 요소들은 설사 그것이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까지만 저작권을 적용한다면, 장래의 다른 창작자가 창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및 발전을 추구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 밑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저작권에 대한 이론의 변천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저작권의 개념과 그 유래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③ 저작권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자세히 정리하고 있다.
- ④ 저작권에 관한 심화 내용을 구체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⑤ 저작권에 관해 쟁점이 된 사건을 유형별로 검토하고 있다.

21. 밑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이디어와 착상은 법적으로 서로 다르다.
- ②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③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별하는 것은 판단하는 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④ 최초 창작자의 이익 보호는 특허법의 소관 사항이어서 저작권과는 무관하다.
- 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저작권의 보호 범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

22. 밑글을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유명 작가의 그림을 베껴 그리면 저작권 침해이지만 미대생의 습작을 베껴서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데, 이는 가치가 인정된 표현에만 저작권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② 요리책을 복사해서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이지만 책에 소개된 요리 방법을 따라서 요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데, 이는 요리 방법이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③ 가위바위보의 승패 규칙을 설명하는 출판물을 제작할 때 그 설명 방식이 기존 출판물의 것과 같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데, 이는 ‘합체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④ 시판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배열로 컴퓨터 자판을 제작하여 판매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데, 이는 ‘사실상의 표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⑤ 황량한 들판에서 이루어지는 두 총잡이의 결투 장면을 새로 제작하는 서부 영화에 삽입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데, 이는 ‘필수 장면’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3. ㉠~㉤ 중 문맥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24~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왜군이 조선을 침범하여 의주로 피란을 간상(上)은 명나라에 원군(援軍)을 청한다. 이에 제독 이여송이 원군을 이끌고 조선에 들어온다.

차설. 제독이 의주에 사람을 보내어 상을 청하거늘, 상이 즉시 의주를 떠나 경성에 이르러 이여송을 보사 공로를 치사하시고 설연관대하실새, 천자가 사자를 보내어 왕상을 위로하시고, 용포(龍袍) 일령을 사송(賜送)하시며 제독에게 식물(食物)을 사급(賜給)하시, ‘호군(犒軍)하라.’ 하시니, 상과 제독이 북향사배한 후 다시 술을 나누어 서로 권하시더니, 계수나무 버러지 삼십 개를 내어 놓으며 왈,

“이것을 서촉 해조국에서 제공하나니, 하나의 값이 삼천냥이라. 사람이 먹으면 더디 늙기로 이제 조선왕을 대접하사 보내시니이다.”

하고, 저를 들어 버러지 허리를 집으니 발을 허위며 괴이한 소리를 지르니, 부리 검고 빛은 오색을 검하였으니 보기 가장 황홀한지라. 상이 처음으로 보시매 차마 진어치 못하사 주저하시니, 제독이 소왈,

“세상에 희귀한 진미를 어찌 진어치 아니하시나뇨?”

하며, 그것을 집어먹으니 보는 자 눈썹을 찡그리더라. 상이 무료하사 안색을 변하시니, 이항복이 생낙지 칠 개를 담아 드리거늘, 상이 저로 진어하실새 낙지 발이 저에 감기며 수염에 부딪치는지라. 상이 제독에게 권하신대, 제독이 낙지 거동을 보고 눈썹을 찡그리며 능히 먹지 못하니, 상이 소왈,

㉠ “대국 계충(桂蟲)과 소국 낙지를 서로 비하매 어떠하뇨?”

㉡ 제독이 웃고 다른 말 하더라.

[중략]

남원이 이미 함몰하매 전주로부터 망풍와해(望風瓦解)하니, 이로 인하여 양원호 북주(北走)하니라. 이때, 적이 승승장구하여 각읍 수령이 다 도망하되, 오직 의병장 광재우만이 화왕산성에 올라 굳게 지키더니, 적이 이르러 분즉 산세가 험한지라. 감히 치지 못하고 물러가거늘, 재우가 군사를 몰아 도적의 뒤를 엄살하니 적이 패주하다가 황석산성을 치거늘, 김해 부사 백사림과 안의 현감 광준과 함양 군수 조종도가 성중에 있다가 불의지변을 만나매, 인심이 소동하여 사산분주하니 광준이 싸우다가 죽으니라.

[A]

광준의 여자가 그 지아비 유문호로 더불어 한가지로 아버지를 좇아 성중에 피란하였더니, 그 아버지와 오라비 이미 죽고 그 지아비 또한 도적에게 잡힘을 듣고 탄식 왈,  
“이제 아버지와 지아비를 잃었으니 내 홀로 살아 무엇 하리오?”

하고, 목매어 죽으니라.

각설. 순신이 전선 수십 척을 거느려 진도 벽파정 아래 결진하였더니, 적장 마득시가 전선 이백여 척을 거느려 오거늘, 순신이 배에 대포를 싣고 순풍을 좇아 나오며 어지러이 놓으니 적장이 당치 못하여 달아나거늘, 순신이 뒤를 따라 일진을 짓치고 적장 마안등을 배어다가 군정에 대진한지라. 드디어 고금도에 결진하니 군사가 이미 팔천여 인이요,

남녘 백성이 피란하여 오는 자가 수만이라.

무술 칠월에 천주 수군 도독 진인이 경성에서 장차 고금도에 나아가 순신으로 더불어 적을 치려 하여 발행할새, 상이 강두(江頭)에서 진송한지라. 진인의 천성이 본디 강포하매 두려워하는 자가 많은 고로, 진인의 군사가 수령을 욕매(辱罵)하여 조금도 기탄함이 없고, 찰방 이상규를 무수 난타하여 유혈이 낭자한지라. 상이 근심하사 순신에게 전지(傳旨)하여,

“진인을 후례(厚禮)로 대접하여 촉노(觸怒)함이 없게 하라.”

하시다. 이순신이 진인의 일을 듣고 주육을 준비하여 진인을 맞아 예필하고, 일변 잔치를 배설하여 진인을 관대하고, 일변 천병을 공궤(供饋)하니, 군사가 서로 일러 왈,

“과연 양장(良將)이라.” 하고, 진인이 또한 기꺼하더라.

일일은 도적 수백 척이 나오거늘, 순신과 진인이 각각 수군을 거느려 녹도에 이르니 적이 아군을 바라보고 짐짓 뒤로 물러가며 아군을 유인하니, 순신이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올새, 진인이 수십여 척을 머물러 싸움을 돕게 하니라. 진인이 순신으로 술을 먹더니 진인의 휘하 천총(千總)이 전라도로부터 돌아와 가로되,

“오늘 아침에 도적을 만나 조선 군사는 도적 백여 명을 죽이되, 천병은 풍세가 불리하여 하나도 잡지 못하였다.”

하니, 진인이 대로하여 천총을 등 밀어 내치고 잡았던 술잔을 땅에 던지니, 순신이 그 뜻을 알고 가로되,

“㉢ 노야(老爺)는 천조 대야(大爺)로 이곳에 이르렀으니 우리 승첩은 곧 노야의 승첩이라. 진중에 이른 지 불구에 첩서를 천조(天朝)에 보하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리오?”

진인이 대희하여 순신의 손을 잡고 왈,

“내 일찍 그대의 성명을 우레같이 들었더니 과연이로다.”

하고, 다시 술을 내와 즐기니라. 이로부터 진인이 순신의 진에 있어 그 호령이 엄정함을 탄복할 뿐 아니라, 저의 전선이 도적 막기에 불편하매, 매양 진을 임하여 아국 판옥선(板屋船)을 타고 순신의 지휘를 좇으며 ㉣ 반드시 ‘이야(李爺)’라 일컫고, 인하여 천조에 주문(奏聞)하되,

“통제사 이순신이 경천위지지재(經天緯地之才)를 품었고 보천욕일지공(補天浴日之功)이 있다.” 하더라.

천병이 비록 순신의 위엄을 기탄(忌憚)하나 민간의 작폐가 가장 많으니, 일일은 순신이 하령하여 도종의 대소 여사(旅舍)를 불 지르고 자기 의금(衣衾)을 수습하여 배에 내리치더니, 진인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가정을 보내어 연고를 물은대, 순신 왈,

“소국 군민이 천병 믿기를 저의 부모같이 하거늘, 천병이 노략함을 힘쓰니 사람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는지라. 내 이제 대장이 되어 무슨 낮으로 이곳에 머물리오? 이러므로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노라.”

하니, 가정이 돌아가 그대로 고하니, 진인이 대경하여 진도에 이르러 순신의 손을 잡고 만류하며 ㉤ 사람을 성중에 보내어 그 의금을 수운하여 드리고 간청하니,

순신 왈, “대인이 내 말을 들으면 어찌 서로 떠나리오?”

진인 왈, “내 어찌 공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오?”

순신 왈, “천병이 아국으로써 배신이라 하여 조금도 기탄함이 없으니, 만일 대인이 나로 하여금 제어케 하면 다른

염려가 없을까 하나이다.”

진인 왈, “이 일이 무엇이 어려우리오? 만일 죄를 범하는 자가 있거든 공이 임의로 처치하라.”

하니, 순신이 허락받은 후에 천병 중의 위령자(違令者)를 용서함이 없으니 천병이 두려워하기를 진인에게 지나더라.

- 작자 미상, 「임진록」

24.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삽화들을 제시하여 전체 사건의 여러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우의적 수법을 동원하여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서술자의 개입을 통한 주관적 논평을 중심으로 서술의 밀도를 높이고 있다.
- ④ 인물들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하여 다양한 주제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이원적 세계를 설정하여 천상계의 갈등이 지상계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2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항복’이 ‘생낙지 칠 개’를 담아 올린 것은 ‘이여송’이 ‘생낙지’를 좋아하리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 ② ‘진인’의 군사가 조선의 관리를 거리낌 없이 모욕하고 구타한 것은 ‘진인’의 위세를 방자하였기 때문이다.
- ③ ‘진인’이 전선 ‘수십여 척’을 머물러 지키게 한 것은 왜군과의 싸움에서 공을 세울 의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 ④ ‘진인’이 ‘천총’을 내친 것은 ‘천총’이 자신에게 실제 상황과는 다르게 전황을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 ⑤ ‘이순신’이 ‘여사’에 불을 지르고 ‘의금’을 수습한 것은 당장은 승산이 없다고 여겨 장차 진을 옮기려 하였기 때문이다.

2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방의 무례한 행위를 넉넉히 일깨우려는 뜻이 담긴 발화이다.
- ② ㉡: 상대방의 질책에 반응하여 잘못을 뉘우치게 인정하는 뜻이 담긴 행동이다.
- ③ ㉢: 상대방의 능력을 칭송하며 그에 대해 감탄하는 뜻이 담긴 발화이다.
- ④ ㉣: 상대방을 특별히 공경하고 우대하는 뜻이 담긴 행동이다.
- ⑤ ㉤: 상대방의 결정이 번복되기를 바라는 뜻이 담긴 조치이다.

27. [A]를 통해 작품 속 상황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세의 변화에 따라 적의 행로나 목적지가 바뀌기도 하였다.
- ② 적의 세력이 강하다는 풍문 때문에 싸우지도 않고 도망치기도 하였다.
- ③ 집안 남성들의 상황에 따라 여성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이 영향을 받았다.

④ 전란 중에 많은 수령들이 싸움을 회피했지만 끝까지 항전한 수령도 있었다.

⑤ 산성을 지키면서 적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은 의병장과 일부 수령의 공통된 전략이었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임진록」에는 민족적 자긍심과 울분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는 조선에 뛰어난 인물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외세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흔히 구현되는데, 특히 외세에 대한 반감은 왜군뿐 아니라 원군으로 조선에 온 명군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작품에는 민중의 생각과 정서가 깊숙이 반영되어 있다. 작품 속 인물들이 백성을 위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 ① ‘이여송’과 ‘진인’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왜군뿐 아니라 명군에 대해서도 반감이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겠군.
- ② ‘상’이 ‘천자’의 위로를 받고 ‘용포’를 하사받는 내용은 백성을 위하는 뛰어난 인물이 조선을 다스린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한 것이겠군.
- ③ ‘곽준’의 가족들이 죽는 장면이 제시된 것은 왜군에 대한 분노가 반영된 결과이겠군.
- ④ ‘진인’이 ‘이순신’의 역량을 인정하여 그 사실을 명나라 조정에게까지 보고한 대목은 조선에 뛰어난 인물이 존재한다는 점을 드러내려는 의도와 연관되었겠군.
- ⑤ 명군의 노략질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는 ‘이순신’의 모습을 통해 백성을 위하는 인물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겠군.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럽이나 북미의 서구인들은 발달된 산업 사회에서 많은 과학적 성과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 지역의 원주민들은 21세기에 들어와도 여전히 수백 년 전의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인류 역사의 발달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약탈과 정복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언뜻 생각하기에 이러한 불평등은 지역마다 서로 다른 역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도 한데,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 주는 바가 거의 없다. 지역마다 다른 역사가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유력한 주장 중 하나는 발전된 과학 기술이나 사회 제도의 출현 여부와 결부 짓는 것이다. 발달된 문명을 가진 지역의 경우에는 과학이 발달해 있고, 정치 체제를 비롯한 사회 구조도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반면 낮은 수준의 문명을 가진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확실히 틀린 주장

은 아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 과연 지역에 따라 과학 기술이나 사회 제도의 발달이 차이를 보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다소 관점이 다른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생물학적 관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견해로, 각 지역별 인종의 능력 차이가 문명 발달의 차이를 일으켰다고 보는 것이다. 즉, 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선천적 능력 때문에 어떤 지역은 높은 문명을 발달시키고 어떤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으로 금기시하는 인종주의를 추구하는 견해에 다름 아니다. 사실 낮은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에 의해 얼마든지 과학 기술을 숙지하고 사회 제도도 갖출 수 있다. 특히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삶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낮은 문명의 사람들이 높은 문명의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보여 준다. 그런 점에서 생물학적 관점은 타당한 견해로 수용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환경적 관점으로, 각각의 지역이 처한 생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문명 발달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특히 농업의 발달과 이로 인한 잉여 생산물의 축적이 가능한 자연환경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진 지역은 사람들의 역할 분담을 통한 전문인의 배출이 가능하고, 유산자와 무산자의 구분과 이에 동반되는 사회 구조의 정립 등이 뒤따르면서 결국 현재와 같은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다. 반면 농업 발달이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은 문명 발달도 지연되었고 그러한 상태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예전에는 이러한 견해가 환경 결정론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그 중요성이 무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연 과학, 유전학, 분자 생물학, 생태 지리학, 고고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성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은 생물학적 관점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다.

29.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문명의 발달은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졌다.
- ② 문명 발달의 차이는 정복이나 약탈로 이어지기도 했다.
- ③ 문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제약의 극복이 중요하다.
- ④ 문명의 발달을 인종 사이의 능력 차이와 결부 짓기는 어렵다.
- ⑤ 문명이 발달한 지역은 과학 기술이나 사회 제도가 발달해 있다.

30. 밑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 ②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다.
- ③ 같은 질문에 대한 이견을 소개하며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 ④ 다양한 사례를 들어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쟁점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여 일관된 해결책을 정립하고 있다.

31. (a)와 (b)의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폴리네시아의 여러 섬 중에서 자연환경이 좋고 토지가 비옥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경제 규모도 더 크고 계급 분화 등의 사회적 복잡성도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  
 (b) 가뭄이 빈번하고 토양이 척박한 오스트레일리아의 토러스 해협 인근 지역과 영구적인 큰 강이 많고 화산 활동 등으로 토양이 비옥한 뉴기니는 거리상으로 멀지 않지만 문화적으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① (a)는 ㉠의 사례로, (b)는 ㉡의 사례로 활용한다.
- ② (a)는 ㉠의 사례로, (b)는 ㉡의 반례로 활용한다.
- ③ (a)와 (b)를 모두 ㉠의 사례로 활용한다.
- ④ (a)와 (b)를 모두 ㉡의 반례로 활용한다.
- ⑤ (a)와 (b)를 모두 ㉡의 사례로 활용한다.

32. 밑글의 관점에서 <보기>의 상황을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세계사의 서술 범위는 대체로 문자가 쓰이고 이를 통한 역사 서술이 이루어진 약 5,000년 동안의 시기에 집중되며, 서술의 대상은 이집트나 중국 등 발전된 문명을 가진 경우가 중심이 되는 경향이 있다.

- ① 세계사의 서술 범위가 좁아져서 모든 문명의 발달 과정을 다루지 못한다.
- ② 문명 발달 자체가 불평등하게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 ③ 문명 발달의 요인을 비윤리적인 측면에서 찾음으로써 도덕적 문제를 야기한다.
- ④ 특정 지역의 문명에만 가치를 두게 되어 문명들 사이의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 ⑤ 미시적이고 주변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되어 문제 해결의 핵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인간 세상 사람들이 아내 말씀 들어 보소  
 인간 만물 생긴 후에 금수 초목 짝이 있다  
 인간에 생긴 남자 부귀 자손 같건마는  
 아내 팔자 험곳을손 날 같은 이 또 있든가  
 백 년을 다 살아야 삼만 육천 날이로다  
 ㉡ 혼자 살면 천년 살며 정녀(貞女) 되면 만년 살까  
 답답한 우리 부모 가난한 좀 양반이  
 ㉢ 양반인 체 도를 차려 처사가 불민(不敏)하여  
 괴망을 일삼으며 다만 한 딸 늙어 간다  
 적막한 빈방 안에 적료하게 홀로 앉아  
 전전반측 잠 못 이뤄 혼자 사설 들어 보소  
 노망한 우리 부모 날 길러 무엇 하리  
 죽도록 날 길러서 잡아 쓸까 구워 쓸까  
 인황씨 적 생긴 남녀 복희씨 적 지은 가취(嫁娶)  
 인간 배필 혼취(婚娶)함은 예로부터 있건마는

㉞ 어떤 처녀 팔자 좋아 이십 전에 시집간다  
 남녀 자손 시집 장가 뗏뗏한 일이건만  
 이내 팔자 기험(奇險)하야 사십까지 처녀로다  
 이런 줄을 알았으면 처음 아니 나올 것을  
 월명 사창 긴긴 밤에 침불안식 잠 못 들어  
 적막한 빈방 안에 오락가락 다니면서  
 장래사 생각하니 더욱 답답 민망하다

㉟ 부친 하나 반편(半偏)이요 모친 하나 숙맥불변(菽麥不辨)  
 날이 새면 내일이요 세가 쇠면 내년이라  
 혼인 사설 전폐하고 가난 사설뿐이로다  
 어디서 손님 오면 행여나 중매신가  
 아이 불러 힐문한 즉 ㉠ 풍헌(風憲) 약정(約正) 환자(還子) 재촉  
 어디서 편지 왔네 행여나 청혼선가  
 아이더러 물어보니 외삼촌의 부음이라  
 애고애고 설운지고 이내 간장 어이할꼬  
 앞집에 아모 아기 벌써 자손 보단 말가

㉡ 동편 집 용골녀는 금명간에 시집가네  
 그동안에 무정 세월 시집가서 풀련마는  
 친구 없고 혈족 없어 위로할 이 전혀 없고  
 우리 부모 무정하여 내 생각 전혀 없다

㉢ 부귀빈천 생각 말고 인물 풍채 마땅커든  
 처녀 사십 나이 적소 혼인 거동 차려 주오

㉣ 김동(金童)이도 상처(喪妻)하고 이동(李童)이도 기처(棄妻)로다  
 중매 할미 전혀 없네 날 찾을 이 어이 없노

감정 암소 살져 있고 봉사 전답 같건마는  
 사족 가문 가리면서 이대도록 늙히노니  
 연지분도 있건마는 성적 단장(成赤丹粧) 전폐하고  
 감정 치마 흰 저고리 화경 거울 앞에 놓고

[A] 원산 같은 푸른 눈썹 세류 같은 가는 허리  
 아름답다 나의 자태 묘하도다 나의 거동  
 흐르는 이 세월에 아까울손 나의 거동  
 거울더러 하는 말이 어화 답답 내 팔자여  
 갈데없다 나도 나도 쓸데없다 너도 너도

우리 부친 병조 판서 할아버지 호조 판서  
 우리 문벌 이러하니 풍속 좃기 어려워라  
 아연듯 춘절 되니 초목 군생 다 즐기네  
 두견화 만발하고 잔디 잎 속잎 난다  
 삭은 바자 쟁쟁하고 종달새 도루 뜬다  
 춘풍 야월 세우 시에 독수공방 어이할꼬

㉤ 원수의 아이들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앞집에는 신랑 오고 뒷집에는 신부 가네  
 내 귀에 듣는 바는 느낄 일도 하도 많다  
 녹양방초 저문 날에 해는 어이 수이 가노  
 초로 같은 우리 인생 표연히 늙어 가니  
 머리채는 옆에 끼고 다만 한숨뿐이로다  
 긴 밤에 짝이 없고 긴 날에 벗이 없다  
 앉았다가 누웠다가 다시금 생각하니  
 아마도 모진 목숨 죽지 못해 원수로다

- 작자 미상, 「노처녀가」

3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가 겪고 있는 문제적 상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한탄하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화자의 정서를 순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의지적 어조를 통해 미래의 상황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상징적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 심리를 추상적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면서 화자가 겪어 온 갈등의 양상을 상세화하고 있다.

34.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화자의 사연을 듣도록 설정된 청자로서 화자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존재이다.
- ② ㉡: 화자가 선망하는 대상으로서 화자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그의 앞날을 축복하고 있다.
- ③ ㉢: 화자와 아픔을 공유해 왔던 친구로서 화자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친구를 비난하고 있다.
- ④ ㉣: 화자가 자신의 배필이 될 수도 있다고 여기는 대상으로서 화자는 그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⑤ ㉤: 화자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소식들을 전해 주는 존재로서 화자는 그들과의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

35.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시간의 흐름을 안타까워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
- ② 화자는 시집을 가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 ③ 화자는 단장할 도구는 지니고 있지만 시름에 싸여 있어서 단장을 하지는 않는다.
- ④ 화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대구로 표현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 ⑤ 화자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를 주고받음으로써 다소간 위안을 얻고 있다.

36.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노처녀가」에 나타나는 갈등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노처녀가」에는 부모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반발, 양반 계층의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 본성의 억제를 당연시하는 재래적 관념에 대한 거부, 개인의 행복보다 집단의 안위를 중시하는 폭압에 대한 저항 등이 발견된다.

- ① ㉠: 본성이 억제된 삶의 모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
- ② ㉡: 양반이라는 지위에 집착하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허위의식을 폭로하고 있다.

- ③ ㉔: 부친과 모친의 어리석음을 직접적인 어휘로 표출함으로써 부모의 절대적 권위에 반발하고 있다.
- ④ ㉔: 끊임없는 수탈을 고발함으로써 개인의 행복보다 집단의 안위를 앞세우는 폭압에 저항하고 있다.
- ⑤ ㉔: 집단의 요구를 따르는 것보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37.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노처녀가」의 이본은 단형과 장형의 두 계열로 나뉘는데, 윗글은 단형 계열의 작품이다. 장형은 전반적인 내용은 단형과 유사하지만 묘사가 더 자세하고 해학적인 측면이 강화되어 있다. 또한 인물의 적극적인 행동이 부각되며 화자의 처지에 대한 동정적 시선이 발견된다. 장형 계열의 종결부에서는 ‘노처녀’가 평소 연모해 왔던 ‘김 도령’과 가상으로 혼례를 치르는 장면 등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이 알까 부끄러우나 안 슬픈 일 하여 보자  
 흥두께에 자를 매어 갓 씌우고 옷 입히니  
 사람 모양 거의 같다 쓰다듬어 세워 놓고  
 새 저고리 긴 치마를 호기 있게 떨쳐 입고  
 머리 위에 팔을 들어 제법으로 절을 하니  
 눈물이 종행하여 입은 치마 다 적시고

[B] 한숨이 복발(復發)하여 곡성이 날 듯하다  
 마음을 강잉(強仍)하여 가만히 헤아려 보니  
 가련하고 불쌍하다 이런 모양 이 거동을  
 신령은 알 것이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부모들도 의논하고 동생들도 의논하여  
 김 도령과 의혼(議婚)하니 첫마디에 되는구나  
 혼인 백일 가까우니 엉덩춤이 절로 난다

- ① [B]에서 화자가 가상으로 혼례를 치른 것은 자신의 적극적 행동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이겠군.
- ② [B]에서 ‘김 도령’과의 혼사가 결정된 결말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화자의 처지에 대한 동정적 시선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B]에서 ‘흥두께’를 ‘김 도령’처럼 꾸미는 장면을 설정한 것은 해학적인 측면이 강화된 장형 계열의 특성과 연관되겠군.
- ④ [B]에 윗글에는 없는 장면이 포함된 것을 보면 작품이 장형화된 이유 중 하나로 새로운 내용의 삽입을 들 수 있겠군.
- ⑤ [B]에서 혼례를 치르기 위해 준비한 의복과 혼례의 상황까지 제시된 것은 장형 계열에 나타나는 구체적 묘사를 보여주는 사례이겠군.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원자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되어 생명의 분자를 구성한다. 그러려면 기본 뼈대가 있어야 한다. 생명의 원소 뼈대는 ‘...탄소-탄소-탄소-...’이다. 뼈대를 담당하는 원소는 오로지 탄소 하나뿐이다. 탄소에게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다랗게 연결되는 능력이 있다. 도대체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생명의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이 결합되는 데는 조건이 있다. 바로 전자를 공유하는 것이다. 서로 결합하려면 먼저 함께 나눌 전자를 내놓아야 한다. 물론 아무 전자나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자는 핵을 둘러싼 여러 껍질에 나누어 분포하는데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만 공유할 수 있다. 하긴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결합하겠는가?

수소는 한 개의 전자를 내놓을 수 있다. H· 또는 ·H라고 표현한다. 잡을 수 있는 손이 하나이다. 산소는 전자를 두 개 내놓아 ·O·가 된다. 잡을 수 있는 양손이 있는 셈이다. 결합이란 손과 손이 맞잡는 것이다. 이를 ‘공유 결합’이라 한다. 수소는 손이 하나뿐이니 결합을 하나만 할 수 있지만 산소는 손이 둘이니 두 개의 수소와 결합할 수 있다. H:O:H처럼 말이다. 이걸 우리는 간단하게 ‘H<sub>2</sub>O’라고 쓰고 ‘물’이라 읽는다.

수소처럼 손이 하나 있거나 산소처럼 손이 두 개만 있어 가지고는 뼈대를 이룰 수 없다. 손이 앞뒤 좌우에 네 개는 있어야 한다. 그래야 위와 아래에 있는 손으로는 뼈대를 이루고 양쪽에 있는 손으로 다른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 탄소는 손이 네 개다. 덕분에 생명의 뼈대를 이룰 수 있다.

그런데 비밀이 하나 있다. 사실 탄소보다 산소가 바깥 껍질에 더 많은 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탄소는 네 개뿐이지만 산소는 여섯 개나 된다. 손이 여섯 개가 있는 셈이다. 그런데 양쪽 손을 제외한 네 개의 손은 다른 원자에게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두 개씩 손을 잡고 있다. 그래서 뼈대를 이루지 못한다.

산소가 공유하는 정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 산소의 바깥 껍질에는 전자들이 들어가는 방이 각각 네 개씩 있다. 산소는 네 개의 방을 여섯 개의 전자가 나눠서 써야 한다. 어떻게 나눠 쓸 수 있을까? 일단 앞뒤 좌우 네 개의 방에 전자가 하나씩 들어간다. 전자가 아직 두 개 남았는데 이젠 빈방이 없다. 어쩔 수 없다. 앞방과 뒷방에 전자가 하나씩 더 들어가야 한다. 같은 방에 둘이 있으니 손을 꼭 잡고 잘 수 밖에. 앞쪽 방 전자들만 다른 원자의 전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

탄소 역시 가장 바깥 껍질에는 방이 네 개 있다. 탄소는 네 개의 전자들이 방을 하나씩 쓰면 된다. 앞뒤 좌우 방 네 개를 차지한 전자들은 외롭다. 누군가에게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 덕분에 탄소는 뼈대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탄소의 전자들이 각방을 쓰지 않고 한 방에 두 개씩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행위는 원자 호텔에서는 금지되어 있다. 원자 호텔은 일단 각자 방을 하나씩 배정하고 빈방이 없을 때만 한 방에 전자 하나씩 더 들어가게 해 놓았다. 그것도 같은 성질의 전자여서는 안 된다. 하나는 위쪽에 베개를 두고 자는 전자라면 다른 하나는 아래쪽에 베개를 두고 자는 전자여야 한다.

원자의 호텔방을 과학자들은 ‘오비탈’이라고 한다. 그리고 먼저 각방을 채운 다음에 합방을 시키되 결코 같은 성질의 전자가 같은 방을 써서는 안 되는 규칙을 ‘파울리의 배타 원리’라고 한다. 파울리는 그 규칙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다.

배타 원리는 인간 사회에도 적용된다. 자기 사람으로 방을 채우면 결합은 이뤄지지 않는다. 방을 비워 놓고 생각이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무너지지 않는 세상의 뼈대가 생긴다.

**38.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산소는 여섯 개의 전자와 결합하여야만 생명의 뼈대를 이룰 수 있다.
- ② 산소와 수소가 각각 두 개의 공유 결합을 하여 이루어진 것이 ‘물’이다.
- ③ 원자들은 안쪽 껍질의 전자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생명의 분자를 구성한다.
- ④ 탄소의 전자들은 같은 성질을 가진 네 개의 전자들이 두 개씩 어우러져 한 개의 오비탈을 구성하고 있다.
- ⑤ 오비탈은 각각의 전자로 모든 방을 완전히 채운 다음에 다른 성질의 전자를 각각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한다.

**39. 밑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설명하려는 내용과 관련된 용어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의인화와 같은 비유를 동원하여 설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유추의 방식을 통해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여 그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 ④ 설명하려는 내용을 물음의 형식으로 제시한 후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 ⑤ 과학적 현상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40. 밑글에 근거하여 <보기>의 A, B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상의 원자 A와 B가 존재한다. A는 가장 바깥 껍질에 5개의 전자가 있고 방이 5개 있다. B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고 방이 4개 있다. A와 B는 전자를 공유할 수 있다.

- ① A의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모두 각방을 사용한다.
- ② A가 다른 원자와 공유할 수 있는 전자의 수는 5개이다.
- ③ B가 다른 원자와 공유할 수 있는 전자의 수는 1개이다.
- ④ B의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중 각방을 사용하는 것은 1개이다.
- ⑤ A와 B가 결합하여 A<sub>5</sub>B와 같은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태연스럽게 그러한 얘기들을 나누던 유생들도, 오봉 선생의 관이 땅속으로 들어가자, 상가 가족들 못지않게 비통한 표정들을 하였다. 오봉 선생의 옥중 동지였던 한 선비는 일부러 가야 부인을 찾아와서 흐느끼는 부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까지 하였다. ㉠(그는 재판정에서 그녀의 얼굴을 기억했던 것이다.)

① “오, 효부였더군! 내 까막소에서 오봉으로부터 잘 들었소. 친정이 김해라 했지요? 나는 창원이요. 창원 김 진사라면 다 아요.”

이러고는 다시,

**“억울하지! 만약 우리 오봉과 가야 부인 같은 이들만이 땅에 살았더랴…….”**

이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선비들이 모여 앉은 잔디밭가로 돌아갔다. 위엄이 있는 말씨라든가, 자가 넘게 자란 흰 수염을 바람에 날리며 돌아가는 모습이 과연 기백이 대단한 어른같이 보였다. 결국 이 창원 김 진사란 선비가 그냥 있지를 않았다. 평토제가 끝나고 해반과 아울러 으레 있는 식사와 주찬이 나올 무렵이었다. 술도 얼마 돌지 않았을 텐데, 별안간 선비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호통 소리가 일어났다.

“이놈, 개 같은 놈!”

소리의 주인공은 아까 그 창원 김 진사란 늙은 선비였다. 그는 계속 수염을 부들부들 떨며,

④ “오봉은 바로 네 자식이 죽었다단 말여! 알겠나, 이 개 같은 놈아? 알았음 썩 물러가거라! 뻔뻔스럽게…….”

“이놈이 무슨 소릴 대에놓고 ⑥(함부로) 하노?”

상대방은 역시 이와모도 참봉이었다. 이와모도도 같이 수염을 떨어 댔다. 얼굴이 넓적해 그런지 꼭 삼살개가 으르대는 것 같았다. ⑤(아무래도 그는 처음부터 자릴 잘못 잡았던 것이다. 애당초 그런 데 온 것부터가 그렇고…….)

그러나 그도 지기는 싫었다. 지다니!

“이놈아, 안 가라 캐도 갈 끼달! 버릇없는 니놈과 자리를 같이하다니…….”

이와모도 참봉은 벌써 자리에서 일어서 있었다. 상주들이 달려가 말리었으나, 이와모도 참봉은 들을 리 만무했다. 그는 화를 머리끝까지 올려 가지고 어기적어기적 산을 내려갔다.

“저런!”

상가측에서 백관 한 사람이 급히 그를 뒤따라갔다.

[중략]

**죽은 이와모도 참봉의 아들 이와모도 경부보 같은 위인들이 목에 핏대를 올려 가며 그들의 ‘제국’이 단박 이길 듯 떠들어 대던 소위 대동아 전쟁이 일른 끝장이 나긴커녕, 해가 갈수록 무슨 공출이다, 보국대다, 징용이다 해서 온갖 영장들만 내려, 식민지 백성들을 도리어 들볶기만 했다. 그리고 그것은 ‘제국’의 빛나는 승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들 했다.**

물강스런 식량 공출을 위시하여 유기 제기의 강제 공출, 송탄유와 조선(造船) 목재 헌납을 위한 각종 부역과 근로 징용은 그래도 좋았다. 조상 때부터 길러 오던 안산 바깥산들의 소나무들까지 마구 찍혀 쓰러진 다음엔 사람 공출이 시작되었다. ‘전력 증강’이란 이유로 영장 받은 남정들은 단광과 전장으로, 처녀들은 공장과 위안부로 사정없이 끌려 나갔다. 그러한 오봉산 밭치 열두 부락의 가난한 집 처녀 총각과 젊은 사내들은 이마를 히노마루㉡(일본 국기)에 동여매인 채, 울고불고하는 가족들의 손에서 떨어져, 태고나루에서 짐덩이처럼 때를 지어 짐배에 실렸다. ④(물금까지 나가면 기차편도 있었지만 차는 위태에서 오는 그러한 사람들로 항상 만원이었다.) ㉢(손자녀를, 자식을, 남편을, 딸을 그렇게 빼앗긴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안내 들은 태고나루에서 눈물을 짓다 가까운 미륵당을 찾기가 일쑤였다. “명천 하느님요!” 하고 땅을 치던 그들은 말 없는 미륵불 앞에

엎드리어 떠난 아들딸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를 빌고 또 비는 것이었다.

“시죽돈을랑 그만두이소! 내가 대신 다 내놓았임데이…….”

㉮ 돌아간 시할아버지와 시아버지, 그리고 만세통에 총 맞아 죽은 시숙과 딸의 영가를 거기에 모셔 둔 가야 부인은 오면가면 그러한 분들을 위로하기에 바빴다.

“억울한 말이짜 우째 다 하겠능기요. 나도 이렇게 안 살아 있능기요.”

흐느끼는 아낙네들의 손을 잡아 주며 조용히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이었다. 먼데서 온 분은 기어이 재워 보내기도 했다. 그것은 가야 부인 자신에게도 필요한 공덕이었다.

- 김정환, 「수라도」

41.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인물의 말과 행동에 내재된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② 인물의 내적 독백을 사용하여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작가가 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특정 인물의 반어적 어조를 통해 인물 간의 대립과 갈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과 변화를 중심으로 인물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42.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야 부인’은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무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 ② ‘김 진사’는 기개와 위엄을 갖춘 뜻깊은 선비로 시대와 현실에 비판적인 태도를 지녔을 것으로 여겨진다.
- ③ ‘이와모도 참봉’은 자식의 잘못을 지적하며 자신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 ④ ‘오봉 선생’과 ‘가야 부인’은 유교를 신봉해 유생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 ⑤ ‘오봉 선생’과 ‘김 진사’는 나라를 걱정하는 유생으로 함께 옥살이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시아버지와 인연과 가까운 지역 사람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가야 부인’과의 친밀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② ㉮: ‘오봉 선생’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직접적으로 부각함으로써 인물 간의 대립과 갈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 ‘이와모도 참봉’이 상가에 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음을 짐작하게 함으로써 ‘김 진사’와 ‘이와모도 참봉’의 갈등에 개연성을 더하고 있다.
- ④ ㉮: 가족을 잃은 슬픔을 종교에 의탁해 해소하려는 사람들을 통해 현실을 벗어난 초월의식에 기대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⑤ ㉮: 여러 대에 걸쳐 힘든 삶을 이어온 집안의 내력을 설명함으로써 ‘가야 부인’의 이웃들에 대한 동병상련의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4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는 인물의 말과 행동에 담긴 의도를 명시하여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 ② ㉮와 ㉯는 방언과 표준어를 병렬하여 독자에게 어휘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③ ㉮와 ㉯는 낱말과 문장의 내포적 의미를 상세하게 풀이하여 독자의 의문을 해소하고 있다.
- ④ ㉮와 ㉯는 인물의 행위나 사건에 관한 이유를 덧붙여 설명하여 서사의 개연성을 보충하고 있다.
- ⑤ ㉮와 ㉯는 인물의 행동과 사건의 진행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여 이야기의 심층을 표면화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수라도」는 일제 말 낙동강 변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 동원된 조선인의 현실을 증언한 작품이다. 항일 독립운동 내력을 가진 오봉 선생 집안과 친일 협력으로 권세를 얻은 이와모도 집안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일본 경찰로 탈바꿈하여 일본인보다 더욱 악랄하게 조선인을 탄압하는 또 다른 우리 민족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했다. 특히 일제말 창씨개명과 내선일체에 동조하고 대동아 전쟁에 적극 협력했던 이와모도의 큰아들이, 일제 치하에서는 도경 고등계 경부보로 있다가 해방 이후에는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데서, 해방 이후에도 식민지 권력이 차단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권력이 유지되었던 국가적 모순을 비판하고자 했다.

- ① “억울하지! 만약 우리 오봉과 가야 부인 같은 이들만 이 땅에 살았더라…….”이라는 데서, ‘일본인보다 더욱 악랄하게 조선인을 탄압하는 또 다른 우리 민족의 모습’에 대해 한탄하고 있음을 알겠군.
- ② “죽은 이와모도 참봉의 아들 이와모도 경부보 같은 위인들”을 제시한 데서, ‘해방 이후에도 식민지 권력이 차단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권력이 유지되었던 국가적 모순’의 근거로 삼고자 했음을 알겠군.
- ③ ‘보국대’와 ‘정용’이 “‘제국’의 빛나는 승리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한 데서, ‘내선일체에 동조하고 대동아 전쟁에 적극 협력했던 이와모도의 큰아들’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겠군.
- ④ “‘진력 증강’이란 이유로 영장 받은 남정들은 탄광과 전장으로, 처녀들은 공장과 위안부로 사정없이 끌려 나갔다.”라는 데서,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 동원된 조선인의 현실을 증언’하고자 했음을 알겠군.
- ⑤ “그들은 말없는 미륵불 앞에 엎드리어 떠난 아들딸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를 빌고 또 비는 것이었다.”라는 데서, ‘항일 독립운동 내력을 가진 오봉 선생 집안’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겠군.

※ 확인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총 13쪽 45문항(2점 35문항, 3점 10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은 적응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그들이 구사하는 한국어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배운 사람들의 한국어와는 꽤 다르다. 그들의 모국어가 새로 익힌 한국어에 간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인이 외국어를 배울 때도 생기는 일이다.

한국어는 음운 구조나 통사 구조가 주류 언어들과 크게 달라서, 외국인들이 쓰는 한국어에는 이들의 모국어가 행사하는 간섭의 흔적이 짙어 보일 수밖에 없다. 많은 외국어에서 조음부가 같은 자음들을 성대 올림 유무(유성/무성)로 변별하는 데 견주어, 한국어는 조음부가 공기의 흐름을 어떻게 ㉠ 방해하는지에 따라 이 자음들을 변별한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는 너무 쉬운 /ㄱ/ /ㅋ/ /ㆁ/, /ㄷ/ /ㅌ/ /ㄷ/, /ㅈ/ /ㅊ/ /ㅈ/의 구별이 어떤 외국인들에게는 ㉡ 넘지 못할 산이다.

한국어에서 유성 자음은 /ㄴ/ /ㄹ/ /ㄹ/ /ㅇ/ 소리 말고는 유성음(이들 네 자음과 모음) 사이의 동화로만 실현된다. 예컨대 ‘가구’의 첫 음절과 둘째 음절은 둘 다 ‘ㄱ’으로 시작하지만, 음성 수준에선 각각 [k]와 [g]로 실현된다. 그래서 ‘가구’는 [ka:gu]로 발음된다. 둘째 음절의 무성 평자음 ‘ㄱ’이 그것을 둘러싼 두 모음의 영향을 받아 유성음으로 변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규칙을 깊이 내면화하고 있어서 그걸 깨닫지도 못한 채 실현하지만, 자신들의 모국어에 이런 규칙이 없는 외국인들에게는 이것이 쉽지 않다.

[A] 무성 평자음이 두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 자음으로 변한다는 규칙을 비롯해 한국어는 복잡한 음운 규칙들을 많이 지니고 있다. 예컨대 ‘독립문’을 글자 그대로 [독립문]으로 읽지 않고 [동립문]으로 읽어야 하고, ‘실내’를 [실내]로 읽지 않고 [실래]로 읽어야 한다. 또 ‘낮을’, ‘낮을’, ‘낮을’을 발음할 때 첫 음절 마지막 음운이 글자대로 [츠], [지], [시]으로 실현되는 데 비해, 앞의 명사들이 홀로 남아 ‘낮’, ‘낮’, ‘낮’이 되면 그 마지막 소리가 왜 하나 같이 [ㄷ]으로 실현되는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외국인들은 알 도리가 없다.

사실 그 정확한 이유는 대다수 한국인들도 모른다. 그들은 다만 그 규칙을 내면화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내면화가 자신들의 모국어에 이런 규칙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컨대 /ㅡ/나 /ㅣ/ 같은 모음을 지닌 언어는 매우 드물어서, 외국인들이 이 소리를 제대로 익히는 일도 쉽지 않다.

통사 수준의 어려움은 이보다 훨씬 더하다. 통사 구조가 한국어와 꽤 엇비슷한 일본어 화자가 아닌 경우에, 한국어 초보자 외국인들은 단어들을 똑바른 순서로 배열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느낀다. 또한 주격 조사 ‘이’, ‘가’와 보조사 ‘은’, ‘는’의 구별은 이들에게 ㉢ 악물이다. 구별은커녕 많은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모국어에 없는 조사라는 ㉣ 괴물을 아예 생략해 버린다. 통사 구조를 익히는 것으로 마무리될 일도 아니다. 한국인들도 더러 헛갈려할 만큼 복잡한 경어 체계가 그 뒤에 기다리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들은 이 모든 ㉤ 어려움을 이겨낸 예외적인 사람들이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한국어와 일본어는 어순이 비슷하다.
- ②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 ③ 한국어의 음운 구조는 통사 구조와 달리 체계적이다.
- ④ 한국어 음운 규칙의 이유를 한국인들은 잘 이해하고 있다.
- ⑤ 한국어의 조음부가 같은 자음은 성대 올림 유무로 변별된다.

2.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성 평자음이 두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 자음으로 변한 사례로는 ‘논리[놀리]’가 있다.
- ② ‘독립문[동립문]’의 음운 규칙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섭리[섬니]’가 있다.
- ③ ‘실내[실래]’의 음운 규칙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칼날[칼랄]’이 있다.
- ④ ‘낮을’, ‘낮을’의 음운 규칙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웃이’, ‘웃이’가 있다.
- ⑤ ‘낮’, ‘낮’의 음운 규칙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갓’, ‘갓’이 있다.

3.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외국인들은 ‘의사’를 정확하게 발음하기가 어렵겠군.
- ② 복잡한 음운 규칙을 내면화한 한국인이 외국어를 발음하기는 어렵지 않겠군.
- ③ 외국인들이 가끔 실수로 반말하는 것은 한국어의 경어 체계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겠군.
- ④ 외국인들이 “아이 학교 가요.”라고 불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조사 선택에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이겠군.
- ⑤ 영어 초보자 한국인이 “Marry me.”라고 하지 않고 “Marry with me.”라고 실수하는 것은 모국어인 한국어가 영어에 간섭한 것이겠군.

4. <보기>를 참고해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음성은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소리 가운데 말할 때에 사용되는 소리를 가리킨다.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인식하는 소리인 음운과 달리 음성은 물리적으로 귀에 들리는 구체적인 소리로, 의미 변별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반면에 음운은 의미 변별에 관여하는 최소의 말소리이다.

- ① 외국인에게는 ‘가구’의 ‘ㄱ’들이 서로 다르게 들릴 수 있겠군.
- ② ‘가구[ka:gu]’의 ‘k’와 ‘g’는 한국어에서 음운이 아닌 음성이겠군.
- ③ ‘가구’에서 둘째 음절의 ‘ㄱ’이 유성음이 됨으로써 의미 변별이 되는군.
- ④ 한국어에서는 성대 올림 유무만으로 단어의 뜻이 변별되는 경우는 없겠군.
- ⑤ 한국어에서는 음운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는 자음과 모음만 다른 글자로 표기하는군.

5. ㉠~㉣ 중 문맥상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빌렘 플루서는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서 글쓰기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디지털이라는 형식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간 행동, 의식, 지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눈여겨보았다. 따라서 그는 ㉠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실험하고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글쓰기 장(場)에서는 저자로부터 독자로 향하는 일방적 의미 전달 관계가 저자와 독자의 상호 대화적 관계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글쓰기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 영역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따져 보아야 한다.

디지털 시대는 글쓰기 조건, 지식 전달 방식, 지식 분배 방식을 변화시킨다. 디지털 글쓰기는 대화 구조에서 사용되는 양방향적 채널을 통해 지식을 확대·재생산한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 일방적 전달 방식이 구조화한 지식의 특징까지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 이전의 저자는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를 문자와 개념으로 바꿔 독자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 디지털 시대의 저자는 문자와 개념을 디지털 이미지로 만들어 수용자와 주고받는 사람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만들어진 이미지를 개념으로 재구조화해 새로운 의미를 생산할 수도 있다.

플루서는 기술적 발전과 대중 매체 확산에 따른 대중문화 현상들이 인간과 세계를 의미화하는 강력한 방식으로 대두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그가 디지털 시대의 주도적 소통 방식으로 명명한 ㉢ 기술적 형상은 이전 시대의 주도적 소통 방식이었던 문자의 개념적 의미를 이미지로 펼쳐 보여 준다. 하지만 쉽고 빠르게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디지털 이미지는 그 안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은폐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플루서는 디지털 이미지가 갖는 현실 은폐와 기만의 작용을 간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아직 기술적 형상이라는 새로운 소통 방식에 어울리는 의식을 갖추지 못한 채 쉽고 간단한 이미지에 만족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에만 집중한다. 대중이 비판의 필요성을 간과하거나 무시할 때 권력과 자본은 기술적 형상을 장악하고 대중 매체를 이용해 정보 수용자들을 탈정치화, 탈윤리화, 탈가치화할 수 있다. 이에 저항하려면 기술적 형상을 이해하고 기술을 이용해 상상과 개념을 종합하는 새로운 능력이 절실하다. 플루서는 이를 ㉣ 기술적 상상력이라고 이름 짓는다. 또한 기술적 상상력을 갖춘 사람을 기술적 상상가라고 부른다.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상상가, ㉤ 정보 유희자가 되려면 만인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기만의 도구로 오용될 위험을 간파해야 한다.

6. 문맥상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글쓰기의 조건과 방식, 도구, 정보 전달 방향 등을 포함한 일체의 변화  
 ② ㉡: 이미지와 상징을 문자로 표현하는 사람  
 ③ ㉢: 디지털 도구나 기계를 이용해 만든 대화 구조  
 ④ ㉣: 문자가 개념화한 의미를 선형적으로 배열하는 능력  
 ⑤ ㉤: 디지털 이미지가 갖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사람

7. [A]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바둑, 장기, 체스 경기 이해에 필요한 기본 규칙  
 ② 폐쇄 회로 카메라와 얼굴 인식 기능의 영상 접속 프로그램  
 ③ 누구나 글을 올리고 수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미디어 위키  
 ④ 이용자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정보를 추천하는 SNS 알고리즘  
 ⑤ 모든 것이 검색되고 저장되는 스마트 기기,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8. 윗글의 논지를 지지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대중 매체와 대중문화 현상은 디지털 사회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② 기술적 발전은 의미의 해독과 생산을 방해해 수용자들을 탈정치화한다.  
 ③ 상호 작용성, 지식 개방과 공유, 참여와 협력 등 디지털 글쓰기의 가능성을 개발해야 한다.  
 ④ 디지털 글쓰기 주체들은 협력적으로 지식을 생산, 공유해 탈정치화에 저항할 수 있다.  
 ⑤ 디지털 사회의 통제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소통 방식에 어울리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9~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다는 뽀뽀이  
달아나려고 했다.

푸른 도마뱀 떼같이  
재재발렸다.

꼬리가 이루  
잡히지 않았다.

흰 발톱에 찢긴  
산호(珊瑚)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가까스로 몰아다 부치고  
변죽을 둘러 손질하여 물기를 씻었다.

이 애쓴 해도(海圖)에  
손을 씻고 떼었다.

찰찰 넘치도록  
돌돌 구르도록

휘둥그란히 받쳐 들었다!  
지구(地球)는 연(蓮)잎인 양 오므라들고…… 펴고…….  
- 정지용, 「바다 2」

(나)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툽밥 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그믐처럼 멧은 줄고  
멧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짜룩짜룩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④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 광재구, 「사평역에서」

(다)

마른 잎사귀에 도토리 알 얼굴 부비는 소리 후두둑 뛰어내려  
저마다 멍드는 소리 멍석 위에 나란히 잠든 반들거리는 몸 위로  
살짝살짝 늦가을 햇볕 발 디디는 소리 먼길 날아 온 늙은 잠자리  
채머리 떠는 소리 땃돌 속에서 껍질 타지며 가슴 동당거리는 소리  
사그락사그락 고운 땃가루 저희끼리 소근대며 어루만져 주는 소리  
보드랍고 찰진 것들 물속에 가라앉으며 안녕 안녕 가벼운 것들에게  
이별 인사 하는 소리 아궁이 불 위에서 가슴이 확 열리며 저희끼리  
다시 영기는 소리 식어 가며 단단해지며 서로 훑아주는 소리

도마 위에 다갈빛 도토리묵 한 모

모든 소리들이 흘러 들어간 뒤에 비로소 생겨난 저 고요  
저토록 시끄러운, 저토록 단단한,  
- 김선우, 「단단한 고요」

9.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이국적인 소재를 시어로 활용해 신선한 느낌을 주었다.
- ② (가)와 (다)는 대상을 살아 있는 것으로 비유하여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의 지배적 정서는 삶에 대한 슬픔과 회한이다.
- ④ (가)~(다)는 시제 변화를 통해 화자와 독자 사이 거리를 조절한다.
- ⑤ (가)~(다)는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른 공간 변화를 활용해 정서의 변화를 이루었다.

10.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양한 비유와 선명한 이미지를 사용했다.
- ② 색채 대비를 통해 파도치는 해변을 형상화했다.
- ③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 바다의 움직임에 제시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활용해 파도의 흔적을 구체화했다.
- ⑤ 전반부는 관찰을, 후반부는 상상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했다.

11. <보기>를 참고해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사평역에서」는 소박하고 일상적인 소재, 냉온 감각 등을 도입해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화자의 연민과 애정 어린 시선이 따뜻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 ① ‘대합실’은 다양한 서민 군상들이 모여 있어 애환이 느껴지는 공간이군.
- ② ‘뚝뚝 난로’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소재로 사용되었군.
- ③ ‘그믐처럼 멎은 줄고’는 사람들의 지친 모습을 나타내고 있군.
- ④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서로를 믿지 않는다는 점을 암시하는군.
- ⑤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는 고달픈 삶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보여 주는군.

12. <보기>를 참고할 때,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관계가 ㉠와 유사한 것은? [3점]

<보기>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 관념 각각의 구상성과 추상성에 따라 의미와 효과가 달라진다. ㉠의 경우 원관념과 보조 관념이 모두 구상성을 지니고 있다.

- ① 사랑은 숭고한 정념
- ② 내 마음같이 푸른 모래밭
- ③ 추억인 양 내리는 물안개
- ④ 푸른 건반인 듯 주름진 계단
- ⑤ 해바라기처럼 타오르는 기도

13.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조성했다.
- ② 역설법과 도치법을 통해 대상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 ③ 정서를 배제하고 대상의 회화적 이미지를 만들었다.
- ④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 대상의 변화 과정을 나타냈다.
- ⑤ 시적 대상이 만들어지는 단계에 따라 시상을 전개했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플라톤의 사유는 가짜 정치가들로부터 진짜 정치가를, 소피스트들로부터 진짜 철학자를 가려내기 위한 ‘진품 가려내기’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플라톤의 철학은 일반적으로 가짜들 속에서 진짜를 가려내기 위한 철학이라고 본다.

플라톤에게 ‘진짜’와 ‘가짜’의 구분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다.

기만적 현실에 대한 의구심과 환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의 사유에는 가짜, 허상, 이미지 등에 대한 강한 저항 의식이 배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에게 진짜와 가짜의 구분은 본질적 문제였다. 여기에서 그의 사유 전체를 관류하는 기본적인 주제들 중 하나가 성립한다. 만일 진짜가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진짜에 대한 모방의 성공 정도에 입각해 존재론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의 이런 생각에는 현실 세계가 제작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 맞물려 있으며, 이는 곧 현실 세계가 이데아 세계를 모방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데아 모방론을 전제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결론 중 하나는 인공물에 대한 자연물의 존재론적 우위에 관한 것이다. 자연은 이데아를 모방한 산물이지만 인공물은 자연물을 다시 모방한 산물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공물 중에서도 실물과 그것을 그린 회화 사이에는 다시 존재론적 위계가 설정된다. 가령, ‘인공물로서의 의자’ 그리고 ‘의자를 그린 그림’은 존재론적 위계에서 차이가 난다. 현실 세계의 의자는 의자의 이데아를 모방한 인공물이다. 의자를 그린 그림은 이 현실 세계의 의자를 다시 모방한 것으로 이데아로부터 두 단계나 떨어져 있다. 플라톤에게 있어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관계에서 후자의 폄하는 현실 세계와 인위적 세계의 관계에서 후자에 대한 폄하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위계는 플라톤의 사유 전체를 떠받치고 있다.

플라톤의 가치관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저서로 『소피스트』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 플라톤은 ‘모상술(模像術)’을 ‘사상술(寫像術)’과 ‘허상술(虛像術)’로 위계화한다. 『소피스트』에서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하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이데아와 유사한 것, 이데아로부터 아예 떨어진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존재론을 우선시하는 일반적 해석과 달리, 플라톤이 이데아론을 체계화한 목적이 사실은 현실 세계 사물들 사이의 위계를 세우기 위함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데아는 바로 이 구분과 위계를 설명하는 기준이 된다. 즉, 이데아는 허상으로부터 직선을 긋고 그 선을 계속 연장할 때 도달하게 되는 가장 진실한 극점이다. 역으로 이데아라는 극점에서 직선을 긋고 그 직선을 계속 연장했을 때 도달하는 반대 극점은 허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데아론은 애초부터 순수 존재론적 맥락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치론적 맥락에서 착상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 볼 수 있다.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이론의 견해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을 정의한 후 주장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의 견해에 대한 통념을 제시하고 통념과는 다른 해석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특정 이론의 견해가 지닌 한계점을 지적한 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 ④ 특정 이론의 일반적 견해에 대한 상반된 평가 내용을 비교한 후 그 이론의 의의를 소개하고 있다.
- ⑤ 특정 이론의 견해가 등장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른 수용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1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자는 실물과 유사하게 그린 의자 그림보다 이데아에 더 가깝다.
- ② 이데아론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뿐 아니라 모방물 사이의 가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 ③ 이데아 모방론에서는 자연물의 존재론적 가치와 인공물의 존재론적 가치를 다르게 평가한다.
- ④ 현실 세계의 존재들은 이데아로부터 얼마나 가까운가 떨어져 있는가를 기준으로 위계를 갖는다.
- ⑤ 현실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보다 존재론적으로 가치가 있지만, 인위적 세계의 가치는 이데아에 대한 모방의 성공 정도에 따라 다르다.

16.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름: 실제의 남자 철수와 실제의 여자 순이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만 남자의 이데아와 여자의 이데아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
- ② 다운: 비슷한 맥락으로 볼 때 인간은 신을 모방한 창조물이라는 주장으로 나아갈 수 있겠네.
- ③ 우리: 성공한 케이팝 아이돌의 이미지가 팬에게 힘을 발휘하기만 한다면 그 아이돌의 이미지는 이데아인 거야.
- ④ 강산: 그림 그릴 때 활용하는 원근법, 명암, 투시법은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이지.
- ⑤ 만세: 여러 개의 의자 그림에 대해 가치를 매기려면 우선 의자의 이데아가 어떤 건지 알아야 하겠군.

17. 윗글을 참고해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사시가 역사보다 위대하다.’고 보았다. 모방 대상의 본질을 꿰뚫은 허구는 이데아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실을 ‘시적 진실’이라고 한다.

- ① ‘시적 진실’은 현실을 모방한 가짜의 극점이다.
- ② ‘시적 진실’은 ‘역사’보다 이데아로부터 떨어져 있다.
- ③ 모방 대상의 본질을 꿰뚫은 ‘서사시’는 ‘역사’보다 가치론적으로 우위에 있다.
- ④ ‘서사시’의 허구적 가치는 허상들의 위계를 명확히 구분하는가에 달려 있다.
- ⑤ ‘서사시가 역사보다 위대하다.’는 견해는 현실 세계에 대한 폄하가 반영되어 있다.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잠자리에서 몸을 보호하거나 장식하던 옷을 벗어 놓고 보다 편안한 상태가 되려 한다. 이어서 잠이 들 때는 마치 옷을 벗어 놓는 행위처럼 의식도 벗어나 한쪽 구석에 치워 둔다. 정신적 측면에서 볼 때 잠드는 일은 판단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태아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하다. 정신 분석학에서는 자궁 속 태아, 말 배우기 이전의 유아처럼 스스로의 행동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되돌아가 자아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를 a ‘퇴행’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잠을 잘 때 자궁 속 태아와 같은 자세를 취한다. 그리고 잠자는 사람의 정신 상태는 의식의 세계에서 거의 완전히 물러나 있으며, 외부에 대한 관심도 정지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잠자는 동안 꿈을 통해 정신 활동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꿈을 자세히 관찰하면 수면 중 인간의 정신적 상태에 대해 많은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여러 연구들은 꿈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점, 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는 항상 꿈꾸는 사람 자신이라는 점 등을 밝혀 주었다. 꿈의 이러한 특징을 ‘수면 상태의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정신의 작용 방향이 외부 세계에서 자기 자신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꿈속에서는 모든 감각이 크게 과장되어 있어 깨어 있을 때보다 더 빨리, 더 분명하게 정신적, 신체적 이상 증상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감각의 과장을 ‘꿈의 과장성’이라 부르는데 이 역시 수면 상태의 나르시시즘처럼 꿈꾸는 사람이 외부 세계로 향하던 정신적 에너지를 자아로 되돌려 집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꿈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로 꿈꾸는 사람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구체적 형태로 바꾸어서 보여 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지만 마음에 방해가 되는 어떤 사건을 암시해 주고 그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도 암시해 준다. 꿈속에서는 정신적 에너지를 외부 세계가 아닌 내면세계로 집중하므로 평소에 억누르고 있던 내적 욕구나 콤플렉스를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 정신 분석학에서는 무의식의 세계를 외적 형태로 구체화하는 꿈의 역할을 ‘투사’로 설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죽은 동료의 꿈을 꾸는 경우, 이는 꿈 꾸는 사람 내면에 잠재한, 그러나 깨어 있을 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책감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투사로 볼 수 있다.

깨어 있을 때는 꿈이 알려 주는 문제를 쉽사리 알아내기가 어렵다. 따뜻하고 화려한 옷이 상처나 결점을 가려 주는 것처럼 깨어 있는 의식은 내면세계를 가리거나 보호해 내면의 관찰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신이 옷을 벗기를 기다려 비로소 한 사람의 내면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18.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꿈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주는 기제이다.
- ② 수면 상태에서는 외부로 향하는 정신 에너지가 더욱 강해진다.
- ③ 꿈을 꿀 때 정신의 작용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꿈꾸는 사람의 내면으로 집중된다.
- ④ 깨어 있는 사람의 정신 상태는 꿈이 알려 주는 문제를 가리거나 발견을 어렵게 한다.
- ⑤ 깨어 있을 때보다 꿈을 통해서 신체적 이상 징후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

19. ㉔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알코올 중독 치료 후 금주 강연을 다니는 사람
- ② 엄격한 부친을 두려워하지만 닮고자 하는 남자
- ③ 외모 콤플렉스로 인해 자신을 비하하는 청소년
- ④ 외과 수술에 거부 반응이나 두려움이 없는 의료진
- ⑤ 동생이 태어난 후 대소변을 제대로 못 가리는 아이

20. <보기>를 참고해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정신 분석학자 프로이트가 제시한 정신의 세 가지 영역은 꿈에도 영향을 준다.

- 이드(id):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무의식. 쾌락 원칙을 따른다.
- 자아(ego): 현실을 고려하여 욕구를 억제하는 의식. 현실 원칙을 따른다.
- 초자아(superego): 성장 과정에서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한 의식. 도덕 원칙을 따른다.

- ① 꿈은 ‘이드’를 의식 세계와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 ② 꿈은 ‘자아’의 표현이므로 쾌락 원칙으로 해석해야 한다.
- ③ ‘꿈의 과장성’은 ‘초자아’가 무의식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 ④ 꿈에서 ‘이드’는 정신 작용의 방향을 외부 세계로 돌린다.
- ⑤ 꿈은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므로 도덕 원칙으로 해석해야 한다.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가 지금까지 상상한 바로는, 도시란 결코 것처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㉑ 도시란 보다 더 멀고 아득한 곳에 있어야만 했다. 그래서 그곳에 닿기 위해서는 철로 위를 바람처럼 내달리는 급행열차로도 하루 낮 하루 밤은 꼬박 걸려야만 했다. 그런데

우리가 타고 온 것은 털털거리는 짐차였다. 그것으로도 고작 두세 시간밖에 걸리지 않다니……. 것처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이 무슨 결함처럼 내게는 느껴졌다.

녀석들은 지금도 그 교실에 앉아 있을 것이었다. 사철나무가 병사들처럼 늘어서 있는 남향 창으로는 푹푹한 햇살이 온종일 들이치고, 방아깨비 선생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간단없이 흘러나오는 그 4학년 우리 반 교실에 말이다. 유일하게 나의 자리는 비어 있을 게다. 창 쪽으로 둘째 줄 여섯 번째 책상……. 거기 내가 남긴 흠집과 낙서를 누군가 눈여겨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는 도회지로 전학 간 나를 조금은 부러워할 게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면 누구나 쉽게 우리 뒤를 쫓아올 수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했다. 도시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㉒ 나는 조금 자존심이 상했다.

아버지는 물 대신 나에게 돈을 주셨다. 그것은 단풍잎처럼 작고 빨간 1원짜리 종이돈이었다. 나는 곧장 한길가로 뛰어나갔다. 딸딸이 위에다 어항보다 큰 유리 항아리를 올려놓은 물장수가 거기 있었다. 항아리 속엔 온갖 과일 조각들이 얼음 덩어리와 함께 채워져 있었다.

나는 꼭 쥐고 있던 돈을 한 잔의 물과 맞바꾸었다. 유리컵 속에 든 물은 짙은 오렌지 빛이었다. 손바닥에 닿는 냉기가 갈증을 더 자극했다. 그러나 ㉓ 나는 마시지 않았다. 이 도시와 그 생활이 주는 어떤 경이와 흥분 때문에 실상은 목구멍보다도 가슴이 더 타고 있었다. 나는 유리컵을 조심스럽게 받쳐 든 채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는 두어 걸음을 떼어 놓았다. 물론 나의 그 어리석은 짓은 용납되지 않았다. 나는 금세 제지를 받았던 것이다.

“이봐, 너 어디로 가져가는 거냐?”

나를 불러 세운 물장수가 그렇게 물었다. 나는 금방 얼굴을 붉혔다.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㉔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물장수가 다시 말했다.

“잔은 두고 가야지, 너, 시골서 온 모양이로구나. 그렇지?”

나는 단숨에 잔을 비웠다. 숨이 찼다. ㉕ 콧날이 찡해지고 가슴이 짹 막혔다. 그러나 ㉖ 그 자리에 더 어정거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 내던지듯 잔을 돌려준 나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가족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다.

우리 세간살이들이 골목에 잔뜩 쌓여 있었다. 시골집 안방 윗목을 언제나 차지하고 있던 옛날식 옷장, 사랑채 시렁 위에 올려 두던 낡은 고리짝, 나무로 만든 쌀 뒤주와 조롱박, 크고 작은 질그릇 등. 판잣집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는 그 골목길 위에 아무렇게나 부러 놓은 세간살이들은 웬지 이물스런 느낌을 주었다. 그것들은 지금까지 흔히 보고 느껴 오던 바와는 사뭇 다른 모양이요, 빛깔이었다. 아마도 이웃인 듯한, 낯선 사람 몇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바쁜 일손을 거두고 있었다.

나는 판자벽을 기대고 웅크려 앉았다. 물맛이 어떠했던가를 생각해 보려 했지만 도무지 기억에 남아 있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속이 메스껍기도 했다. 눈앞의 사물들이 자꾸만 이물스레 출렁거렸다. 이사를 왔다, 하고 나는 막연한 기분으로 중얼댔다. 그래, 도시로 이사를 왔다. 아주 맥 풀린 하품을 토해 내며 새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촘촘히 들어앉은

판잣집들, 깡통 조각과 루핑이 덮인 나지막한 지붕들, 이마를 비비대며 길 쪽으로 늘어서 있는 추녀들, 좁고 어둡고 질척한 그 많은 골목들, 타고 남은 코크스 덩어리와 검은 탄가루가 낭자하게 흩어져 있는 길바닥들, 온갖 말씨와形形色색의 입성을 어지러이 드러내고 있는 주민들, 얼굴도 손도 발도 죄다 까맣게 탄 아이들…… ㉞ 나는 자꾸만 어지럼증을 탔고, 급기야는 속엿것을 울컥 토해 놓고 말았다. 딱 한 잔 분량의, 오렌지 빛 토사물이었다.

세간살이들을 대충 들여놓은 다음에 우리 가족은 이른 저녁을 먹었다. 아니 그것은 때늦은 점심이기도 했다. 어쨌거나 우리 가족이 도시에서 가진 첫 식사였다.

밥은 오렌지 물을 들이기라도 한 것처럼 노란 빛깔이었다. 물이 나쁜 탓일 거라고 아버지가 말했다. 공동 펌프장에서 길어 온 그 물은 역할 정도로 악취가 심했다.

“시궁창 바닥에다가 한 자 깊이도 안 되게 박아 놓은 펌프 물이니 오죽할라구요…….”

어머니는 아예 손갈을 잡을 생각조차 없는 듯 조그만 목소리로 중얼대기만 했다.

“내다 버린 구식물을 다시 퍼마시는 거나 다름없지 뭐예요.”

하지만 나는 심한 허기에 시달리고 있던 판이었다. 게다가 어쨌든 귀한 이밥이었다. 식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한 술을 떠 넣었다. 그러고는 생전 처음 입에 넣어 보는 음식처럼 조심스레 씹었다. 첫내 같은, 아니 쇠의 녹 냄새 같은 게 혀끝에서 달착지근하게 느껴졌다. 다시 한 손갈을 퍼 넣었다. 그러자 저 오렌지 빛의 물을 마시고 났을 때처럼 속이 다시 출렁거리기 시작했다.

- 이동하, 「장난감 도시」

21.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유희를 통해 당시의 세태를 희화화하고 있다.
- ②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요약적 서술을 통해 사건을 긴박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 ④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을 병치하여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인물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22. ㉠~㉞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에게 도시는 아무나 쉽게 갈 수 없는 곳으로 막연한 이상과 동경이 투영된 곳이었다.
- ② ㉡: 도시가 ‘나’의 상상보다 실제로는 가까이 있었음을 그동안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되었다.
- ③ ㉢: ‘나’는 도시에서의 경이로운 체험이 주는 즐거운 흥분을 오래도록 느끼고자 한다.
- ④ ㉣: ‘나’는 뭔가 잘못하였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해 당혹해 한다.
- ⑤ ㉞: 도시의 낯선 생활에 대한 ‘나’의 실수로 인해 시골 출신 이라고 무안당한 ‘나’의 심리가 나타난다.

23. ㉞에서의 ‘나’의 상황에 어울리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간에 기별도 안 간다.
- ②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
- ③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 ④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다.
- ⑤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

24. ㉞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족 간 갈등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② 낯선 도시 생활에 대한 적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 ③ 도시의 물과 주변 환경이 비위생적이었기 때문이다.
- ④ 도시의 위치를 제대로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 ⑤ 도시를 두려워해 피하기만 한 자신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25. <보기>를 참고해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장난감 도시」는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 온 소년의 이야기이다. 이 작품에는 이주 초기에 소년 ‘나’가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도시에 대해 갖는 인상과 감정이 시골에서의 추억과 대비되거나, 어떤 사건을 경험하기 전과 후의 심리 변화가 다채롭게 표현되어 있다.

- ① 시골집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던 세간살이들이 이사 와서 보니 촌스럽고 보잘것없게 느껴졌다.
- ② 도시에 와서 첫 끼니로 시골에서는 귀했던 이밥을 지었으나 시골과 달리 나쁜 물 때문에 밥은 노란색을 띠고 녹 냄새가 났다.
- ③ 물장수로부터 편잔을 듣기 전에는 새로운 도시 생활에 신기해 했지만, 편잔을 들은 후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게 되었다.
- ④ 도시는 급행열차로 하루 낮과 하루 밤이 걸려 닿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털털거리는 짐차로 두세 시간 만에 도착한 사실에 실망했다.
- ⑤ 시골 교실은 풋풋한 햇살이 비치고 선생님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리는 곳인 반면, 도시의 판잣집들 주변은 좁고 어둡고 질척한 곳으로 묘사된다.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계약 이행으로 당사자들이 얻는 편익보다 더 큰 경우에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쪽이 더 효율적이다. 다시 말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순편익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효율적 계약불이행’이라고 한다.

먼저 (가) 사례를 보자. 큰 레스토랑을 개업하려는 A는 한빛조명이란 회사에 2천만 원짜리 샵들리에를 주문하고 한 달 안에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이 샵들리에에 대해 2천 5백만 원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한빛조명이 이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1천 7백만 원이다. 단, 이 사례에 등장하는 모든 경제 주체는 위험 부담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가정한다.

A는 계약 이행을 믿고 개업 전단지들을 돌렸다. 이 광고에 2백만 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 비용은 한빛조명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A가 정한 날에 개업하지 못하면 전혀 쓸모없는 지출이 되고 만다. 그 광고비는 계약이 이행될 것을 믿고 행한 투자라는 의미에서 ① 신뢰투자라고 부른다.

만약 한빛조명이 계약을 지켜 정해진 날짜까지 샵들리에를 갖다주면 A는 이 계약으로부터 3백만 원에 해당하는 순편익을 얻게 된다. 한편 한빛조명은 이 거래로부터 3백만 원의 이윤을 얻을 것이므로, 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의 사회적 순편익은 이 둘을 합친 6백만 원이 된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계약 관계에 건축업자 B라는 인물이 끼어들었다. 그는 샵들리에를 급하게 구하고 있어, 최고 2천 8백만 원까지 지불해도 좋으니 구하기만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A에게 배달될 예정인 샵들리에를 발견하고 2천 4백만 원을 줄 테니 그것을 자신에게 팔라고 한빛조명에 제의했다. 만약 한빛조명이 이 제의를 받아들이면 그 회사의 이윤은 7백만 원으로 늘게 된다. 문제는 계약을 위반할 때 A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느냐에 있다. 그 회사는 계약 위반에서 생기는 추가적인 이윤이 손해 배상액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계약을 위반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 사례의 경우,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원래의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A가 아닌 B가 그 샵들리에를 공급받을 때 사회적 순편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입자의 순편익	한빛조명의 이윤	사회적 순편익
계약 이행 시	A: 3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계약 불이행 시	A: -200만 원(신뢰투자분) B: 4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

그렇다면 계약법에 손해 배상의 규칙을 어떻게 정해 놓을 때 이와 같은 효율적 계약불이행이 나타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효율적 계약불이행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계약 위반 시의 구제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 놓아야 할까? 일반적으로 계약 위반이 일어났을 때 다음 두 가지 원칙 중 하나의 구제 방법이 채택되는 것이 보통이다.

③ 기대손실의 원칙은 계약을 위반한 측이 이로 인해 손해를

본 측에게 만일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누렸을 효용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효용을 보장하는 금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신뢰투자로 지출한 것은 계약이 이행되어야만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면에 ④ 신뢰손실의 원칙은 계약을 위반한 측이 이로 인해 손해를 본 측에게 애당초 그 계약이 맺어지지 않았더라면 누렸을 효용 수준과 똑같은 수준의 효용을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한다.

계약을 위반하는 측인 한빛조명은 요구되는 손해 배상액이 계약불이행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얻게 된 추가적 이윤보다 작으면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이 크다. (가) 사례에서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한빛조명의 이윤은 4백만 원만큼 증가하게 된다. 만약 요구되는 손해 배상액이 이보다 작으면 한빛조명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 사례의 경우는 신뢰손실의 원칙이 효율적 계약불이행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기대손실의 원칙하에서는 계약이 이행되는 비효율적 결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 사례만 보고 신뢰손실의 원칙이 언제나 효율적인 계약불이행을 가져다주고, 기대손실의 원칙은 언제나 비효율적인 결과를 유발한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가) 사례의 내용 중 약간만 달리하여 (나) 사례를 상정해 보자. 즉 B가 그 샵들리에의 가치를 2천 4백만 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한빛조명에게 2천 3백만 원을 제의한 것으로 바꾸면, 이번에는 신뢰손실의 원칙이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나) 사례에서는 한빛조명이 그 샵들리에를 B에게 팔면 6백만 원의 이윤을 얻는데 이는 계약을 이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윤보다 3백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 경우의 사회적 순편익은 B의 순편익 1백만 원에 한빛조명의 이윤 6백만 원을 더한 것에서 A의 신뢰투자 지출액 2백만 원을 빼어 구한 5백만 원이 된다. 그런데 계약 이행 시의 사회적 순편익은 (가)와 마찬가지로 6백만 원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데 한빛조명은 기대손실의 원칙하에서 손해 배상액이 계약 파기로 증가하는 이익보다 크므로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신뢰손실의 원칙하에서는 손해 배상액이 계약 파기로 증가하는 이익보다 작으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비효율적 결과가 나타난다. 즉 이제는 기대손실의 원칙이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으로 반전된 것이다.

26. 밑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논지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추론과 해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 ③ 가설 검증을 통해 기존의 권위 있는 학설을 비판하고 있다.
- ④ 서로 다른 주장과 사례를 비교해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 ⑤ 개념 정의와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고 질문을 통해 설명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27.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백혈병 환우 돕기 캠페인에 참여하여 헌혈하는 경우
- ②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편의점을 임대하고 점포세를 받는 경우
- ③ 땅값이 오르고 있다는 지인의 조언을 듣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 ④ 조카에게 게임기를 사 주겠다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고 당부하는 경우
- ⑤ 방학 동안 해외에 있는 친구의 집을 빌려 쓰기로 하고 비행기 표를 미리 구입하는 경우

28. 윗글에서 계약 위반 시의 구제 방법으로 ㉠과 ㉡를 채택했을 때, '한빛조명'이 'A'에게 보상해 주어야 할 금액은? [3점]

- |   | ㉠     | ㉡     |
|---|-------|-------|
| ① | 5백만 원 | 2백만 원 |
| ② | 5백만 원 | 3백만 원 |
| ③ | 7백만 원 | 2백만 원 |
| ④ | 7백만 원 | 3백만 원 |
| ⑤ | 7백만 원 | 5백만 원 |

29. (가) 사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효율적 계약불이행이 일어날 수 있는 사례가 된다.
- ② 계약불이행 시의 사회적 순편익은 B의 순편익과 한빛조명의 이윤을 더한 값이다.
- ③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의 사회적 순편익인 6백만 원보다 계약 불이행 시의 사회적 순편익이 더 크다.
- ④ 계약불이행 시의 한빛조명의 이윤은 B가 제안한 2천 4백만 원에서 상들리에 제작비 1천 7백만 원을 뺀 것이다.
- ⑤ 계약불이행 시 B의 순편익은 상들리에 구입에 지불할 용의가 있었던 2천 8백만 원에 상들리에 구입을 제안한 금액인 2천 4백만 원을 뺀 것이다.

30.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 손해 배상 원칙 모두 과도한 신뢰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② 기대손실의 원칙하에서는 계약의 불이행이 효율적인데도 이행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 ③ 어떤 손해 배상의 원칙이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주변 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 ④ 신뢰손실의 원칙하에서는 과도한 계약 파기 혹은 과도한 계약 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⑤ 계약의 모든 당사자들은 위험 부담에 대해 선호하거나 기피하지 않고 화폐액의 기대치만을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31~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름 우희 댕넵 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 주글만덩  
어름 우희 댕넵 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 주글만덩  
정(情)둔 오늬 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경경(耿耿) 고침상(孤枕上)애 어느 즘미 오리오  
서창(西窓)을 여러하니 도화(桃花) | 발(發)호두다  
도화는 시름업서 쇼춘풍(笑春風)호는다 쇼춘풍호는다

넉시라도 님을 혼디 너넉 경(景) 너기더니  
넉시라도 님을 혼디 너넉 경(景) 너기더니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올하 올하 아련 비올하  
여흘란 어디 두고 소해 자라 온다  
소곳 얼면 여흘도 도호니 여흘도 도호니

남산(南山)애 자리 보와 옥산(玉山)을 베티어 누어  
금슈산(錦繡山) 니블 안해 샴향(麝香) 각시를 아나 누어  
남산애 자리 보와 옥산을 베티어 누어  
금슈산 니블 안해 샴향 각시를 아나 누어  
약(藥)든 ㅁ슴을 맛초옵사이다 맛초옵사이다

아소 님하 원디평싱(遠代平生)애 여흘술 모르옵새  
-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

(나)

[A] 이화우(梨花雨) 흘날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애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천 리(千里)애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괘라

- 매창

[B] 피스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손대  
자시는 창 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 잎 곧 나거든 나인가도 여기소서

- 홍당

(다)

인간 이별 만사 중에 독수공방(獨守空房)이 더욱 싫다  
㉠ 상사불견(相思不見) 이내 진정(眞情)을 제 뉘러서 알리  
매친 시름 이렇저렇이라 흐트러진 근심 다 후리쳐 던져두고  
자나 깨나 깨나 자나 입을 못 보니 가슴이 답답  
어린 양자(樣姿)\* 고운 소리 눈에 암암(黯黯) 귀에 쟁쟁(錚錚)  
보고지고 임의 얼굴 듣고지고 임의 소리  
비나이다 하느님께 임 생기라 비나이다  
전생차생(前生此生) 무슨 죄로 우리 둘이 생겨나서  
죽지 마자 하고 백년기약  
만첩청산을 들어간들 어느 우리 낭군이 날 찾으리  
㉡ 산은 첩첩하여 고개 되고 물은 충충 흘러 소(沼)가 된다

오동추야(梧桐秋夜) 밝은 달에 임 생각이 새로 난다  
한번 이별하고 돌아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㉔ 천금주옥(千金珠玉) 귀 밖이요 세사(世事) 일부(一富) 관계  
하라

...(중략)...

일조(一朝) 낭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頓絶)하니  
오늘이나 들어올까 내일이나 기별 올까  
일월무정(日月無情) 절로 가니 옥안운빈공로(玉顔雲鬢空老)\*로다.

이내 상사(相思) 알으시면 임도 나를 그리리라

㉕ 적적(寂寂) 심야(深夜) 혼자 앉아 다만 한숨 내 뱃이라  
일촌간장(一寸肝腸) 구비 썩어 피어나니 가슴 답답

㉖ 우는 눈물 받아내면 배도 타고 아니 가라

피는 불이 일러나면 임의 옷에 당기리라

사랑겨워 울던 울음 생각하면 목이 멘다

- 작자 미상, 「상사별곡」

\* 양자: 옛된 얼굴.

\* 옥안운빈공로: 고운 얼굴과 머리술 풍성하던 젊은 여인이 헛되이 늙음.

31.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과의 이별 상황에서 임을 향한 애절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 ② 화자와 임 사이의 정서적 또는 물리적 거리감이 드러나 있다.
- ③ 임 소식이 없어 답답해 하는 화자의 일방향적인 감정이 드러나 있다.
- ④ 상심에서 벗어나 사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⑤ 임에 대한 추억 또는 원망의 감정이 가장 고조되는 시간을 '밤'으로 설정하고 있다.

32. (가)~(다)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어러 주글만덩'과 (나)의 '천 리(千里)에'는 과장적 표현을 반복하여 화자의 심정을 고조하고 있다.
- ② (가)의 '아련 비올하'와 (다)의 '피는 불이 일러나면'은 풍자적 기법을 활용하여 교훈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나)의 '보내노라 님의손대'와 (다)의 '듣고지고 임의 소리'는 어순 도치를 통해 화자의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나)의 '추풍낙엽'과 (다)의 '오동추야'는 시간과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의 '새 잎 곧 나거든'과 (다)의 '일촌간장 구비 썩어'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33. (가)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2연에서 '도화'는 화자와 대비되어 화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 ② (가)의 3연에서 '넉시라도 님을 혼디'는 이별 전에 임과 화자가 함께 약속한 것이다.
- ③ (가)의 5연에서 '옥산'과 '금슈산'은 임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상상해 낸 공간이다.
- ④ (나)의 [A]에서 '외로운 꿈'과 '오락가락'은 임과의 재회가 어려울 것이라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의 [B]에서 '피사버들 가려 꺾어'는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행동으로 보여 주고 있다.

34. (다)의 ㉑~㉖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㉑: 작품 전체의 내용과 주제를 압축적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 ② ㉒: 산과 물의 속성을 활용해 화자의 고립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㉓: 화자가 임과 이별하게 된 이유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㉔: '적적', '혼자'는 '한숨'의 의미와 이유를 강조하고 있다.
- ⑤ ㉕: 임을 향한 화자의 연정을 과장되게 나타내고 있다.

35. <보기>를 참고해 (가)의 형식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만전춘별사」는 신라와 고려 시대 시가 갈래의 형식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보기도 한다. 기존 시가 갈래로는 분연체이면서 '위~경(景) 귀 엇더하니잇고'가 반복되는 경기체가, 감탄사나 3단 구성이 보이는 10구체 향가, 시조, 향가계 고려 속요, 그리고 분연체와 후렴구가 두드러진 고려 속요 등이 있다. 향가계 고려 속요에는 「정과정」과 「도이장가」 2편이 있는데, 이중 '넉시라도 님은 혼디 녀져라 아오' 표현으로 대표되는 「정과정」은 충신연주지사의 시초이다.

- ① 제2연과 제5연에는 시조의 4음보 율격이 드러나 있다.
- ② 제2연과, 반복되는 부분을 뺀 제5연은 시조의 3단 구성과 유사하다.
- ③ 제3연의 '넉시라도 님을 혼디'는 향가계 고려 속요에도 등장한다.
- ④ 제3연에서 '녀닛 경(景) 녀기더니'는 경기체가의 양식적 특징과 유사하다.
- ⑤ 제6연의 '아소 님하'는 고려 속요에서 연과 연 사이에 발견되는 후렴구이다.

[36~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1세기에 인간은 자연 선택의 법칙을 깨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초월하는 중이다. 40억 년에 걸쳐 이어져 온 자연 선택이라는 구(舊) 체제가 오늘날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전 세계의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은 살아 있는 개체의 유전자를 조작해 원래 해당 종에게 없던 특성을 제공하는 ㉠ 생명 공학을 통해 자연 선택의 법칙을 위반하는 중이다. 이외에도 자연 선택을 지적 설계로 대체하는 기술로는 사이보그 공학, 비유기물 공학 등이 있다.

사이보그 공학에서 말하는 사이보그는 생물과 무생물을 부분적으로 합친 존재로, 생체 공학적 의수(義手)를 지닌 인간이 그 하나의 예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거의 모두가 생체 공학적 존재이다. 타고난 감각과 기능을 안경, 심장 박동기, 의료 보장구, 그리고 ㉡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진정한 사이보그가 되려는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발을 걸치고 있다. 이 선을 넘으면 우리는 신체에서 이러한 보완기를 떼어낼 수 없으며 우리의 능력, 욕구, 성격, 정체성이 달라지게 하는 비유기물적 속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인간 역시 사이보그로 변하는 중이다. ‘망막 임플란트’라는 회사는 시각 장애인이 부분적으로라도 볼 수 있도록 망막에 삽입하는 장치를 개발 중이다. 환자의 눈에 작은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게 핵심이다. 마이크로칩을 활용해 광세포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세포는 감각 수용체로서, 눈에 비치는 빛을 흡수해 이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이 전기 신호는 망막의 손상되지 않은 신경 세포로 전달되고, 이 신호는 뇌로 전송된다. 뇌는 이 전기 신호를 번역해 무엇이 보이는지를 파악한다. 현재 이 기술은 환자들이 방향을 정하고 문자를 식별하며 심지어 얼굴을 인식하게 해 줄 정도로 발전했다.

한편,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 중에 가장 혁명적인 것은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을 고안하려는 시도다. 컴퓨터가 인간 뇌의 전기 신호를 읽어내는 동시에 뇌가 읽을 수 있는 신호를 내보내는 것이 목표다. 이런 인터페이스가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한다면, 혹은 여러 개의 뇌를 직접 연결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해서 일종의 뇌 인터넷을 만들어 낸다면? 만일 뇌가 집단적인 기억 은행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된다면 인간의 기억, 의식, 정체성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상황이 되면 가령 한 사이보그가 다른 사이보그의 기억을 검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기억하게 된다. 뇌가 집단으로 연결 되면 자아나 성 정체성 같은 개념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스스로를 알고 자신의 꿈을 좇을까? 그 꿈이 자신의 기억 속이 아니라 모종의 집단 기억 저장소에 존재한다면 말이다.

그리고 자연 선택의 법칙을 바꾸는 또 다른 방법은 완전히 무생물적 존재를 제작하는 것이다. 유전적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과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분야인데, 유전자의 진화를 모방하려 노력하고 있다. 많은 프로그래머가 창조자에게서 완전히 독립한 상태로 학습, 진화할 능력을 갖춘 프로그램을 창조하는 꿈을 꾸다. 이 경우 프로그래머는 원동력이자 최초로 움직인 자가 되겠지만, 그 피조물의 진화는 아무 방향으로나 자유롭게 이뤄질 것이다. 프로그램 작성자를 포함해 어느 누가 마음속에 그렸던 방향과도

전혀 상관없이 말이다.

이런 프로그램의 원형은 이미 존재한다. 바로 컴퓨터 바이러스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포식자인 백신 프로그램에 쫓기는 한편, 사이버 공간 내의 자리를 놓고 다른 바이러스들과 경쟁하면서 스스로를 수없이 복제하며 인터넷을 통해 퍼져 나간다. 그 복제 과정에서 어느 날 실수가 일어나면, 컴퓨터화한 돌연변이가 된다. 어쩌면 애초에 인간 엔지니어가 무작위적 복제 실수가 일어나도록 프로그램을 ㉢ 찢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작위적 오류 탓일 수도 있다. 우연히 이 변종 바이러스가 다른 컴퓨터에 침범하는 능력을 잃지 않으면서 백신 프로그램까지 피하는 능력이 더 우수하다면, 그것은 더 잘 살아남고 번식하게 될 것이다.

미래에 사이버 공간은 새 바이러스들로 가득 찰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도 일부러 설계하지 않았지만, 무기물로서 스스로 진화를 거친 개체들은 과연 살아 있는 피조물일까? 그 답은 ‘살아 있는 피조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다. 이 바이러스가 유기체 진화의 법칙과 한계와는 전혀 무관한 새로운 진화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3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3점]

- ① 컴퓨터 바이러스는 백신 프로그램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 ② 인간은 성격과 정체성을 바꾸는 비유기물적 속성을 선천적으로 갖고 있다.
- ③ 컴퓨터는 뇌의 전기 신호를 읽어낼 뿐,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 ④ 망막의 신경 세포는 외부의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 뇌에 전기 신호를 보낸다.
- ⑤ 자연 선택을 지적 설계로 대체한 결과,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37. 윗글로 미루어 볼 때,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곰팡이 유전자를 변형해 인슐린을 생성한다.
- ② 대장균 유전자를 조작해 바이오 연료를 생산한다.
- ③ 뇌의 신경망을 모방한 컴퓨터 전기 회로를 컴퓨터 안에 심는다.
- ④ 메머드에서 복원한 DNA를 코끼리 DNA를 제거한 코끼리 수정란에 삽입해 자궁에 넣는다.
- ⑤ 벌레에서 추출한 유전 물질을 돼지에 삽입해 해로운 지방산을 건강에 이로운 지방산으로 바꿔 준다.

38. 윗글로 미루어 볼 때, ㉠을 사이보그 공학의 일부로 보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생리 기능과 면역계, 수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② 인간이 자연 선택의 결과로 갖게 된 물리적 힘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 ③ 인간의 뇌가 담당해야 하는 자료 저장, 처리의 부담을 덜어 주기 때문이다.
- ④ 전기적 명령을 해석할 수 있는 생체 공학용 팔의 원시적 형태물이기 때문이다.
- ⑤ 인간의 뇌가 일상생활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의 한계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39.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완전히 무생물적 존재를 만들어 내는 비유기물 공학에서 주요하게 연구하는 대상은 독립적인 진화가 가능한 ( ㉡ )이다.

- ① 전기 신호                      ② 신경 세포
- ③ 뇌 인터넷                    ④ 컴퓨터 프로그램
- ⑤ 컴퓨터 전자 회로

40. 문맥상 ㉢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작(製作)했기              ② 구성(構成)했기
- ③ 조직(組織)했기              ④ 개발(開發)했기
- ⑤ 활용(活用)했기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전라도 남원에 양생이라는 노총각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만복사에서 외롭게 지냈다. 젊은 남녀가 절에 와서 소원을 비는 날, 양생은 법당에서 자신에게 좋은 배필을 달라고 소원을 빌며 부처와 저포 놀이 시합을 하여 이긴다. 양생은 외로운 신세를 한탄하며 배필을 얻게 해 달라는 내용의 축원문을 읽던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 절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이때 달이 서산에 걸리며 인적 드문 마을에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절에서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며 새벽빛이 밝아 왔다. 여인이 말했다.

“애야, 자리를 거둬 돌아가려무나.”

여종은 “네.” 하고 대답하자마자 자취 없이 사라졌다.

여인이 말했다.

“인연이 이미 정해졌으니 제 손을 잡고 함께 가세요.”

양생이 여인의 손을 잡고 마을을 지나갔다. ㉠ 올타리에서 개들이 짖어 났고 길에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지나가던 이들은 양생이 여인과 함께 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다만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이렇게 일찍 어딜 가시나?”

양생이 대답했다.

“술에 취해 만복사에 누워 있다가 친구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침이 되었다. 여인이 이끄는 대로 풀숲까지 따라와 보니, 이슬이 흥건한 것이 사람들 다니는 길이 아니었다. 양생이 물었다.

“어찌 이런 곳에 사시오?”

여인이 대답했다.

“혼자 사는 여자가 사는 곳이 본래 이렇지요, 뭐.”

여인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건넸다.

이슬 젖은 길 / 아침저녁으로 다니고 싶건만  
옷자락 적실까 나설 수 없네.

[A] 양생 역시 장난으로 이런 한시(漢詩)를 읊었다.

여우가 짝을 찾아 어슬렁거리니  
저 기수(淇水)의 돌다리에 짝이 있도다.  
노(魯)나라 길 활 트여 / 문장(文姜)이 쏜살같이 달려가네.

한시를 읊조리고 나서 걸걸 웃었다. 두 사람은 마침내 개녕동에 도착했다. ㉡ 쑥이 들판을 뒤덮었고, 가시나무가 하늘을 가렸다. 그 속에 집 한 채가 있는데, 크기는 작지만 매우 화려했다. …(중략)… 술자리가 끝나고 헤어질 때가 되었다. ㉢ 여인이 양생에게 은그릇을 하나 내주며 이렇게 말했다.

“내일 저희 부모님이 보련사에서 제게 밥을 주실 거예요. 길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함께 절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양생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튿날 양생은 여인의 말대로 은그릇을 들고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과연 명문가 여인의 대상(大祥)\*을 위한 행차가 보였다. 이들 일행의 수레와 말이 길을 가득 메운 채 보련사에 올라가다가 선비 하나가 그릇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는 하인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 아씨와 함께 묻은 물건을 누가 훔쳐서 갖고 있사옵니다.”

주인이 말했다.

“뭐라고?”

하인이 말했다.

“이 선비가 아씨의 그릇을 가지고 있사옵니다.”

주인이 말을 멈추고 사정을 묻자, 양생은 앞서 여인과 약속했던 일을 그대로 말했다. 여인의 부모가 놀라 한참을 어리둥절해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우리 외동딸이 노략질하던 왜구의 손에 죽었는데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임시로 개녕사 골짜기에 매장했구려. 차일피일 하다 지금껏 장사를 지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게 되었소이다. 오늘이 벌써 세상을 뜬 지 두 돌이 되는 날이라 절에서 재(齋)를 베풀어 저승 가는 길을 배웅하려는 참이랴오. 청컨대 딸아이와 약속했던 대로 여기서 기다렸다가 함께 절로 와 주셨으면 하오. 부디 놀라지 말아 주었으면 하오.”

그렇게 말하고는 먼저 절로 갔다.

양생은 우두커니 서서 여인을 기다렸다. 약속 시간이 되자 ㉤ 여자인 사람이 여종과 함께 사뿐히 걸어오고 있었다. 과연 기다리던 그 여인이었다. 양생과 여인은 기쁘게 손을 잡고 절로 향했다.

여인은 절에 들어가 부처님께 절하고 하얀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여인의 친척들과 절의 승려들은 모두 여인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오직 양생의 눈에만 여인이 보였기 때문이다. 여인이 양생에게 말했다.

“음식을 함께 드시지요.”

양생이 여인의 부모에게 그 말을 전하자, 부모는 시험해 볼 생각으로 그렇게 해 보라고 했다. 수저 소리만 들릴 따름이었지만, 그 소리는 사람들이 밥 먹을 때와 똑같았다. 부모는 깜짝 놀라 마침내 양생더러 장막에서 함께 자라고 권유했다.

한밤중에 말소리가 낭랑하게 들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세히 엿들어 보려 하면 그때마다 말소리가 똑 그쳤다. 여인의 말은 다음과 같았다.

[B] “제가 규범을 어겼다는 건 저 역시 잘 알지요. 어려서 『시경』과 『서경』을 읽어 예의범절을 조금은 알고 있사오니, 「건상(褰裳)」\*과 「상서(相鼠)」\*가 부끄러워할 만한 것인 줄 모르지 않아요. 하오나 오랜 세월 죽대밭 너른 들판에 버려진 채 살다 보니 마음속에 있던 정이 한번 일어나자 끝내 다잡을 수 없었어요. 며칠 전 절에서 소원을 빌고 불전(佛殿)에 향을 사르며 제 기구한 일생을 한탄하던 중에 문득 삼세의 인연을 이루게 되었지요. 서방님의 아내가 되어 나무 비너를 꽃고 백 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시며 음식 시중에 옷 시중으로 평생 아내의 도리를 다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스럽게도 정해진 운명은 피할 수 없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는 넘을 수 없군요. 기쁨이 아직 다하지 않았는데 슬픈 이별이 눈앞에 이르렀어요. 지금 이별하고 나면 다시 만나긴 어렵겠지요. 이별할 때가 되니 너무도 서글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윽고 여인의 영혼을 떠나보내는데 여인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 대상: 2년 상을 마치고 탈상(脫喪)하는 제사.

\* 「건상」: 『시경』에 실린, 자유분방한 여인의 마음을 읊은 노래.

\* 「상서」: 『시경』에 실린, 예의를 모르는 사람을 풍자한 노래.

4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인은 양생의 아내가 되어 함께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 ② 여인은 양생에게 자신의 거처를 소개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 ③ 부모는 양생을 만나기 위해 일행을 이끌고 보련사로 향했다.
- ④ 양생은 아침 일찍 지나가는 이들의 질문에 마지못해 대답했다.
- ⑤ 양생은 이별의 날에야 여인이 장례 후 저승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았다.

42. <보기>를 참고해 [A]의 역할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애정 전기(傳奇) 소설은 서사와 서정의 교직(交織)이 다른 갈래보다 더 두드러진다. 작품에 한시(漢詩)가 다수 등장하는데, 이때 한시는 여러 서사적 기능을 담당한다. 분위기 조성, 감정 전달, 사상 전달, 대상 묘사는 물론, 등장인물 간 대화를 대신하거나 남녀 간 만남의 매개 역할을 한다.

- ① 등장인물 간 대화를 대신하고 있다.
- ② 남녀 주인공의 감정을 위로하고 있다.
- ③ 남녀 주인공의 첫 만남을 매개하고 있다.
- ④ 경물을 묘사하여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이별의 슬픔을 표현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43.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양생이 혼자 살며 부처와 저포 놀이까지 한 것으로 보아 양생의 외로움은 여인과 만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 ② 여인의 부모가 양생이 딸과 함께 절로 와 주기를 청한 것으로 보아 그들은 딸이 살아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다.
- ③ 여인의 부모는 수저 소리를 듣고 양생을 믿게 되어 그에게 장막에 머물 것을 권했다.
- ④ 여인이 어릴 적부터 『시경』과 『서경』을 읽었다는 것으로 보아 여인은 명문가 규수로서 소양을 갖춘 인물이다.
- 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을 수 없어 저승으로 가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 여인은 운명론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44.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대상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 ② ㉡은 공간 묘사를 통해 여인이 처하게 되는 위기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은 소재를 활용하여 이어지는 사건 전개에 필연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④ ㉣은 하인의 말을 통해 양생의 비범한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은 등장인물이 이승의 존재가 아님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5. [B]를 참고해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명혼(冥婚) 이야기를 통해 결핍 상태인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고픈 남녀 주인공의 욕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양생이 간절히 바라던 배필이 귀신이었다는 사실은 양생의 고독이 이 세상에서 해소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③ 인간적 욕망으로 원통한 죽음을 넘어서고자 하나 실현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극적 아이러니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여인이 규범을 어기면서까지 양생과의 결연을 시도한 것은 현실 세계에서의 고달픈 삶을 긍정하는 민중 의식을 보여 준다.
- ⑤ 양생과 죽은 여인 간에 삼세의 인연이 맺어진 것은 배필을 원했던 여인의 발원이 부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 확인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십시오.